



ID저장
로그인
회원이입 ID/PW 찾기

노무현이야기

- ▶ 걸어온 길
- ▶ 말과 글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 추모게시판
- ▶ 좋은글과 영상

대통령기록관
16년 대통령 웹기록
참여정부자료실
청와대브리핑

봉하마을

봉화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추모페이지

▶ **말과 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157174

등록일 : 2009.04.08 21:57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글을 읽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모금 이야기도 있고, 봉하 방문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한 특별한 행사나 방문은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멀리서 실망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눈살을 찌푸릴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욕먹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잘못이나?’ 또는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고, ‘잘못은 잘못이다.’ 또는 ‘좀 지켜보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논쟁이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잘못은 잘못이다.’는 쪽입니다. 또 좀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이 같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편들어 글을 올린 분들이라고 저의 잘못이라는 점을 모르기야 하겠습니까? 알면서도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스스로의 실망을 인정하기 싫어서, 저를 편들어 글을 올리신 것일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냉정한 평가를 한 글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허물을 이미 사과한 처지입니다. 이제 이 홈페이지로 인해 욕을 더 먹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2009년 4월 8일

노무현

출력하기

-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모역 안내

9년만의 비탄화면
오늘 하루 열지않음

총평 971개

깡깡깡 2009.04.08 22:01

힘내세요!!!! 진실은 꼭 진실로 밝혀질 것이니까요..

인드라망 2009.04.08 22:01

옳은 지적이십니다.

아픈 마음은 아픈대로 두고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꼭 힘내십시오.

유니트 2009.04.08 22:02

대통령님 힘이 납니다.

봉하보리 2009.04.08 22:02

노짱님~~~~~ 울고 싶습니다.
아자아자~~ 사랑합니다.

현이와함께 2009.04.08 22:03

네,,,, 잘 알겠습니다.(착한 학생) 건강 조심하십시오.

산비둘기 2009.04.08 22:03

모쪼록 두 내외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플로렌스 2009.04.08 22:03

눈물나게 만드시는 님!
힘내시고..
건강지켜내십시오~!

호기호기 2009.04.08 22:03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봉하에 두고 있겠습니다.

암전환 2009.04.08 22:04

담담하게 듣고..
담백하게 보고..
이기는는 그 날 ...
조용하게 차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읍는사람 2009.04.08 22:04

믿습니다....후대에평가받으세요~~

봉화네 2009.04.08 22:04

알겠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다.
그냥 바라만보고 말없이 가슴으로 만 느끼겠습니다.

무한감동 2009.04.08 22:05

노짱님,그리고 여사님 사랑합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 힘내세요

맹강이 2009.04.08 22:05

늘푸른소나무처럼 사계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이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우리 대통령..대통령
님... 건강잃지마세요. 사랑합니다. 노짱만세~!

선한사람 2009.04.08 22:05

네 대통령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여기에서도 맘껏 제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는게 서럽습니다

노블리 2009.04.08 22:05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TTTTTTT

pegasus 2009.04.08 22:06

잘 알겠습니다
님의 마음을 모르고 ..
죄송합니다

하이애나 2009.04.08 22:06

사랑합니다.
언젠가 저 권력의 개가 되버린 검찰을 향해 아니 이명박의 대갈통을 향해
그 옛날 들었던 명패를 던질날이 꼭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시고요.

칭찬 2009.04.08 22:06

힘내세요. 한 때 두 전직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씨를 혼줄내주었던 "청문회스타""떠오르던 별"...아니었든가요. 어차피 더 망가지는
일은 없을테니 면산 보고 꼭 참고 밤잠 설치지 말고 잘 주무세요. 잠못주무시면 손해니까여.

산너울 2009.04.08 22:07

휴..또 걱정을 드리게되네요
안그래도 힘드실텐데 죄송합니다
맘 편히 하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ㅠㅠ

맹강이 2009.04.08 22:07

노대통령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냥... 2009.04.08 22:07

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자니 속앓이가 심해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신 글을 읽고나니 가슴이 좀 차분해 집니다.

거제지킴이 2009.04.08 22:07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참 뜻을 거두겠습니다.
그러나 제 아픈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대통령님 생각에 힘듭니다.
부디 힘내시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유성이맘 2009.04.08 22:07

마음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오늘은청춘 2009.04.08 22:08

대통령님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연두량 2009.04.08 22:09

말씀 새겨 들겠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산바다강 2009.04.08 22:10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새와나무 2009.04.08 22:10

마음은 벌써 봉하로 달려가지만..
대통령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잘 돕는 방법이겠지요.
늘 뒤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다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피그셋 2009.04.08 22:10

저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그날까지 노공이산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igna 2009.04.08 22:10

노짱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존경합니다.

어찌 2009.04.08 22:10

너무 짧고 있긴 합니다.. 좀 식히는 것도..
두 분 건강 챙기십시오..

일상의여유 2009.04.08 22:11

어떤 평가가 되었던 내 얼굴에 침 뱉는거 참을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 생각됩니다.....단지...
말씀테로 참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아주조금만!!

산소맨 2009.04.08 22:11

모금을 주장하시는 선한 님들...^^

멀리서 실망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눈살을 찌푸릴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욕먹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가하고픈 말을 노공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노공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봐 드리는게 도리입니다.

비니루 2009.04.08 22:11

무소의 빨처럼 가라는 말..
어느 분이 TV에 나와서 그러더군요.

그 말은 노짱님께서나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사님께 위로의 말씀드리구요,

두 분..
답답하게..
치르게 되실 험한 일정들 힘내시고 지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것, 즐겁고 싶은 권리 맘껏 누리다 이제 찾아 뵙네요.

어디계시든 저희는 언제나 노짱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권보경 2009.04.08 22:11

가슴 아프고 아프시겠지요...
요즘 별소리를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화나고 슬픕니다.
잘못은 잘못이지요..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것 또한 알고 있기에 이렇게 더 슬픈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뉴스만 들여다 보며 컷다 컷다만 하네요..
이번일로 건강 해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모습 또한 좋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건강해치지 않으실까 걱정입니다. 건강하세요 님의 건강이야말로 저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노동 사랑 2009.04.08 22:12

네, 노공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겠습니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하늘an바람 2009.04.08 22:12

힘 내십시오...대통령님...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자라리우스 2009.04.08 22:12

각하~ 우리들은 신님이 있습니다..바로 노무현에 대한 신님입니다..그렇기에 그 신님테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말은 노무현이 바로 우리들의 신님이라는 말입니다..
절대 움추려 들지 마세요..
어느때보다 활기차게 행동해주세요..
잘못하신거 없습니다..당신이 무너지면 우리들의 신님도 무너지집니다..
힘내시리가 믿습니다..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노짱은 영원한 우리들의 신님이고..
우리는 영원한 노빠입니다

이급수아우 2009.04.08 22:13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퍼니팜 2009.04.08 22:13

힘내세요.언제나 지지합니다.

보미니&성우 2009.04.08 22:13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일은 진행해도 괜찮지요?
허락해 주시는거죠?

digna 2009.04.08 22:13

노짱님
실망이라뇨?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사는 일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노짱님도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여사님께도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천사짱 2009.04.08 22:13

정말 사랑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이번건을 잘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자라리우스 2009.04.08 22:13

네 노짱이 겹다면 검은 것이고 희다고 하면 흰것입니다..

산바다강 2009.04.08 22:14

힘 내십시오...대통령님...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2)

용인입니다. 2009.04.08 22:14

역사는 평가할 것입니다.
대법하시며 솔직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도과당 2009.04.08 22:14

눈물을 참으려 어금니를 악 다무는데도 결국 푹 푹 자판에 떨어지네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bailey3 2009.04.08 22:15

힘내십시오. 믿습니다.

더버라 2009.04.08 22:15

"잘못은 잘못이다"라는 말씀만큼
정치적 탄압이며, 검찰쪽의 명백한 편파, 표적수사인 것 같습니다.
그점에서 억울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설익은 밥 2009.04.08 22:15

힘 내십시오...대통령님...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3)

타나토스 2009.04.08 22:15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도 어차피 욕먹는 건 마차가지 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력이 나서 그러려니 하지만... 진정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지켜보는 것 밖에는 없는 걸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주님처럼 2009.04.08 22:15

그마음을 헤아려드립니다.

아지송 2009.04.08 22:15

힘 내십시오...대통령님...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4)

뮤리엘 2009.04.08 22:16

얼마나 힘드실지 감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거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76sea 2009.04.08 22:17

시키는대로 분부 받들겠습니다.

봉주르 2009.04.08 22:17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서민출신 대통령으로 우리 서민의 우상이면서 희망이었습니다. 대통령님 께서 부산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

던 시기에 저의 여동생이 부산역에서 매표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노무현님께서는 꼭 본인이 직접 줄을서서 기다렸다가 표를 산다고 했습니다. 물론 귀빈실 이용도 하지 않았고 말입니다. 지금도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통령님의 그러한 모습이 좋았을 겁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 저와 너무나 흡사해서 저는 대통령이 헛기침하는 것 까지도 좋았습니다. 모두가 욕을 해도 저는 대통령님께서 돈을 받았더라도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돌아 가는걸 보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재직시절에 이루어놓을 걸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에 바른 소리하는 용감한 사람이 필요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사회에서 바른소리 쓴소리를 서슴없이 하는 정치인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뿔튼이 고비를 잘 넘기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주변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죽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라리우스 2009.04.08 22:18

아 정말 미치겠습니다..노짱의 글에서 슬픔을 느낍니다..
저지신 어께가 떠오릅니다..
아이 더러운 명박이...너가 그러고도 일국의 통수권자더냐??
한마디로 소인배다..
노짱이여~
당당하소소~
노짱이여~
부디 힘내세요

맹짱이 2009.04.08 22:19

많이 아위신 모습, 초췌한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는날까지 어린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당당함,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말은 하는 당찬 모습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노무현대통령님 정도는 되어야죠.

국가와민족을위해 2009.04.08 22:19

만민은 법 밖에 평등하며 차별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시는 노무현대통령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해야한다”는 노골이신님, 일반 소시민으로 멀리서만 바라봐도 이미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으나 거듭 확인을 받습니다. 역시 노짱님입니다.

청칸 2009.04.08 22:19

태양과 같은 전직대통령님.... 민족의 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노무현전직대통령님!!! 힘내세여. 그정도 드신거 가지고 난리라면 세상에 대통령 해먹을 놈 아무도 없겠네요.

리즈유나이트 2009.04.08 22:19

대통령님 힘내세요...많은 국민이 당신과 함께하고 진실을 믿습니다.역사님도 너무 심려하지마셨으면 좋겠습니다.지난 시절에도 그랬듯이 노사모나 노무현팬클럽이 아니고 국민이 함께할것입니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해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시간과 역사가 밝혀낼것입니다....건강 주의하시고 힘내세요..대통령님 용기에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포터 2009.04.08 22:20

저의 마음은 '항상 함께'일 뿐입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더 펼쳐 일어나
민주주의를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눈물겹도록.....

영원한 나나 2009.04.08 22:20

힘내시고 건강 하십시오.
말씀대로 지켜보겠습니다.

머우실 2009.04.08 22:20

당신을 영원히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속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믿어 온 사람들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온니유 2009.04.08 22:22

법적인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듯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노무현은 무죄다" 라는 개인적 판단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권리일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갓대로...
"노무현은 무혐의"라고 생각할뿐입니다...

힘의가 없으므로...용서도 필요없고...
사과도 필요없습니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나라죽이는조중동 2009.04.08 22:22

허격! 또 글을 올리셨군요. 역시...당신의 글은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존경합니다 노대통령님..

지역발전 2009.04.08 22:23

모금 관련글에 댓글달고 보니..
노짱님의 글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형주아부지 2009.04.08 22:25

당신의 정의롭고 당당한 생각을 존경합니다.

무쏘궁댕이 2009.04.08 22:27

역시 노짱님이십니다..^
님에 대한 검찰의 판단 두눈뜨고 지켜보겠습니다

... ..!!
앞으로도 계속 꾀꾀하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진 2009.04.08 22:27

...0...
..꾸벅..

맑은 물 2009.04.08 22:28

오늘 아고라에 어떤분이... 우리대통령님에 대해 올리신 글을 읽으며 눈이 퐁퐁하게 울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많이 울어서 그런지 머리까지 아파옵니다. 실망은 커녕, 힘이 되지도 못하고 안쓰러워서ㅠ.ㅠ.ㅠ... 저도 최후의 지지자가.... 내 생명이 있는 날 까지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Pattern 2009.04.08 22:28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비짱 2009.04.08 22:29

전 대통령님이 이나라를 이끄실때엔 잘 몰랐었습니다..
저 또한 대통령님을 반대도 많이 했었지요.....-..T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조금은 알것 같아요...
왜이리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졌는지...무슨 독재정권도 아니구...
제 짧은 생각으론 현 정치권에 계신 분들 대통령님 만큼이나
좀 깨끗하게 하고 물러나시길 바래요..더 하지만 말고...
이 어두운 세상..언제나 빛이 밝아지려나...--

참, 수사도 받으신다면... 건강 챙기시면서 잘 받으세요...꼭! 꼭! 꼭!이요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무슨사정으로인해 약간의 돈을 받으셨다해도 전 대통령님을 응원해요...~
ㅎㅎ 그것도 능력이시잖아요~~

더 해먹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한데...

세상을 많이 알진 못하지만, 노짱 하이팅입니다...

토르(블루펑크) 2009.04.08 22:30

네... 노공이산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조엔 윤 2009.04.08 22:30

처음마음 그대로 노공님을 존경합니다

힘내시고, 건강챙기시길 바랍니다.

티끌모아 2009.04.08 22:33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 좋습니다...몇번 지우다 쓰다가.....

잡초와들꽃 2009.04.08 22:34

사랑하는 대통령님!
너무 미안해 하시지 마세요.
너무 마음아파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고개숙이지도 마세요.
대통령님의 잘못이 아니십니다.
한 국가의 원수를 지내신 분이 빛을 내어
사저를 마련하실만큼 청렴하게 살아오신 분들...
그런 대통령님의 진심도 마음도 열정도 외면하고 등돌리고
몰라주고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힘없는 국민...
그런 어리석고 가엾은 국민의 편이 되어주고자
안간힘을 쓰시고 싸워오시며 한평생을 바치신 대통령님께
이런 수치와 수모와 고통밖에 안겨드리지 못하는
바보같은 우리 국민들의 잘못이고 과오입니다.
어서 이 악몽같은 시간들이 어서 빨리 지나가버리기를 바라며
부디 몸도 맘도 아프시지 마시고 강건 또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힘내세요!

AirMaestro 2009.04.08 22:35

티비도.. 라디오도 듣지 않게 됩니다. 제발.. 아니기를.. 하는 ..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cozy 2009.04.08 22:36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통령은 내 가슴속의 아름다운 이입니다.
힘내세요.
이게 도대체 뭇일인지 TT

지금/여기 2009.04.08 22:36

저는 이제 막 노공이산님을 만났지만 영원한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바다처럼 2009.04.08 22:36

대통령님은 聖자가 아니라 聖者같은 정치인이셨습니다
정말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인정하셔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을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힘내십시오

행복한 여자 2009.04.08 22:37

저는 노공이산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님은 가족과 같은 분이십니다.
가족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슬프면 같이 슬프죠.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금수아우 2009.04.08 22:38

칭찬님,부정입학한 알바학생!

최마님 2009.04.08 22:39

작년부터 처음으로 정치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그 전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할 말이 참으로 많은데 머릿속에서만 뒤죽박죽 ...
누가 누구의 도덕심을 나무라는 건지...
힘내세요!! 절대 힘내셔야 합니다 ...
저희에겐 노 대통령뿐입니다 TTT

소속골 2009.04.08 22:40

탄식 뿐입니다. 힘내세요~

천지인수 2009.04.08 22:43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소박한 들꽃 2009.04.08 22:44

대통령님의 글과 댓글을 보면서 ...이 모든 진실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시인의별 2009.04.08 22:44

지금은 교회의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절기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말이지요.

그래도 십자가 너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언제나 참과 거짓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 오신 님의 충정과 나라사랑, 백성에 대한 긍휼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나라죽이는조중동 2009.04.08 22:45

아 정말.. 여기 댓글들만 읽어도 눈물이 나오TTTTTT

통일 2009.04.08 22:45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일 큰 상을 받아야 합니다

wltslv 2009.04.08 22:46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합니다.
힘 내시고 항상 건강 하시길 빕니다...

힘이되고싶습니다 2009.04.08 22:47

너무 힘이 없는 제가 꺾송해서 눈물이 납니다.
말씀 한마디 그 깊은 또한 저를 포함 역시 존경을 받을 만할 분이어서
글을 안남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뒤에서 있기 보다는 무엇이든 참여해서
힘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멋 2009.04.08 22:48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이 같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믿습니다!!! -

조은세상 2009.04.08 22:48

어떻게 이런 일이..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선까지가 진실인지.. 이해될 수 있는것이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믿습니다.

봄바람에자유 2009.04.08 22:48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잡아야만 차후 물리지 않아요. 세월이 약입니다. 다음엔 미친개들 꼭 무협지에 내가 지옥에 들지 않으면 이땅이 지옥이니 어찌 들어가지 않으리오. 하던테 명언이라 생각 되네요.

삼국지 2009.04.08 22:48

끝까지 힘 잃지 마시고, 굳건하셔야 합니다

newstep 2009.04.08 22:49

알겠습니다!

ibee 2009.04.08 22:50

그 누구보다 많이 힘드실텐데
다른 국민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한글 2009.04.08 22:51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존경합니다.

바라기 2009.04.08 22:52

힘내세요.

섬과자유 2009.04.08 22:54

울 대통령님...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이 시련이 지난 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람사는 세상을 가꾸어가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너무 사랑합니다.

ssume 2009.04.08 22:54

노짱님을 믿고 묵묵히 따를뿐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욕설도 같이 감내할 것입니다. 지난 5년도 그래왔으니까요. 다만 이번일로 인해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면 언젠가 우리의 뜻을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부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노무현33 2009.04.08 22:57

노공이산님 뒤편 수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힘내세요....존경합니다..꾸벅(BABO철이)

광개스칸 2009.04.08 22:57

어거지 검찰수사와 진실을 지켜 보겠습니다.
그러나 봉하마을은 방문할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뵙고 싶지만 봉하의 봄을 느끼고 싶거든요.
저도 이제 봉하가 좋아졌어요.
폭 주무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바라기 2009.04.08 22:58

당신이 힘들어질수록 당신의 향한 저의 존경은 깊어만 갑니다.

가행수 2009.04.08 22:59

네~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지금 현재 불거진 일들은 정치인 노무현님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저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대한민국의 아픈 근대사를 겪으면서 우여곡절 싸워왔던 인간 노무현님에 대해 저는 힘내시라고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길 바라며 권여사님께서 행어나 별 탈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때 검찰의 수사가 좀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BBK 무혐의 사건도 그렇고.. 오늘 검찰이 MBC 압수 수색하려고 들이 닦친 것도 한 예입니다..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사장 이름이 거론 되었음에도 무엇이 두려운지 아무도 조선일보 방회장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MBC를 들이닥칠게 아니라 조선일보를 들이닥쳐야 할 일 아닙니까? 노통님을 수사할 의지처럼 말이죠..

좀 검찰은 수사를 할려면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 때문에 검찰에서 아무리 노공님을 겨냥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 사건 또한 뇌물비리 보다도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공님을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 같은 이유때문에 도리어 이명박정권을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구요... 화이팅입니다..

로즈원 2009.04.08 23:01

노짱님을 믿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지역발전 2009.04.08 23:03

역시 노짱님이십니다.

모금운동!

신중해야합니다. 왜 이리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는지..안타깝네요.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어차피 벌어진일..침착하게 대응해야지요.

갑자기 일이 불거지니까.성급히 모금하자. 그래서 얼마나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데요?

너무 기분에 즉흥적이지 않아요?

일이 불거지면 움직이는 행태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저도 노짱님께 죄송스럽지만 이럴때일수록 침착하게 움직이셔야한다고 봅니다.

들꽃종아 2009.04.08 23:03

힘드시더라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진심은 통하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이 시련의 바다를 함께 건너겠습니다.

강릉의하니 2009.04.08 23:04

네 대통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일요일날 저의 가족 5명이 조용히 봉하를 다녀오는 것은 이해해 주시겠죠. 저는 영원히 대통령님과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doll 2009.04.08 23:07

민초들에게 민폐 안끼칠려고 하는 노공님의 하회와 같은 마음을 그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부디 이번일로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방문객을 맞이하는 모습 다시 보였으면 합니다.

음내사는오빠 2009.04.08 23:08

연배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람사는 세상처럼

전 사람대 사람으로 님을 좋아합니다. ^^

무슨 일이 있든..

제 숨을 거두기전까진 전 님의

든든한 지지자.. 든든한 후원자가 될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건 존경합니다 ^^

등이등이 2009.04.08 23:09

항상같이하고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추운겨울지나고 봄이 오듯 님의 봄은 참잔인하고 무섭네요.
조금더 지켜보고 시간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초뭍 2009.04.08 23:09

좋은 말씀입니다.
노짱님!! 힘내세요~그리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화이팅!!!

인간혁명 2009.04.08 23:10

정치자금법의 현실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즘 새삼 느끼게 하시는 우리 대장님 좋은정치인과 나쁜정치인을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의 불합리에 의해 결국 돈 없는 좋은정치인들이 제테로된 정치를 할수없는 현실을 이번일을 계기로 개선될길 바랄뿐입니다... 끈임없이 이슈를 제공하시는군요
역시, 건강하셔야 합니다....

튼튼청구 2009.04.08 23:10

대통령님 힘내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보물사랑 2009.04.08 23:11

대통령님 힘내세요!!
여사님도요...
사랑합니다.

울릉도 2009.04.08 23:12

얼마쯤은 검찰의 발표나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진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란 것을 감안하고 라도 이 모든 것이 노무현씨의 집안과 주변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도 상상 할 수도 없다. 이쯤 되면 노무현 당신은 수신제가도 못한 주체에 대통령한다고 기고만장 했던게 아닌가? 난 오늘도 친구들한테 개망신을 당했다. 끌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지만 한마디도 킁 소리도 못했다. 왜 내가 개망신을 당했는지 구차하게 설명을 앓았다. 도대체 이게 뭐고 말이다? 차라리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에 난 오늘 밤도 잠 못 이룰 것 같다.

지도자 2009.04.08 23:13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BOOLJAGO 2009.04.08 23:17

노짱님... 이겨내세요. 의연하게 맞서십시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5공청문회때의 그당당하던모습...
당신을 믿습니다. 끝까지 노짱님 지지합니다.

gmlswnajsl 2009.04.08 23:19

알겠습니다.

노망난할배 2009.04.08 23:23

사랑합니다 영원히 변하지도 변할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 건강 각별히 조심 하십시오...

아즈라엘21 2009.04.08 23:23

마음이 그냥 저려웁니다.
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
대통령으로써의 노짱님!
한사람에 자연인으로서의 노짱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건강꼭 챙기세요~~~~
노짱님 믿 ~~~썩~~~니~~~다!

그립다참여정부 2009.04.08 23:23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좌충우돌 2009.04.08 23:24

네~기다릴게요^^

꼭! 기다릴게요^^
몸 상하지않게 꼭 잘 챙기셔야 해요.

태산아래피 2009.04.08 23:24

힘내십시오...인터넷에 올라온 한줄기사가 이토록 아플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 어떠한 사실이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몰라도.. 전 노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맹목적 신뢰가 아니라,, 당신께서 조금씩 조금씩 알려려 하셨던 진실의 모습을 서민으로서 보았기에 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더욱 힘내십시오.. 당신을 바라고 그리워하는 우리 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구요..
정녕 잘못이 있다면 몇몇하게 밝히면 되는 문제이고..
지하병기를 좋아하는 이모씨처럼 거짓을 진실인양 진실을 거짓인양 늘 뉘뉘인것처럼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것 보다 우리들의 대통령인 당신처럼 솔직하게 시인하고 솔직하게 드러낼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진실이고 신뢰일 것입니다..
노대통령님. 사실 오늘 한잔했습니다. 머리는 빙빙도는데..
이 글을 보니 꼭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두 30대이지만,,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이토록 중요한지 요즘에야 새삼스레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룬 업적과 문화 사람...
그립습니다.. 빼애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봉하마을 논귀통이에서 막걸리잔 들이키는 사진속의 노무현뿐 아니라,
TV속에서 당당히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그런 대한민국의 노무현으로 돌아와 주세요..
힘내십시오.. 기운내세요... 사랑합니다.
평택에서 30대 직장인이 올립니다..

뽀파이어 2009.04.08 23:26

아직도 년 혼잔거니 물어오네요
난 그저 웃어요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건가봐
좋은 사람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말하죠

그땐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걸
너무 소중한데 꼭 숨겨두었죠
그사람 나만 볼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입술에 영원히 담아둘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걸

나는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그땐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걸
너무 소중한데 꼭 숨겨두었죠
그사람 나만 볼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입술에 영원히 담아둘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걸

알겠죠 나혼자 아닌걸요 안쓰러워 말아요
언젠가는 그 사람 소개할게요
이렇게 차오르는 눈물이 말하나요
그 사람 그대라는 걸

~~~~~ 사랑합니다.

zardo 2009.04.08 23:28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세요!^^

아재 2009.04.08 23:31

대통령이 되시기 전이나 대통령 떠나 퇴임 이후에도 한결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어 힘이 됩니다.

파이팅 2009.04.08 23:31

이글을 읽으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정말 감출수가 없고.. 마음이 왜이리 아픈건지...건강하세요.. 꼭 힘내십시오..

근플래닝 2009.04.08 23:31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저는 대통령님이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이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우리 모두 진실을 지켜 봅시다..언론의 보도에 휘둘리지 말고. 검찰 수사가 끝나면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에 진솔한 입장 표명이 있을것입니다..저는 법의 논리를 떠나, 그당시 이해할수 있는 대통령의 입장과 진실이 있을것이라 믿습니다...감사합니다.

행운나라 2009.04.08 23:31

항상 마음은 당신이 우리들의 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와 배려와 국가를 생각하게 하신분이시니,  
세종대왕님 이후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길이 빛이 나실겁니다...

너무 속 태우시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히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이에서 노무현을 사무치게 존경하는 중생이 올립니다,

GLADIATOR 2009.04.08 23:33

솔직하고 아쉬운 부분이 없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 어느 정부보다도 도덕적인 우위로 이뤄낸 참여정부가 그 마지막남은 자존심을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MB정권앞에 심판대에 오른다는것이

수치스러울뿐입니다.

노전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기전에 한가정의 가장이셨습니다.  
십분이해하면서도 섭섭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노전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신있고  
그 이전의 정권들의 더럽고 추잡스러운 모습들에게  
일타를 한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진보에 충분히  
기여하셨습니다.

시일이 지나 좀더 지켜봐야하겠지만 노전대통령께서  
자신있어하는만큼 반드시 당신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시다면  
전 믿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당신으로 인해서 좀더 진보적인 대통령상을 보았고  
국민들 또한 썩어빠진 상위 10%에게 일타를 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코발트 블루 2009.04.08 23:34

노무현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성수 2009.04.08 23:35

대통령님, 여사님..  
절대로 아프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영원히..

cochi 2009.04.08 23:35

대통령님께

항상 의연하시고 당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짱님은 우리 조국의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들 그리 염두에 두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빛이 있다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자였음에도 빛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말씀에 '진정 우리나라가  
참된 민주주의를 통과했구나'를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우리를 위해 너무도 수고하신 분에게 우리는 큰 빛을 지고 말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검찰이 이럴수가 있는가, 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언급해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정  
권 때, 조금만 힘이 있어도 떠들던 그들이 현 정권의 비리 앞에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의아합니다. 감사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  
겠지요.

국민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 사죄드립니다.

항상 의연하시고 당당하시기를, 그리고 이제는 더욱 큰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냉정과열정 2009.04.08 23:37

노짱님~ 힘내세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kuku 2009.04.08 23:37

네~~~ 힘내세요~~\*^^\* 아자아자~~!!

허니랑 2009.04.08 23:39

휴~우 힘드네요 마음이 무겁고 제 이런 마음이 노대통령께 실수한것이있으면 좋겠습니다

bigbros 2009.04.08 23:40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이 같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직감합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질 것이고, 어제 사과문은 우리 역사상 리더들이  
보여야 할 도덕적 잣대를 한 층 더 높여 준 일이 아닌가 합니다.

언제나 큰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계속 지지자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두리 2009.04.08 23:41

끝까지 저희들 걱정이지군요 ^^ ^^ ^^ ^^  
저희 팬클럽아~대통령님 ..^^ ^^ ^^ ^^  
건강하셔야해요...끼니 거르지마시구요~ ^^ ^^

유리창너머 2009.04.08 23:42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은 아니였으나, 언젠가부터 뒷켄에서 조심스럽게 응원하고 존경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사랑하는 당신께  
분명 좋은 일이 있으리라 봅니다. 눈부시게 푸른하늘에 당신의 미소가 흐릅니다. 어린 영혼들은 그 미소에서 희망을 봅니다. 팬클럽  
습니다. 당신의 빛을 사랑합니다.

노생금 2009.04.08 23:43

이렇게 노무현대통령님의 심정을 글로나마 읽을수있어 조금은 위안이됩니다.대통령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것이 가장 좋을듯합니다.시간이지나면 상황은 달라질거라 믿으며 건강히뵈을수있는날을 두손모아 기다리겠습니다.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매그놀리아 2009.04.08 23:43

노짱님..  
절대로 아프지 마시고..  
건강..또 건강하셔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탱크2 2009.04.08 23:49

백프로 완벽 할순 없겠져~~ 우리사회의 현실이니까  
하지만 지금껏 봐 오지 못한 수 많은 것들을 남은 실천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뛰어난 지도자 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 처럼 척박한 환경에서의 남은 실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님과 같은 지도자가 또 나왔으면 하는것 입니다

대갈공명^^ 2009.04.08 23:50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훌륭한 사람  
으로서 존경합니다. 이 분은 정의의 알고 또 그것을 위해 행동할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거진 돈문제 등으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예전에 당당하던 그 모습은 앞으로도 변함없을것이라 사료됩니  
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은영사랑 2009.04.08 23:51

힘내십시오. 화이팅하셔서 무너지지 않고 풍파를 헤쳐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랭이골 2009.04.08 23:51

글만읽다가 몽클한마음 어찌지못해TT TT  
힘내십시오.

예을담 2009.04.08 23:51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굴하지 마시고 계속 희망을 그려주세요.

끼리코 2009.04.08 23:53

처음으로 정치에, 정치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청문회에서 본 노짱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40보다는 50이 더 가까운 나이에,  
한 사람의 께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까닭도  
늘 가장 힘든 자리에서 그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노짱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노짱님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노짱님이라면,  
그 사람 정말 훌륭한 분일거라고 누구든 생각할 수 있게..  
그것이 제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노짱님 어깨에 얹어드린 것이  
훈장이 아니고 희생과 고난이었음을 모르지 않기에  
이런 상황들이 더욱 죄송스럽고 가슴이플 뿐입니다.  
  
노짱님과 권여사님,  
그 환한 미소 다시 볼 시간이  
조금이라도 당겨지길 기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조금은 편안한 밤 되시길...

운약 2009.04.08 23:56

우리의 대통령님 힘내세요~!

윈터우먼 2009.04.08 23:57

노공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것이 늘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비단장시 2009.04.08 23:57

힘내세요 ^^ 웃으며 살날 있을것입니다 ...

막살녀 2009.04.08 23:58

당신의 글에는 언제나 똥오줌 못가리며 오직 자기목구멍 빼갈나게 풀칠하기에 급급한 우리들을 한번 생각하고 속고하게 만드는 당  
당한 겸손과 자중함이 있어 기대해 봅니다.

존재의 힘73 2009.04.09 00:00

정말 님 멋지시네요^^  
한편으로 습습한것은 오죽히 정치와 사회가 왜곡되었으면

님의 '잘못은 잘못이다'라는 당연한 말씀이 이렇게 신선하고 멋지다고 생각이 들게 된다는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단순한 진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작금의 한국 풍토를 비추는 거울같은 말씀에 다시금 울컥 합니다.

mcsolong 2009.04.09 00:05

네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어제님께서 말씀하신 "사과드립니다"를 보는 순간 너무 분해서 순간적으로 어찌할바를 몰라했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인이 눈썰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노짱님께도 누가되지 않도록 조심히, 그리고 좀더 현명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사님 두분 모두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버스 2009.04.09 00:05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쭉 여태껏 해 오신것과 같이만 해주세요... 어르신을 우상으로 삼고 본받고 싶어 하는 젊은이에게 큰 등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일어나시길... 꼭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사는 세상으로 만들수 있게 많은 충고와 격려를 바랍니다.

솔피 2009.04.09 00:06

가슴이 뭉클합니다. 변치않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외에는 해드릴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거침없는 2009.04.09 00:07

응원 보내 드립니다. 핫팅!!

cosmic4 2009.04.09 00:09

언제나 늘 한결같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순백의 보석같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기에 보석보다 더 아름답고 값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제나 늘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니캉내캉 2009.04.09 00:09

당신 걱정보다 저희 걱정을 먼저 하십니까???

노짱님 건강하시고 더 많이 잘 드셔야합니다.  
님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담아놓은 한국이란 나라... 당신이 던져놓은 숙제를 후세들이 어떻게 하는지 꼭 지켜보셔야합니다.

당신을 통해 본 세상이 넘 좋았습니다. 당신은 멘토입니다.  
제가 종교를 바꿀지언정 당신에 대한 지지를 접을수 없을것입니다.  
너무 많은 깨달음을 던져주신 스승님...마음 아프게 사랑합니다.

님의 꿈을 타고 태어난 울 딸과 울 마누라와 함께 늘 당신과 함께 합니다.  
산자와 죽을 자를 통틀어 가장 존경합니다.  
살아서와 죽어서도 당신의 뜻과 함께 합니다.  
오늘의 고통이 아무리 가혹하여도 원통함이 하늘을 찌를지라도 결코 변함없이 굽힐 수 없는 자세를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짱님 당신을 알수 있었기에 삶이 삶이었습니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하세요. 제발 오래오래 사세요!!!!!!

야옹이야 2009.04.09 00:09

힘 내십시오!! 항상 영원히 지지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언제 이 어둠이 걷힐 수 있을런지요...

건강하십시오!!!^^

함장님 2009.04.09 00:13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힘내세요

구래 2009.04.09 00:15

처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 까지 보여주신 것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 분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과 다 드러낼 수 없는 부분들 있을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하고자 하셨던 일들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마음입니다.  
힘내십시오!

부산소리 2009.04.09 00:15

노통님 화이팅입니다.  
힘 내시구요. 여사님 힘드실까 걱정됩니다.  
사랑합니다.

hy0113 2009.04.09 00:16

알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수줍음 2009.04.09 00:17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실망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쓰러워 많이 아픕니다.  
힘들어 하시면 보는 제가 더 아플 것 같습니다.  
당당히 그리고 깨끗하게 이 현실을 헤쳐나가 주세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노통이그리워 2009.04.09 00:21

노통-1번개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이었지만 다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먼저 밝혀주신 것이 노통다웠습니다.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저는 4년 뒤가 정말 기대됩니다. 4년을 참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낭떠러지에서 손 걸치고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요. 과연 희대의 사기꾼께서 맞으실 결말, 참 기대됩니다.  
힘내시고요, 노통! 노통을 응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잊지마세요. -용인에서 20대 처자 올림-

opener 2009.04.09 00:24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할겁니다. 힘내세요

마리나맘 2009.04.09 00:24

그 어떤 상황이란 것이 있었을 것... 대통령님의 과거의 모습을 아는 저희로서는 당신의 어떤 피치못할 과오가 있었을지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로인해 변민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날들과 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록 마음뿐지만.. 저에게 노통님은 영원히 한 분뿐인 대통령이고 여전히 우뚝 솟아있는 희망입니다. 삶이란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와 같다는 말이 절실히 와닿는 요즘입니다... 여사님과 노통님~~ 건강하시구요 평화를 빕니다.... ^^

0708과도 2009.04.09 00:25

힘내십시오-----^^~

Adonisflower 2009.04.09 00:26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님을 지지합니다.

날아라치킨 2009.04.09 00:27

사랑합니다 노짱

개밥바라기31 2009.04.09 00:28

예

우루사 2009.04.09 00:29

어려울때..힘들때..  
묵묵히..  
곁에있어준 친구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작은힘이나마...노짱님께..  
그런친구가 돼 드리고 싶습니다..

동쪽의 태양 2009.04.09 00:29

사랑합니다.  
힘 내세요. 언제나 노통님 편입니다.  
전 걱정 안 합니다. 이번에도 씩씩하게 잘 이겨낼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멋 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입니다.

블루아트 2009.04.09 00:33

'함께'한 유일한 대통령 오직 당신뿐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노짱을 지지합니다.

大부산상고 2009.04.09 00:35

역시 선배님은 큰그릇입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배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루아 2009.04.09 00:39

저희가 노짱님의 마음을 알듯이...  
노짱님 또한 저희 마음을 아시는 듯 해서..  
소통된 느낌입니다....

지금은..노짱님께서 마음 편한신 대로..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노짱님을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써..  
자속하면서..이 일의 진행 과정을 지켜 보겠습니다..

모쪼록...권양숙 영부인과 함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노짱..화이팅..^^

이준우 2009.04.09 00:41

우직하게 의연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파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습으로... 노무현 대통령님 힘내세염!!!

백곰 2009.04.09 00:42

속상해서 소주한잔 먹고 들어와서 언제나처럼 사람사는 세상 소심하게 눈팅만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서글픈 눈물이 나네요...나

도 모르겠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학다리돌쇠 2009.04.09 00:43

두분 힘내세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필와신상담 2009.04.09 00:44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민이 속아서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나쁘지않게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고운사랑 2009.04.09 00:46

지금 얼마나 힘드시지... 너무 마음이 아픉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천지조화 2009.04.09 00:47

역시 우리의 대통령 노무현 !!!

터진후라이 2009.04.09 00:50

댓글이 178개가 달리고서야..이 타이틀을 봤습니다.  
아들네로..본집으로 왔다갔다.하러니 좀 힘이 들어요.  
나의 양심이 수락하지 않는 찬사는.  
오히려 더욱 고통을 주더라는..누군가의 고백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머리는 인식을 하는데.  
가슴이 말을 안들으니..우짜모 좋을까요..  
가만히 계셔도..닉네임들 면면들..  
속속들이 꿰뚫고 관조하고 계신다..싫습니다.  
노공이산님의 이런 면모들이 좋습니다.  
안 믿고..가슴도 말을 안들어 주고..우짜까요.ㅠㅠ

오렌지나무^^ 2009.04.09 00:52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승지 2009.04.09 00:52

퇴근길에 소주한잔하고 들어와,..글 잘 읽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마이갓갓 2009.04.09 00:54

기득권층이 노무현대통령님을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나네요. 노무현대통령님 권양숙여사님 이 소나기를 잘 버티세요. 그리고 민주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이번 사건으로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나녕 2009.04.09 00:56

저도 이제야 들어와 봅니다.  
힘내세요.

버리자 2009.04.09 00:58

잘못의 기준이 무엇인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데..  
힘이없는것이 죄라면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심적이거나 진실하면 세상은 그것을 왜곡하더군요.  
저는 노무현대통령의 진실성을 믿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0708파도 2009.04.09 01:00

건강하십시오!!!^^

tmfg18652 2009.04.09 01:03

우리가 그런생각을 미쳐못하고 불현을 드러내요 힘내세요

다래울 2009.04.09 01:07

아~~~~~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진리는 가장 단순하고 소박하다"  
문득 되뇌어지는 말!  
어떤 이유에서 그 오래전 읽은 책의 글귀가 떠오른걸까?

청년시절 누구나 한번쯤 빠져 보았을 고전예의 향기  
나에게 인류의 영혼이 들어있는 그 방문을 빼지시 열어준 사람,  
Lev Nikolaevich Tolstoi가 진리에 대하여 내린 정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롭고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극소수라 이야기 합니다.

살아오면서 가슴에 울림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지난날 숨어서 남몰래)존경했었습니다.  
(때론 이런 비겁한 제 모습을 보고 과연 나는 민족과 국가가 어려울 때 분명히 일어설수 있는가? 되 묻고 한없이 마음아파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히 존경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욕됨이 없이 할 것입니다.

2009 4월 9일

다래울

db55 세계 2009.04.09 01:15

아고라에 올라온 큰집님의 글을읽고 눈물이 핑~~도는데...어떻습니까.. 저에게 몇년동안 자유와 민주의 꿈을 주셨으니 이제 갓아드려야지요...

푸른소나무@ 2009.04.09 01:16

대통령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 가시는길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늘 강건하십시오....

님만이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맘 존경하는 맘을 담아 부디 대통령께서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Pro27 2009.04.09 01:17

노대통령 맘 국민이 더 잘안다

노대통령 속상해할필요없다

그정도는 국민이 용서하고도 남는다

오히려 국민은 더 존경하고있다

국민이 지지했던건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순수함과

진정성이었다

도덕적상처 그런건 없다

대통령의 퇴임후의 훌륭한 생각들을

국민이 더잘알고 있기때문이다

차떼기흉노세력세력들이

성상납흉노족일보와 청와대성매매정국을

돌파하기위한 또다른 흉계일뿐이다

李D D 옮김

꿈을향해서 2009.04.09 01:17

대통령님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엔돌핀가득 2009.04.09 01:22

눈물이 나네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대통령님 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요.무고함이...

항아리~~ 2009.04.09 01:23

항상 정의를 갈구하고 민주를 목말라하는 많은 인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대추도사 2009.04.09 01:24

글에서 시골 땅 냄새가 나서 좋습니다..

mitury111 2009.04.09 01:24

노짱님께...

잘못은 잘못이다라 하셨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요?

항상 하셨던 말씀의 요지는 대통령도 국민의 일원,

즉 평범한 국민중의 한사람 이라는 것 아니었던가요?

대통령의 특권의 벽을 허물기 위해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걸어 오신것 아니었던가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사과할 일인가요?

그럼 자신의 빚조차 모른척 하고 어께 힘주고 앉아있어야 되었던가요?

아님 이런 저런 빛준 자들에게 이런 저런 특혜를 나누어주고

무마했어야 옳은건가요?

참 답답합니다...

대추도사 2009.04.09 01:26

그리고 이글을 보니 노통이 계속 국민적 사랑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동지 2009.04.09 01:26

1시간동안 글 썼는데...다운되어서 날아갔네요...각설.

구한말 의병장 최익현,상해 임정수반 김구,봉오동전투 흥범도...이 위대한 분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이름 앞의  
숫자가 전부이겠죠..

어의없지만 사실입니다..화가 나지만..아이러니하지만 일본친구들은 위의 사람들을 자기네 일본사람들보다 더 존경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대통령님께서 그저께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주위에서 말이 많습디다만...이를 사주한 측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시기상 허를  
찌른 치명타를 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노통답다 중론입니다



다시 각설...  
제 세살짜리 자식놈이 후에 대통령님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 제가 했던 고민과 희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민족 말아먹고 있는 고대 졸업생 올립니다...

행복한날개 2009.04.09 01:28

예! 노무현님의 깊은 마음 잘 헤아려 자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무현님을 믿고 있고 또한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하늘은 진실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답니다.

하늘다섯 2009.04.09 01:30

힘내세요..바보 노무현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님 난 노사모도 아니지만 그냥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마후의 햇살은 아주 아름답듯이 나중에 이 시련이 지나간후에 제가 아들 딸 데리고 봉화마을 갈 때 꼭 우리 아들 딸 데리고 사진 한장 찍어주시시오

나무심는아이 2009.04.09 01:37

고3시절 노사모에 가입했고, 수능이 끝나고 당선됐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제 짧은 인생에 가장 값진 일이라 자부합니다. 지방분권, 시민운동, 토론문화, 아직 가야할길이 아주 멀고 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노무현의 가치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힘내세요! 아직 이 땅의 어떤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신화이고 전설이고 이경표입니다.

0708과도 2009.04.09 01:39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푸른하늘엔 2009.04.09 01:41

노무현 대통령님

이글을 보니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센스모아 2009.04.09 01:50

노짱님 쓰신 글중에 어제 글의 "평가" 와 오늘 글의 "제가 알고 있는 진실" 이라는 대목에 희망을 겁니다

무식통통 2009.04.09 01:54

문제는 멀리서 실망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사실적이고 실전적인 정의에입각한 것인가인가 하는것입니다  
삼당합당을인정하고 그들에게 대권을주던 국민의마음입니다 군사독재를 면죄하고 노태우정권을만들어주던 국민의 마음입니다  
계개발과 경제발전이란 미명하에 술한 정치적미숙아들을 양성해내는 국민의 마음입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항구적인 원칙에의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시류에 타협하는 아주 소극적인 민주주의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멀리서 실망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꼭 양심에 입각한 시대의 정의는아닐수있는것입니다

난남자 2009.04.09 01:56

대통령님....

사랑 하는 방법이 달라도.....  
사랑 하는 이를 위해 사랑 하는 이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챙겨 드시고 많이 움직이십시오..  
신나는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DJ DOC ( 디제이 덕)의 Wanna 라는 신나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 외울 필요는 없구요...신난 음악의 리듬만 들어도 저는 기분이 조금 풀리거든요..

자라는 나무 2009.04.09 01:58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계신 당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이상도 그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처럼 내외분 마음 상하셨을까 더 두렵습니다.

문향지니 2009.04.09 01:59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존경하는 분은 아직 한 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공이산님이 바로 그 분입니다. 무조건적인 존경이 아닌 따질 것 다 따지고 꼼꼼히 살펴봐도 결론은 같습니다.

pt 사랑 2009.04.09 02:00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까요ㅋ

은스남편 2009.04.09 02:02

노짱형님 누가 뭐라고 하여도 노짱형님은 존경받는 나랏님이 이시구요 세월이 흘러도 존경받으실 나랏님입니다 제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노짱형님 사랑합니다

알동지 2009.04.09 02:04

여러 님들의 의견이 단지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민 출신이어서 우리 맘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세상에는 많구요..우리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를 [상식]이라고 인정할길 거부합니다..  
또 한번 각설하고..우리가 보는 이 글들을 왜놈들, 양놈들이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한반도민들의 생각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알바 포함해서..  
하지만 왜놈, 양놈 제외...

쟁돌팽이 2009.04.09 02:14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힘내주세요

타렌와이프 2009.04.09 02:15

리플 다읽고 무슨말을 하려하니 멋진말들 너무 많고...  
백주한잔한김에 이기모야~ 하고 보니 전날 밤 지금으로부터  
5시간전에 글을 남기시거군요! 아 나만 좋아할건데 리플읽느라 눈물나네  
다 리플 남기지 말아주세요 읽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희망을 봤습니다. 교육감선거 정치적논리로 투표한거  
반성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밀하는사람인가 찾아보고 해도 잘 못찾겠네요 TTT 다들 중요하다구만 하네요...  
뉴스에나오는 인사권? 예혀... 신문광고라도 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일에 궁금하고 호기심 많은 저인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이유도 간단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말곤 존경할사람이 없는데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 유시민씨 그사람 모하지 걸릴때 봤는데 안걸리네 ㅎㅎ;  
제 지인 한분이 그러더군요 유시민 그양반 정말 일 잘했다구...  
(절비판)  
너무 멋진신 우정 부럽습니다...

좌과 2009.04.09 02:18

언제인가  
유시민이 말했지요.

노무현은 단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편단심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도 일편단심 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ㅎㅎㅎㅎ 2009.04.09 02:20

노무현 대통령님 암튼 뭘 해도 멋져 보이네요 .  
항상 전 노무현 전대통령님 편 할게요

노무현사랑 2009.04.09 02:23

대통령님 힘내세요.  
전 끝까지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이번일 검찰에서 먼지까지 다 조사했는데도 별일 없는 것으로 결론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climb06 2009.04.09 02:27

그래도 이 봄향은 그 진수의 맛을 향해 나날이 질어만 가네요,  
당신께서도 그 깊은 주름 잠시 피고 이 봄별, 마을 사람과 누릴 자격 있으신분 아니시겠습니까?  
왕왕 나오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당신을 바라보는 봄빛보다 짙게 따사로운 이들의 눈빛을...

차칸늑대 2009.04.09 02:33

대통령님...

정녕 끝까지 마보 노무현이고 싶으신가요 ???

그러시다면 저또한 마보로서 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덜들 2009.04.09 02:40

울나라에 가난한 대통령.  
정말 청렴하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향 2009.04.09 02:52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원히 지지할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훌륭한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hadonguk 2009.04.09 02:56

차분히 기다리겠습니다.  
어찌되든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두분 모두^^

내아들뎨 다른세상 2009.04.09 02:59

따뜻한 봄이왔는데  
겨울같은 세상에 살고있는 느낌이네요..  
무서운 세상이 정말되려나 보네요..  
힘내세요..

킬게임 2009.04.09 03:01

힘내세요...대통령님.  
우리는 당신의 정의를 마음 속 깊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사님도 힘내시구요..

행복합니다 2009.04.09 03:04

대통령님, 여사님, 두 분의 미소가 그립습니다.  
언제나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힘 내십시오. ^^

노래하세 2009.04.09 03:13

조중동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의 진심을 알바나 좌파 무리로 매도하지는 않겠지?  
이 시대의 꼭 필요한 진짜 대통령님 무엇이 겠나서 누구를 보호 하려고 저사세 인지 그 깊은 뜻은 알수 없으나 언제나 항상 믿습니  
다. 당신을요.  
이 시대가 진정 원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벌은 받아야죠. 모든 정치인들 다요. 공평하죠? 대통령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부동산 관  
련 법률 다음 정권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 근데 현 취박이정권은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밀어붙이는 근성으로 국  
민을 섬긴다던 그가 국민들은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답답한 맘 뿐입니다. 힘내십시오 끝까지

katie 2009.04.09 03:15

잘못은 잘못이다.. 하지만 전 님을 믿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세요..

야봉 2009.04.09 03:19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수있지만, 누구나 자신의 죄를 사과하기는 힘든거라고.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친다면, 노무현님께서 감옥을 간다해도,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 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해도, 진심은 언젠가는 알게 되니까요.

죄는 미워 해도 사람은 미워하지말라는 것처럼.

저는 그래도 노무현님이 좋습니다.

힘내세요.

Good Luck ~\*

박권재 2009.04.09 03:26

지금의 힘든시기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파스한 봄날이 찾아 올것입니다.  
순수함을 잃은 칼날에 상처를 입더라도 그상처는 오래가지 못할것입니다.  
언젠간 그상처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포돌이엄마 2009.04.09 03:46

존경합니다.사랑합니다.그리고 믿습니다 대통령님.

마치들꽃처럼 2009.04.09 03:46

깊이... 머리숙여... 존경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는것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비두리 2009.04.09 03:49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해서 더더욱 좋습니다  
노짱님 여사님  
힘내십시오  
아싸~노무현!  
아싸~ 권양숙!

슈퍼맨3 2009.04.09 04:11

속상해서 죽겠습니다. 하루종일 머리가 멍합니다. 저도 외그런지 모릅니다.  
아무튼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외나면, 위대한 우리들의 대통령이 분명하게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받았을터인데 이렇게 까지 노전대통령을 발가벗겨 만인의 웃음  
거리로 만드는거에 대하여 참을수 없는 화가 납니다. 물론 잘못했으니 벌받아야 한다면 할말없지만, 그동안 노동께서 명박씨에게  
나이가 많다고 얼마나 깎뚝하게 대우했는데 이렇게 까지 한다는 것 봐서는 역시 생김대로(눈이 쪽졌어진게 완전 일본인의 특징) 하  
는구나, 역시 위에는 아부하고(방회장에게 머리숙여 인사) 아래에게는 아량이 없다(현대건설때 직원들 이야기)라고 소문이 난것  
이 역시 헛소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니 뭐 이런 명박스러운게 다있나라고 생각하며 가소로움이 드네요. 암튼 이겨내시고 웃으  
면서 뿔수 있기를 희망하며 야심한 밤에 몇자 울적해서 적습니다.

무담시 2009.04.09 04:17

왜 이리 눈물나게 하는겁니까 ....

9321kms 2009.04.09 04:43

노무현 전대통령각하~  
님!  
만이라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누구를 믿어야합니까?  
나라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암울할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수있겠지요/  
이회창님의 자제들 병역문제와 같은논리로 보아야하는지/  
잠!

암담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가는가요~~~~

사자심장 2009.04.09 04:47

3년 반 남았습니다.  
노대통령님을 언제나 지지합니다.

mhhan 2009.04.09 04:57

비 오는 날 보다 햇빛 나는 날들이 더 많다. 일희일비할 일 아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어찌 완벽한 신이 될 수 있다더냐. 역사의 반전을 보게 될 것이다.

대구이성 2009.04.09 05:18

내가 사람을 믿었기에 박연차를 나처럼 믿은 노무현 닷일 것입니다. 권력을 빌어 재벌의 돈을 내돈 처럼 사용하고 국가 재정을 내돈 처럼 사용한 사람들이 1년을 까뒤집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너도 검은 놈이다라고 소리치는 이명박이나, 그러면 그렇지라며 키득대는 추종자들이나, 설마 그럴줄이라며 아타까워하는 국민을 보며 답답하다 못해 답답합니다.

우라미 2009.04.09 05:45

구시대의 막내이자 새시대의 맏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대통령께서... 암튼 믿습니다..그리고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다만 묵묵히 지켜보 있을뿐입니다...

0708과도 2009.04.09 05:47

힘내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노무현님

진스맘 2009.04.09 05:55

다시금 숙연해집니다.... 힘내세요!!!

온유네집 2009.04.09 05:57

언제나 건강하셔서 우리나라에 반석이 되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멋쟁이 노 무 현 대통령님 화이팅~~~

민현기빠 2009.04.09 06:23

바보 노무현을 사랑합니다.

\*사공\* 2009.04.09 06:26

마음보태려 오늘가입한 초로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심을 기원합니다 뽀박에 심기 흐트리지마시고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하얀민들레2 2009.04.09 06:30

고난의 연속을 살아오신 대통령님.  
아직도 진행형이군요  
저는 세칭 노빠는 아니지만  
이땅에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정신과 육체의 건강 잃지 마시길...

장군의아들 2009.04.09 06:45

언제나 당당하신 모습 바랍니다.

로즈마리 2009.04.09 06:49

노짱님 말씀대로 강물은 무슨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바다로 흘러갑니다..  
건강 꼭 챙기셔야합니다. 님은 영원한 저의 대통령이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민주주의를외치다 2009.04.09 06:53

힘내십시오.....건강조심하시구요 지금은 비록 제 마음도 무겁지만 반드시 좋은날이 올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뽀간사과꼬마 2009.04.09 06:54

마음으로 위로를 보냅니다~  
건강 잃지않으시기 ..

reason 2009.04.09 06:54

며칠 내내 노무현 대통령님 때문에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분노나 실망 때문이 아니라 요즘 사태를 지켜보고 계시는 님의 심중이 울음이 느낌으로 와 닿기 때문입니다. 자주 만나는 지인도 아니고 더욱이 가족도 아닌 분에게 이토록 마음이 쓰이고 깊어 아픈 것은 도대체 어떤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모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고생이 제일 무서운 연세이시니 그게 제일 염려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말 그럴 수밖에 없으셨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세간의 이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치를 넘어서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어제 님의 사과 말씀을 접하면서 역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쓰시는 님의 심중이 그대로 전해져서 내내 마음이 아픕니다. 힘 내십시오.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강해 주십시오.

노짱 만세 2009.04.09 06:55

우리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들이 질투하나봅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우리가 멀어질까?? ㅎㅎㅎ 더욱 당신곁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정의로운세상 2009.04.09 06:56

잘못을 잘못이라 시인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앞으로도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는 대통령으로 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708과도 2009.04.09 06:58

힘내세요,,,,,,,,,,,,,,,,,,,,,노무현님

태풍이 2009.04.09 06:59

힘내세여...가슴아프네여 정말..

08110531 2009.04.09 07:04

^^, 역시 사람사는 세상입니다.

山形 2009.04.09 07:05

힘내십시오..  
들 함께 합니다..

날아라병아리 2009.04.09 07:08

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참고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들의 작태가 너무 치졸해서... 억울하고 분합니다.

40대아지매 2009.04.09 07:09

노통님은 역시 최고의 대통령이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뽕소 2009.04.09 07:10

잘못은 잘못이다.  
이를 부정하게 되면 치졸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잘못 가운데서도 개과천선하여  
민주시민주로서의 실천적 삶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묵묵히 보여 줌으로써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남경희 2009.04.09 07:13

"한 점 잘못도 없는 성인군자인줄 알고 존경했던 것이 아니므로,  
내가 모르던 흠이 더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특별히 서운한 마음을 가질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유시민님의 말처럼 제 마음도 같습니다!

하얀곰 2009.04.09 07:18

여전히 사랑합니다!!  
두 분 건강 꾀욱 지키십시오.

견디셔 2009.04.09 07:19

헐~~~  
내마음을 꿰뚫고 계시네요.  
네~~~냉정해지겠습니다.  
맘이 좀 편해지는군요.  
잘못은 잘못이죠.  
A bitter pill to swallow!입니다.

효자동 2009.04.09 07:21

노짱님 !!힘내십시오!  
노짱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마음 변함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만 하십시오!

참자 2009.04.09 07:23

힘내십시오 ----- 사랑합니다

와등 2009.04.09 07:24

오늘아침 kbs는평을 듣고 이렇게 방문합니다  
노짱님 힘 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아니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똑같이 앓음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해도 문제를 삼는 우리 사회가 개탄스럽습니다  
이제까지 지켜만 봐왔던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순순히 인정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이 아닌것은 아닌것으로 과감히  
대처해야 합니다

작은손 2009.04.09 07:26

너무나 당연해보이는 '상식과 원칙' '반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 아직 멀었죠. 남께서 이루려 노력하신것 압니다.  
인격의 완전성을 바라다면 성직자에게 가라. 나는 나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  
나의 대표로 뽑혔다. 깨끗해서 나를 지지한게 아니라, 님이라면 지금 나의 아픔을 아실거라 생각해 지지한 것입니다. 이마음은 지  
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경기도 교육감선거가 있었습니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니다. 전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니다. 앞으로 4년  
조금 덜 남았죠. 이 아픈시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니다. 건강하십시오.

정그루 2009.04.09 07:30

힘내시고....남을 존경합니다

자작나무 2009.04.09 07:35

유시민님의 "한 점 잘못도 없는 성인군자인줄 알고 존경했던 것이 아니므로, 내가 모르던 흠이 더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특  
별히 서운한 마음을 가질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라는 생각과 같습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건강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소암 2009.04.09 07:41

네...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응원 드리면서요.  
결코 실망하거나 지지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참으로 2009.04.09 07:44

일단은 기다리겠 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Ryoo 2009.04.09 07:44

당신의 정치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제 희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터진후라이 2009.04.09 07:45

아들을..등교 시키고 컴퓨터 on을 하니  
포털메인에 이런저런..봉하에게 치명적일 타이틀들이  
난무 합니다.  
어찌어찌해서..생전 상종하지 않던..조선일보 기사들도 보게되고.  
웬간한 신념 없는 지지자들은  
이맘때쯤..노공이산님께 냉소를 보내며  
떠날 채비를 하겠고나..  
이런..언론사를 가진 녀들은..왜 천벌도 안 받는걸까..  
이 시련은..오히려  
어쩌면 노공이산님의 지지자들의 면모를 확인사살 할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될수도 있겠다.  
어느놈이 떠나고.  
어느놈이 남는지..두고 보리..  
빛나는 모습일때..환호를 보내고.  
실사..어떤 흠집들로 얼룩진 오류가 있다 하여.  
냉큼 보따리 싸는..이념들이 누굴지..  
이게 불현듯..궁금해 지는 오기 같은게 생기는  
아침 입니다.

노공이산님..이번 기회에  
단디..야물게..대처 하이소.

사람 잡을라고..보통 작정한 무리들이 아이네요.  
누구라도..혹..하고 저들 언론의 유혹에 안넘어가는 녀이  
반피..가 되게끔 몸부림들을 치고 있습니다.

Free 나눔 2009.04.09 07:48

"와... 대단하다."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네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72년생 2009.04.09 07:52

늘 멀리서만 봤었습니다.  
꼭 한번 손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힘 내십시오.  
절대사랑! 우리가 있는 한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것입니다.  
그들은 우릴 분명 두려워합니다.

T없이 맑게 2009.04.09 07:55

소시민으로서 보기에 참 한심하십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라온 리플들을 보고 노전대통령이 오관할까봐 그제  
걱정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되고 안되고 떠나서 늘 이랬습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깔끔하게 잘못했다하고 끝내세요. 지지리 공상 글  
올리고 글올리고...

나는 노대통령이 역대 정권에 비해서 더 부패하거나 더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전이 더 해먹었으면 해  
먹었지 덜해먹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만고만 했던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지리 공상 떠는거는 정말 역대 최악입니다. 이제 좀 그만할때도 안되었나요? 가만히 계셔도 억울하다면 진실  
은 밝혀집니다. 그래도 억울하면 그때가서 얘기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래서 지친겁니다.

acacia0429 2009.04.09 08:01

좋아하고 사랑해서 우는것은 이성간의 사랑에만 있는줄만 알았는데 노짱님을 보며 의연하신 모습에 같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저는  
당신을 제삶의 정도의 기준점을 살아가는 저는 행복합니다

비리없는세상 2009.04.09 08:08

이들께 가슴이 먹먹하지만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데 되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조심하시고 힘내십  
시오...

대빵 2009.04.09 08:10

위에 어떤 분(티없이 맑게)이 댓글을 달았네요  
맞는 애깁니다..  
저는 솔직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기에 충격이 굉장히 컵니다  
어떠한 경우라하더라도 돈을 받지를 않았어야했습니다  
왜 그런 더러운 돈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필요없습니다

이미 물은 업질러졌구요,,

가슴이 아픕니다

부패보다는 무능이 차라리 낫다하여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대통령에게 2003년(대선)에 표를 준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셨다면 검은 돈은 받지를 말았어야 했습니다

넘넘 충격이 지금 큼니다,,

학봉 2009.04.09 08:16

모든 언론매체가 한소리로 못매를 가함어 정말 속 상하고 실망스럽고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이런글을 보며 역시 노짱님은 역대 최고의 우리 대통령입니다. 누가봐도 내마음 속에 항상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당당하신 그모습을 뵈 수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작나무 2009.04.09 08:17

T없따개님, 노대통령은 뭐 계시관 보고 오관하시거나 그럴분은 아니니 걱정불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택이 보기엔 고만고만하고 대다수 국민이 지켰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만, 뭘 근거로 대다수 국민 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읽어보고도 이런 글 쓰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밝혀질텐데 그냥 억울해서 두번째 글 쓰신거 같은데요? 글쓴이 뜻이나 파악하고 댓글달던지 하십시오.

바다바다 2009.04.09 08:23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짱님 말씀대로 국민적 감정과 동떨어지는 모금이나 방문 등 특별한 행사나 맹목적인 글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차분히 과정을 지켜 봅시다. 노짱님 많이 힘드실텐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명량아부지 2009.04.09 08:25

옳쑈~~~~

김삿갓2 2009.04.09 08:25

전세가 역전되고 있습니다.우리의 영웅 이십니다.

2012년 출마 하실수 있나요.당을 창당 하십시오.한 번더 하십시오.

당선2012.대통령 노무현.

강동구 2009.04.09 08:26

힘내십시오. 반드시 이기실 겁니다

폭폭이 2009.04.09 08:29

존경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rheno 2009.04.09 08:29

T없따개님은 정말 T없따개신 분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의 지표와 철학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니콜 2009.04.09 08:33

우리 노짱님..... 언제나 사랑합니다

푸른밤바다 2009.04.09 08:35

역시나 언제나 그러했지만 역시 노 무 현 이라는 이름은 참 따뜻한 사람이네요. 글이 참 따뜻합니다. 식사 꼭꼭 챙겨드시고 건강하십시오.

합덕방죽 2009.04.09 08:36

농사꾼이

농사준비하셔야지요

진정한 농사꾼이 되세요

제 드릴수 있는 것이 없네요

해가 길어유...

떨쳐내고 눈으로 밭으로 다녀유.....

채작가 2009.04.09 08:37

당신을 지지합니다. 진실은 가려질 것입니다.

눈비맞고있는 2009.04.09 08:38

차가운 남극의 빙하위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화도 놀람도...

잠시 들렀다 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비밀정원 2009.04.09 08:38

말씀대로 철착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아프지마세요.

험난한 일 이겨내시려면 굳건하셔야합니다.

사랑합니다!!

카이사르썬 2009.04.09 08:41

힘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실레노스 2009.04.09 08:45

오늘 회원가입하고 처음 글을 올립니다.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정직한 서민 대통령 노무현으로 남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용기가 그런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저도 그저 힘없는 서민이라 힘 내시라는 말밖에는 못 하겠네요. 역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0708과도 2009.04.09 08:45

힘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뭇난나무 2009.04.09 08:45

힘내세여... 저는 님의 편입니다.

마그마 2009.04.09 08:45

북악산아래 과란청기와집 에서만 국민의 마음을 살피라는 법 없습니다  
현실 정치에 개입 하기란 녹녹치 않은것도 사실이지요  
보수언론들의 강짜가 심해서리  
어찌 되었든 국민의  
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국민의 정치가 실현될수 있도록  
역발상으로라도 깨닫고 깨우칠 수 만 있다면  
이또한 국민에게 득(민주교육)(사람 사는세상)이 될것 입니다

shWkd 2009.04.09 08:46

요즈음 뉴스.티브이 안봅니다....

유시민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슨 뜻이 있었을것입니다"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힘내십시오.

변해가네 2009.04.09 08:49

암튼 건강하십시오~TT

흐린세상0 2009.04.09 08:50

힘내세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잘못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질이 나쁜것도, 무거운 것도... 그렇다고 해도 전 여전히 존경하고 믿습니다.^^

우성 2009.04.09 08:51

어찌되었든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금품 수수에 대한 비리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노공님을 지지하는 마음 변함없을 것입니다. 노공님은 그래도 어느 역대 대통령 보다도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부자와 수구들을 제외한) 꿈과 희망을 주었던 국가의 수반이셨습니다.

하늘과땅과나 2009.04.09 08:51

늘 함께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오늘은 2009.04.09 08:54

당신의 진정성을 믿게 된것도 어떤것이든지 솔직함이 느껴져서입니다. 힘내세요...

별꽃바람 2009.04.09 08:58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신광 2009.04.09 08:59

아직 갈길이 멀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국민은 행복했습니다 부디 건강챙기시길 빌어봅니다

행복해 2009.04.09 09:01

기운잃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한번도 뵈지 없지만 마음은 항상 짜~안 ~ 합니다.

風雅 2009.04.09 09:02

언제나 당신편입니다

맨또 2009.04.09 09:03

대통령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Cantstop 2009.04.09 09:03

좀더 지켜 보겠고,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되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당신은... 정말....  
그러시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산도 2009.04.09 09:05

사회 문화란 원한다고해서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요. 앞으로 20년 뒤에는 많은 분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이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전대통령께서도 그때를 위해 애써 쉬운 길을 마다하나 보네요. 우리 여러분! 자신과 후손을 위해서 늘 깨어있습니다.

호봉 2009.04.09 09:06

아무쪼록 건강만 잘 챙기십시오.

오아시스 2009.04.09 09:06

역대 그 누구 보다도 자랑스런 대통령이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잘 헤쳐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꽃보다노짱 2009.04.09 09:07

노짱님!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힘을 조금이나마 실어 드리고 싶어 오늘 가입했습니다  
저도 함께하게 된 것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인간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노짱님의 이정도의 티에 실망할 우리가 아닙니다

제가 노짱님 스타일을 조금 아는데요

힘없는 사람이 옳다고 믿는것에 올인 하실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적다보니 횡설수설이네요 아침에 급하게 적다보니 차분한 글보다는 마음속의 정리가 부족하여 감정으로 글이 써지네요

아무튼 건강챙기세요 노짱께서는 이사회에 주변인으로 남으실 팔자는 아닌것 같네요.

첼덜든아줌마 2009.04.09 09:08

역시!!!!

존. 경. 하. 고. 또. 사. 랑. 함. 니. 다.

서해200해리 2009.04.09 09:09

사랑 합니다 힘내세요 ^^

justinkmin 2009.04.09 09:09

사과 하셨으면, 책임도 함께 지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사과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잘 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 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아내가 받았다 좀 남자로서 비겁하고 부끄럽지 않나요?

정담종길 2009.04.09 09:10

거짓이 없으면 세상 어디에서든 큰소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나라엔 쥐새끼 한마리가 대들보를 다 갹아 먹고 있는데 이를 우짜누...진짜 미치겠습니다...누구없소???

날고싶은 오리 2009.04.09 09:11

앞으로도 쭉~욱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_\_\_\_^\*

꽃보다 노짱 2009.04.09 09:12

아참!  
근데 요즘 노짱께서 뉴스에 얼굴이라도 비춰주니깐  
이상하게 다시 사는 맛이 나네요  
이건 어떤 감정이지 ?

kookha 2009.04.09 09:12

당당하셔야 합니다. 의연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그러하셔야 합니다.  
당하실때는 철저히 당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분... 어렵지만 이럴때 일수록 서로를 더 살피시고 사랑하세요

ks007 2009.04.09 09:12

건강에 유의 하세요

주홍 2009.04.09 09:14

가입하고 얼마만에 로그인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동안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였구나 란 생각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힘내십시오

웨이브박 2009.04.09 09:14

존경하는 대통령님 힘내세요!  
뒤에는 저희 국민이 있습니다

침 마음 2009.04.09 09:15

" 나란히 나란히 가지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거지요 "

아자아자아자!!!  
기운내시고 특히 건강잃지않게 조심하세요!

오리와 비룡 2009.04.09 09:16

더 이상 참지 마세요! 70~80년 공안정치, 탄압정치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 정부를 더 이상 두고 보지 마십시오...  
뻔~한 표적 수사에 동원된 모든 수구세력 연합에 당당하게 맞서서 사자후를 토해 내셨으면 합니다...너무 말을 앞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좀 많이 심한 것 같네요..하긴, 숨어있던 부패세력들과 수구꼴통들이 모두 드러나게 놔두는 것도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pluse요인이 되겠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난관을 멋지게 돌파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화이팅!!!

별님♥ 2009.04.09 09:18

힘내세요 돈이궁하면 측근한테 유용하여 쓰는게 당연지사 취박이한테 빌려쓸수 없잖아요 당신을 사랑하는 맘 영원합니다

오솔이 2009.04.09 09:19

잘못은 잘못이다.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해 작게 하려고 노력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인간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고로 참 좋은 분으로 제마음속에 간직 합니다.  
저도 그리 살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빌고 또 빕니다.

하얀뽕 2009.04.09 09:23

노짱만큼 깨끗한 정치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전 노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이시대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당신이 너무 너무 그립네요  
보고 싶습니다..다시 한번 세계속의 대한민국이 환하게 빛을 내길~  
우리의 영원한 국보 노무현 사랑합니다~

justinkmin 2009.04.09 09:23

책임없는 사과는 무의미 합니다.

안성사랑 2009.04.09 09:23

우리회원님들의 글을 읽다보면 눈물이 절로 나게 만듭니다.  
2MB가 무척이나 부러워 할듯  
하지만 이런거는 아무에게나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알밤들은 여기에 있을곳이 아니예요

용담 2009.04.09 09:23

사과문이 또 다른 풍파를 일으켜서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과란 진정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아름다우며  
여론의 호응 또한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기에 누구나 잘한일도 있고 잘못도 저지르지만  
인간성을 잃지 않는다면 두려울게 없습니다.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름다우며  
작의적인 수단으로서의 사과로 결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신뢰를 잃지 않게 하소서

행복세상만들기 2009.04.09 09:23

힘내십시오..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야말로 국민 스스로 알아 보는 법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건강 하십시오~ 화이팅~~!!!

sumi51 2009.04.09 09:24

친척도 가족도아닌데 이렇게 가슴아프게 함께 느껴질줄이야~~~  
어서 어서 시간이 빨리 흘러 노짱님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하는  
그런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경할수 있는 분을 가진다는것은  
가슴뿌듯하고 살아갈만한 이유가 되지않겠습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내년이면 60줄에 접어들입니다.  
그러나 존경할만한 대상에 목마릅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을 알았다는것이 저는 행운이고 행복입니다.

양코르 2009.04.09 09:25

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시인의노래 2009.04.09 09:26

힘 내세요.

백두한라 2009.04.09 09:27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힘내십시오.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소관서 2009.04.09 09:28

살다보면 누구나 굴곡이 있습니다..  
비겁하고 초라하고 궁색하지않게 의연한 노공이산님의 모습 보여주시길..  
화이팅!!!!

Michuhall 2009.04.09 09:28

대통령님...항상 건강 하세요.... 당신을 지지하는 마음은 늘 한결 같습니다... 그러니...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이시길 바랍니다...형~!!!!!!! \*^^\*

싸나이 용신 2009.04.09 09:29

싸나이 용신이 응원합니다 화이팅! 항상 존경할수 있게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kgb0841 2009.04.09 09:30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너무마음 아파하시거나 상심하지마십시오 귀중하고 멋진보석일수록 흠집이있고 완벽하지가않습니다 대통령님 마음은곧게가지시고 꼭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일이 잘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

늦었지만 2009.04.09 09:30

존경합니다.

별꽃바람1 2009.04.09 09:30

누가 뭐래도 저는 노짱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됩니다.  
우리 모두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최용훈 2009.04.09 09:32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비바람이 거센후, 언젠가는 따뜻한 햇살이 비쳐 주겠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비판받아야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자기백성을 총,칼로죽인 대통령., 외환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은 회회낙하며 지금의 상황을 비웃고 있는데... 정말 화나는 군요..  
어떤 누구도 잘못을 인정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확실한 대통령이냐 외환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한거 못봤

습니다.  
참여정부를 비꼬아서 모든것이 잘못된거 마냥 비웃지 마십시오.  
그래도 어떤 대통령보다 정렴하고 정직하게 국민의 귀를 기울이며 일을 한 분이십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뜻과 소신을 이룰수 없고,  
자기의 뜻과 소신을 이루면 자리를 버려야한다.  
제가본 노짱님은 탄핵의 위기에서도 뜻과 소신대로 일하신 분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번일과 연관해서 참여정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희망한국^^ 2009.04.09 09:32

힘내세요~~ 가장 인간적인 우리대통령님....당신이 우리나라를 한때 이끌었다는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훈사마 2009.04.09 09:35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지는느낌입니다  
어떻게 지내실까 무척걱정했었는데...  
누구나 잘못은 있는법, 진정성이 있느냐 차이겠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당신을 지지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지할 사람으로서 당신의 진정성을 믿을것이며  
그리고 당신은 나의 삶의 이정표이기에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로맨스가이 2009.04.09 09:35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곧은 마음을 접고 사과할 수 밖에 없었던 건  
님과 또 님을 사랑하는 반려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이 느껴집니다.  
님과 또 님을 사랑하는 반려자의 선택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지켜왔던 님의 모든 것을 버릴만큼 소중한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 님께서 사랑하는 분들도  
님을 사랑한다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님을 사랑하는  
아니 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님 곁에서  
님을 그리워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모든 분들의 염원이 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fashionlook 2009.04.09 09:38

당신을 사랑 합니다  
건강하세요

천지 대부 2009.04.09 09:38

마음불편하시리라 걱정되어 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어떠한일이 있더라도 인간 노무현을 믿을것이며  
이땅에 부패는 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잘못이 있으시다면 벌을받으시고  
잘못이 없다면 대통령이 되시기전의 기풍으로 돌아가셔서  
싸워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는 지켜진다고 여겨집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치인들이 사라질때까지  
인간 노무현&노공이산님을 믿습니다.  
건강하셔야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시는분이 몇명이나 되나요?  
건강하셔야 모든일들을 하실수 있습니다.

라이티 2009.04.09 09:41

이번 사건 덕분에 이 홈페이지는 매우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까지 로그인하게 만드셨군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 누가 봐도 잘못된 건지 애매한 게 문제입니다. 노대통령님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잘못된 게 아니라, 한 5년 전에 잘못하셨습니다. 전부 고백후, 일괄 사면과 처벌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일은 그 이후로 어  
디에서도 거론하지 않더군요.

그 때, 자리를 걷고, 그 일을 하지 못하셨으니, 노 대통령님 당신이 바로 책임자입니다. 지금은 너무 늦은 건가요?

얼추그려 2009.04.09 09:42

작년에 한번 먹은 봉하쌀밥으로 지금까지 굳건히 나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끄떡없을 힘이 아직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가을 봉하쌀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남상국 2009.04.09 09:45

노무현님, 부끄럽습니다. 세상이 부끄럽습니다.

2002년 12월 대선 출구조사가 있었던날 , 난, 정육점에 갔습니다.  
평소 안면 있는 주인에게 노무현이 당선되어 너무 기쁘서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한다고, 싱글빙글했었죠!

울산에서 자동차관련 일을 하다 정육점을 이분은 이회창이 떨어진 것에 상당히 분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고객이 물건사러왔는데 뭐라 할수 없었던지 쓴웃음만 지었죠!

정말 그날은 선거를 하고나서 최고로 기뻐던 날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위 기간중 무능한 정치 행태는 말할것 도 없고,

청와대 사적동창회, 골프, 경박스런 언행, 세금먹는 하마 공무원 늘려놓은것,  
폐지저금통 밀어준 서민들 위로 하러 시장통한번 안간것.

방북 김정일 만수무강 아부한것,

서민들과 어린애들 판자집오막살이에서, 대학생들은 취업난 집단자살 하고있는데,

밋밋다는 사람이 큰집을 짓고, 생가 까지 지어 뭘 해보겠다는 사고 방식!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이리저리뛰다가 님이 내뱉은 독설 한마디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한강으로 간

남상국회장이 거룩해보이는 건 왜그럴까요?

유신정권아래서 유신헌법외위 유신폰사된 태동부터 구태와 적당히 타협가능한 기득권 추구자라는 점은 알고있었지만 이제 조용히 모든걸 내려놓으시고

입으로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흠피에도 변명올리지말고 재판에서 판결나도록합시다!!

아직도 정치인 노무현은 싫어하지만, 인간 노무현은 연민합니다.

-건승-

무당벌레 2009.04.09 09:45

노짱님! 존경합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만..

노공님의 잘못을 심판하는 이들의 도덕성이 워낙 땅바닥이시라..

잘 건드내세요..

수많은 글들이 노짱을 응원합니다.

아줌마 2009.04.09 09:46

모금의 필요성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앞서 갔던 제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신중함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스 2009.04.09 09:47

지나가는 소낙비라 생각하시고 더큰일을 위해서 잠시 업드려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식사나 제때 잘하세요.

참다소니 2009.04.09 09:48

진실은 항상 거짓에 가려져 그 빛을 항상늦게 보지요..\*^^\*  
그렇다고해서 거짓이 진실의 빛을 다가릴순 없지요..  
세상 모든사람이 뭐라해도 전 노무현대통령을 믿습니다.  
세상을 속일순 있어도 자신을 속일수 없는걸 잘 아시는 분이기에..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아자!! 아자!! 아자!!

정의승리 2009.04.09 09:48

누가 말했듯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것과 같다” 고 했습니다. 즉, 정치를 하다보면 조직 관리도 해야 하고...많은 인맥을 끌어들이야하고...여기저기 뚝값도 주고... 표도 많이 굶어모아야 되니...부정한 돈을 알면서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듯 싶습니다.

“이 세상에 정치를 하는 놈치고 부정한돈 단돈 1,000원 짜리 한 장이라도 받지 안은놈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부정한 돈을 먹고 도 계수가 좋아서 서로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면야 이 돈으로 정치 잘해서 영웅소리도 들겠지만...어쩌다 꼬리가 잡히면 터럭계 계수 없는 것이고...뭘 정치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푼도 받지 않았다” “정치적 모함이다” “나는 그사람을 모른다” “기억이 없다” 이것이 돈 먹은 정치인의 18번 메뉴 아니겠습니까... 검찰청 포터라인에 설 때만 해도 자신만만 하던 사람들이 증거를 들이대고...대질신문을 하면 그때서야 꼬리를 내리고...

일이 터지면 상대방은 이를 호기로 삼아 무차별 공격을 해낼 것이 뻔하고.. 한쪽에서는 “야당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조선시대나 나을법한 쾌쾌묵은 얘기로 개거품을 물것입니다. 어제 까지만 해도 상대방을 차떼기 당이니 뭐니 하면서 실컷 우려먹었는데 이제 거꾸로 공격 대상이 되었으니 세상 참 오래살고 불일입니다.

이래서 정치는 SHOW SHOW WHOW입니다.....

정치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힘 가진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그래서 집권을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야당입장에서는 뭔가 구린일이 터지면...“야당탄압”이네 “정치보복”이네...변명아닌 변명으로 입에 개거품을 물었으니...막강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불일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을때 이돈 저돈 가릴 것 없이 엄청난 돈을 먹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권력에서 손을 놓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이 아무리 부정한 돈을 먹더라도 어짜피 지지자들에게는 문제 전혀 문제될게 없지요...“님을 믿습니다” “힘내세요” “그깟 것 정치를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는거지” “파리퐁 만큼 조금 먹은걸가지고”...등 등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호재로.. 공격용 무기로 삼는 상대방 정치세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이(상대방)하면 불륜 내가(우리편)하면 로맨스?...”가제는 계편? 문제가 터지면 다들 이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게 되어있습니

다....

이렇게 말입니다.....

누구는 마누라가 받았는데...  
누구는 직접 받았잖아...  
누구는 조금 먹었는데...  
누구는 배터지게 먹었잖아...  
누구는 차떼기 해서 수백명이 나눠 먹었는데...  
누구는 50억을 혼자서 꿀꺽 했잖아...  
누구는 정당한 돈 먹었는데...  
누구는 부정한 돈 먹었잖아...

제발 제발 제발.....  
어린애 같은 구질 구질하고 칠딱성이 없는말 하지 맙시다...

부정한 돈 얼마든지 많이 먹고도 영웅 되는 사람이 있고...천인공로할 놈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것입니  
다....한마디로 더럽게 재수 없는 것이지요....

노무현님...."님 더럽게 재수 없습니다" 그러...  
참고로.....  
나는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없습니다...

님들은 비위에 맞지 않는 글이 올라오면 무조건 논리에 맞지 않는 개소리라고 하시는데 많이 많이 읽으시고 똥통으로 보내세요...

똥통으로 보내는 님들의 양심도 함께 고이고이 싸서 함께 보내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참조으신 2009.04.09 09:50

글을 읽고 한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시고 또 저희들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너무나 절절이 다가옵니다. 힘내세요. 잘못  
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벌을 더도말고 덜도말고 그만큼만 받으시고 마음은 더 다치지나 않았으면 합니다.

gortkddj 2009.04.09 09:51

어쨌든 우리는왜 전직대통령에대해 존경스런 마음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하게 되는지요,,앞으로는 제발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  
겠네요..그러기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하고 신뢰가있어야 되겠지요..대한민국국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촉구합니다.

安貧樂道 2009.04.09 09:51

이번에도 그들과는 다르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늘...한결같은 마음으로 ...

一音 2009.04.09 09:53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납니다. 건강하십시오.

구결초 2009.04.09 09:53

아직 제가 덜 자랐는지 맘이 많이 복잡스럽습니다.  
편들고도 싶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별별 생각이 다 들지만,  
오직 한가지 그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믿습니다. 가족이고 동지고 바람 불면 막아주고 함께 가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힘내시고 건강하셔야합니다.

리캠 2009.04.09 09:55

싸움은 저 쪽에서 걸어 온 거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돈 문제지만, 돈 이상의 것이 걸린 문제입니다.  
힘 내십시오.

그레이트 2009.04.09 09:55

역시 우리나라의 큰어른이십니다.  
대통령님이 계시기에 봄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당희(당원만이희망이 2009.04.09 09:56

이들간 슬마셨습니다 노짱님^^  
이제 저도 기운낼테니 노짱님도 힘내십시오.

2월에 봉하에 가서 영산홍 심고 왔었답니다.  
영산홍 잘 피었는지 확인도 하고 당연히 노짱님도 뵈려고 봉하방문을 5월로 계획했는데 미루도록하겠습니다.

동대산신 2009.04.09 09:59

노짱님 힘내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광개토왕 2009.04.09 09:59

노짱님!!!  
늘..건강 하세요...

그런 세상 2009.04.09 10:00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노무현대통령은 "정의롭고, 솔직하고, 깨끗하다"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몇몇하지 못한 내용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아직도 노무현대통령은 다른  
누구보다 솔직하고 당당합니다 절대로 정치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람이죠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싸이클론 2009.04.09 10:00

노짱님 깜방갈 준비는 되셨는지요 뭐 필요한물건 댓글로 올리주세요.

우리 노짱 드디어 깜방간다~~~~!

rudfks 2009.04.09 10:00

힘내세요

아이즈러더퍼드 2009.04.09 10:01

대한민국 전 대통령 노무현 각하님~. 진심으로 눈물 나는 말씀들을 올리셔서 감동먹었습니다. 힘내시고. 언제나 그런 진심어린 전 대통령 노무현 각하님의 글을 보고 반성하고 각성할것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대학생입니다.비록 전 대통령 이었다고는 하나, 제게는 아직도 대통령 같은 존재 이십니다.. 힘내세요~!

소나무소나무 2009.04.09 10:02

정의가 사라지고 희망이 없습니다.만천명월주인용 의롭게 살다가신 정조대왕이 생각납니다.지금 이 시련은 역사는 올바르게 평가 할 것입니다.기득권자에 더 빼돌고 없는자에게 허리띠줄라메라고 하는 현정권처럼 사셨다면 이런고통은 따르지않았게지요.힘내세요 오늘 이시련은 내일은 빛이되어 우리들에게 태양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나의태양이신 노무현대통령 존경합니다.언제나 지지합니다.

수원청년 2009.04.09 10:03

꽃이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봉하마을에도 봄기운이 만연하겠지요.  
건강하세요~!

콩돌이 2009.04.09 10:03

노짱! 힘내세요.당신결에는 이렇게 당신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여사님이 격정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노짱님 말씀대로 잘못된은 잘못된걸 인정하시고 검찰조사에 당당히 응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권여사님의 마음고생이 지금 노짱님의 불편한 마음보다 더 할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모쪼록 권여사님이 마음 굳건히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봉팔리 2009.04.09 10:05

힘내시고 건강하시길바랍니다

지강 2009.04.09 10:06

잘못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게 좋겠지만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신하는나가 중요하겠지요. 이번에도 멋지고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아하 2009.04.09 10:06

참여정부 5년간 많은 국민은 대통령님의 변함없는 철학과 사회 각부분에 끼치신 크나큰 힘을 보며 희망과 사회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春來不似春 시련의 시기가 있어야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큰 사랑을 안다는 성현의 말씀처럼,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잘 극복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유니허니맘 2009.04.09 10:07

전 이번에 가입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건강하시구 응원합니다^^

임선달 2009.04.09 10:09

내게 사립사는 세상을 일깨워 주셨고  
가슴의 열정을 다시 피어나게 해주신분입니다.  
당신을 믿고 또 사랑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힘내십시오 아직 풍파가 남았습니다  
이 길 다헤치고 나와 우리앞에  
다시한번 우뚝 서십시오. 사랑합니다..!!

독일병정 2009.04.09 10:09

주변에서 오해살만한 일이 있었더라도  
노대통령님의 청렴하고, 정의롭고,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쳤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그간의 공적을 우린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겸손한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많은 국민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하셔야 합니다. 오래도록 우리 곁에서 ...

Goodlife 2009.04.09 10:10

노짱님, 잘못은 잘못입니다. 허나 기다려보겠습니다. 검찰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하였지만, 이미 표적수사인 것이 분명한 가운데 고해성사를 하신 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은 잘못이나, 믿기지 않으며 과장되지 않은 수사이길 바랄 뿐입니다.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과 악랄함이 자신들의 부도덕을 감추기 위해 별것을 다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힘내시길. 당신의 당당함과 강렬한 눈빛, 서글서글한 인상을 참으로 좋아하는 국민 1인

너티그늘 2009.04.09 10:11

아무도 노짱님을 흠결 하나 없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류를 바로 잡고 끈임 없이 정의의 잣대에 맞춰보며 그 길을 걸으려 노력하신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대통령이려 생각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정치 풍토에서 성숙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자신의 안위보다 사회정의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건 노짱님이 걸어오신 자취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짱님의 사과가 얼마나 아리고 아픈 진심 어린 것인지 알기에 지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할 전직 대통령이고 우리가 바라봐야할 목적지를 제시하는 훌륭한 정치인으로 존경합니다.

임진강용바위 2009.04.09 10:11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스프링거 2009.04.09 10:13

힘내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리라 굳건히 믿습니다.  
건강하세요.

Goodlife 2009.04.09 10:13

제 생각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조중동을 어설피게 깨다 만 게 화근인 듯합니다. 언론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끝을 보시든지, 회유하든지 하셨어야 하는데 그게 미적지근 했습니다. 하기가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방식 가족의 도덕성이야 따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권은 그야말로 오만함과 비리의 극치... 4년이 얼른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초코뷰의불빛 2009.04.09 10:14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존경합니다^^ 2009.04.09 10:17

^^대통령님 힘내 저원 늘 이자리에 그대로 있을겁니다~

이른아침 2009.04.09 10:17

당신 때문에 또 눈물이 나네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얼음공주 2009.04.09 10:18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강명호 2009.04.09 10:18

참 개탄스럽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노무현도 어쩔수 없는것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결국 이렇구나..라는 고정관념역시 다시금 확고 해 집니다. 다만 사과문을 올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역시 인간 노무현은 틀리다라는 생각 역시 확고해 졌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들뜨겠습니다.

들향 2009.04.09 10:22

힘내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무소위 2009.04.09 10:23

힘내세요...사랑합니다...

챗장 2009.04.09 10:25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썩니다. 착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습니다.  
노짱님 내외분 사랑합니다 (^.^)

현서 2009.04.09 10:26

괜찮습니다.  
100억이나 1000억이라도...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치토스 2009.04.09 10:27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만큼 존경해왔던 아니 지금도 존경하는 정치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중 제가 존경하는 단 한분이 당신입니다 건강챙기시기바랍니다 제가 헤드릴수 있는말이 이말밖에 없어서 안타깝지만요 그래도 당신을 그만큼 좋아하기에...

홍구아빠 2009.04.09 10:27

대통령님 힘내세요!  
사랑 합니다.  
존경 합니다.

당신 2009.04.09 10:27

엇그제 아내가 직장에서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당신 마음이 많이 앓중겠네요 당신이 존경하는 노무현 전대통령도 다른 전직 대통령과 같네요"라고 지금 아직 확실한 것은 없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님이 쓰신 책 읽고 마음으로 존경해 왔고 또 내게 주어진 투표권도 행사했는데....

마르티니 2009.04.09 10:27

힘내세요. 건강하시구요. 마음이 안좋습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 편입니다.

퇴이쵸 2009.04.09 10:28

안녕하세요 노전대통령님 정말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나라발전에도 도움주시고 그런데 이런돈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아유를 보내는데 끝하지마시고 힘내세요!!!

전라조선인 2009.04.09 10:30

왜.....그리 가지발길을 가시려하는지요..  
가지발길이 그냥 가지발길이 아닌 정말 험난한 가지발길인데 왜 굳이 그 길을 가시려하는지.... 하지만 이런 당신의 모습이 세계 한 없는 존경과 사랑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게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먼 훗날 언제 기회가 되면 삼겹살에 소주 한잔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qhrtfdl 2009.04.09 10:30

노짱님! 영원히 당신팬입니다. 회원님들의 글을 읽으니 마음이 짠하네요. 부디 힘내세요.

작은친구 2009.04.09 10:30

경복사는 50대 초반입니다.  
역사나 문화를 이야기 할때면 우리나라가 역사는 문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존경을 받아야 하는사람은 그러하지 못하고 무지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자기편으로 만들어 기득권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만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암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 불안 합니다.  
후세를 위해서라도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다시 옳음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우린 노무현의 모든것을 믿습니다.그 믿음은 이나라의 중심입니다

우포늪 2009.04.09 10:31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의견이 올라와도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보자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맞고요. 흥분하지말고 기다려 봅시다!!  
진실은 밝혀 지게 마련이니까요!!!!

터럭장군 2009.04.09 10:32

대통령님.....  
어젯밤은 현정권에 대해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힘내시고 건강하세요.그들은 분명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그렇게 될거라 믿습니다.

가깝고도먼그곳 2009.04.09 10:34

묵묵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살암 2009.04.09 10:34

대통령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응원 하겠습니다.

강민 2009.04.09 10:36

서민에 고개숙인 대통령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큰소리 치셨던 분 역사는 후대에서 반드시 평가 할꺼라고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노짱 화이팅!!!

휘나리 2009.04.09 10:37

노짱님^^  
힘 내세요.

블렌과연필 2009.04.09 10:38

힘내십시오.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보아스 2009.04.09 10:39

이러한 모든일들이 국민이 우매하기 땀에 일어난 일들이라 생각하고요  
이러한 식으로 국민을 속여 왔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잘못은 잘못이라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않습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대통령님은 언제나 멋있었습니다

십년후 2009.04.09 10:40

참 아이러니 합니다.  
잘못은 잘못 맞거든요.  
그렇지만 노무현대통령님을 아직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이러니 하네요.

삼브 2009.04.09 10:42

네 깊은 뜻 헤아려 노짱님을 믿겠습니다...ㅠ,ㄷ 근데 왜 가슴이 계속 아플까요..ㅠ,ㄷ

자단향 2009.04.09 10:45

님의 뜻을 깊이 새깁니다.....  
님이 계셔서 행복 합니다....

자연의 2009.04.09 10:45

여전히 존경하고.. 믿고..사랑합니다.

두분 식사 잘 챙겨드시고 기운 잃지 마시어요..

천자봉오른해병 2009.04.09 10:49

진실은 언젠가 알려줍니다.  
두분 건강챙기시고 꼭 식사 많이하셔서 힘내세요^^ 밥이보약입니다

전주안 2009.04.09 10:50

우리에 희망 바보 노무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건강 잘챙기시고 승리하십시오..

우아미 2009.04.09 10:50

누가 뭐래도...  
당신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서은아빠 2009.04.09 10:51

힘내세요...죄송합니다...

마린이 2009.04.09 10:55

힘내시길 바래요,

돌아온장사장 2009.04.09 10:57

힘내세요~ 맘 속으로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챙기시구요~

용가리(울산) 2009.04.09 10:58

대한민국의 최고의 성군으로 길이 남으실겁니다..  
"어르신" 기운내이소

물란 2009.04.09 11:00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늘씨앗짱 2009.04.09 11:00

에~~~~그 마음 자알~~~알겠습니다. 두루두루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당~~~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늘 씩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실거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gunsu 2009.04.09 11:00

누가 뭐라해도 님은 대한민국의 태양입니다

kongju 2009.04.09 11:02

대통령님 힘내세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엄마산 2009.04.09 11:03

당신의 가르침 잘받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용기 잃으시면안됩니다 이사회 의 오아시스여!

슬픈마음 2009.04.09 11:04

당신만은 아이리라 그렇게 빌었던만, 형 노건평씨 때도 그렇게 당당하시더니그것도 사실이고,이제 봉화 사저에 천막을 치는 것이 어찌 이것도 사실입니다.하는 것 같아 참 기분이 녹녹하지는 않습니다.당신이 바라시던 도덕이 이것이었습니까?많은 부분은 이해 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분이었음을 인해 더 실망했습니다.

독심 2009.04.09 11:09

요즘 참 많이 쓰립니다.  
20년 전에 수천억을 먹은이의 잔당과 일파들이 설쳐대는 꼴을 보자니...  
말씀대로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는 진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가진 권력에 비해 소양과 철학이 태부족한 저들을 보면 암담합니다.  
게다가 주변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미래를 맡길만하거나 이끌어갈 만한이가 보이지 않네요.  
언제다시 선거라는 것이 희망이 가득한 축제로 느껴질지(그때처럼)..  
아직까지는 님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푸른하늘59 2009.04.09 11:11

세상이 뜻대로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셨다면 된겁니다.  
나도 내맘대로 되지않는데 주변 사람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스스로 양심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뷰티3 2009.04.09 11:13

제 평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이번 어려움도 잘 견디시어 더욱 심기일전 하시리라 믿습니다.항상 의연하고 당당하신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뒤에서 말없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수천만의 당신 지지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아자아자~ 화이팅^^^

동건수선화 2009.04.09 11:13

노짱님을 따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슬가실 2009.04.09 11:14

이모든일이 정리된후에 모금해서 대통령님 품위도 지켜드리고 하고싶으신일도 하시게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일금 만원!당당히 벌용의있습니다.^^

태형아빠 2009.04.09 11:15

힘내시고 건강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뉴와근신 2009.04.09 11:15

사랑하며 존경하는 대통령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chlgndmltmdflwk 2009.04.09 11:17

노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제맘속에는 항상 노대통령님뿐입니다.언제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항상건강하십시오^^

바른생활TM 2009.04.09 11:19

존경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국정, 정치라는게 어찌 처음 마음먹은대로 되겠습니까?  
강한 모습 보여주세요... 늘 그 모습에 힘을 얻는 저희를 위해서라도...

사랑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으리라 믿습니다.

지현택 2009.04.09 11:19

사랑하기에 침묵해야 한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당신을 응원하며 바라보렵니다

권여사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손가락이짧은사내 2009.04.09 11:20

변명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마을을 지키는 장성처럼 항상 우리 앞에서 굼뚱하게 서 계시는 그 모습이 있어 아직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시 봉하에서 아이와함께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촌놈말상 2009.04.09 11:20

노짱님!  
가슴 시리도록 사랑합니다.  
언제나 처음마음 그대로 지지합니다.  
건강 꼭 지켜 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미짱 2009.04.09 11:20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ㄸㄸ

木 2009.04.09 11:22

지금의 상황은 다시한번 대한민국이  
보다 더 큰나라가 되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짱님이기 때문에 기쁨도 노함도  
마음 가볍게 표현할수 있지않을까요?  
당신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울 살고있는 우리들이 노력해서  
후손들이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했습니다  
너무 속상해 하지마시고 힘내십시오.

꿈그리고바다 2009.04.09 11:22

잘못은 잘못이지만...당하지는 말아야지요...  
그래도 누군가 노리는 그분의 반사 이익은 없을겁니다...  
이미 이보다 못한 상황인건요...

힘내세요...

주영곰 2009.04.09 11:23

힘내세요. 존경합니다. 요즘은 뉴스보는게 싫습니다... ㄸㄸ

진검승부 2009.04.09 11:24

노짱님 힘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冽井 2009.04.09 11:24

힘내세요...사랑합니다

함부로살지말자 2009.04.09 11:25

검찰이 작심을 하고 달려들어 들춰내려 애쓰는데 뭐 하나 걸리는게 없겠습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무결하고 깨끗할거라 생각해서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중요한 건 노무현 대통령께서 뭘 생각하시고 뭘 하려하시는지 철학과 비전이 옳다고 생각하여 지지한 것이고 지금도 적극 지지합  
니다.  
힘내십시오.

용인 2009.04.09 11:26

대통령님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힘내세요.....너무나 존경합니다.

므양보란 2009.04.09 11:26

노짱님은 제 자식입니다.... 그 맘으로 당신을 지지합니다..

한단강에서 2009.04.09 11:26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가는길...그모진 풍파를 같이 할순 없지만 마음만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그 잡초인생을 존경합니다.

힘내시고 의연하십시오.

사랑의실천 2009.04.09 11:28

우린 사람이니까요, 부처님이나 예수님, 공자님같은 성인(聖人)이 아니니까요...  
헛점있고, 실수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먼지를 털려고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지요.

다만 큰 실수에대해 잡아떼고, 검은 손울써 눈과 귀를 교란시키 두번속이려는 사람이있는 반면,  
작은실수도 사죄하고, 허물을 자기한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번일에 반응해야 할 지는 이것으로 대신할수있지 않을까요?

지방사람 2009.04.09 11:28

그동안 진정한 민주 자유를 만들어 주신데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로 갑니다 국민들은 벌써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현 권력자들은 쫓쫓하게 한치 앞를 ..

힘내십시오 2009.04.09 11:30

제 맘속의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님  
정말 존경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제니퍼 2009.04.09 11:31

인간 노무현을 좋아하고 노무현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일로 정말 실망스럽고 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온 국민이 좋아한 사람이 배신감으로 돌아오다니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영부인께서 받은 돈으로 자식들 해외 유학경비로도 쓰고  
어렵게 사는 국민들을 생각해보십시오.  
마땅히 비판받을 것은 비판을 받고 그 이상 벌이 있다면 당연히 받으십시오.  
마음은 아프지만.....  
아울러 게시관에도 편들글만 올릴게아니라 진정 비판 받을 글도 있어야 되지않을까요?

귀안의료우 2009.04.09 11:37

댓글 수가 쪼네요~^^;;ㅋㅋ 제니퍼 님..그 누구도 비판 글을 욕하지 않습니다..그것이 황당무계한 비난이 아닌 대안이 있는 비판이라면요..^^ 아무튼 대통령님 힘내세요~~이 한마디를 하려고 급 가입했습니다..ㅎㅎ;;; 파이팅~!! ^^

오로라공주 2009.04.09 11:38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존경합니다.  
그래도 노짱은 제 마음속에는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힘내세요.

삶의빛깔 2009.04.09 11:40

당신 스스로를 믿는 만큼 저희들도 늘 함께 입니다.

어쨌든 늘~~ 건강하십시오.

치차꽃설화 2009.04.09 11:42

마음으로 눈물 흘립니다.사랑합니다.

fairy726 2009.04.09 11:43

지켜보자.모금같은거 하지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해서라도 이번일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게 지지자들의 마음입니다.

한때열렬히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왜 노무현대통령이 박연차와 친할수밖에없었는지 아쉽고 약간은 실망스럽고 안타까울따름입  
니다.

그래도 박연차보다 국민들이 모금해놓은 돈이 더 가치있고 깨끗하지않습니까?

그리고 박연차량은 인연을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이번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입니다.

국민들을 더이상 실망시키지말아주세요...

일개 대통령이 그런사람한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마음아프네요..

영화시중 2009.04.09 11:43

노짱님, 힘내시고 건강지키셔야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희도 압니다.  
왜곡되어 가는 현실에 가슴이 터질 뿐입니다.

모든 것 다 잃어도 건강만은 지키셔야 합니다.  
다시 찾아와야 할 그날을 위하여

넵두세요 2009.04.09 11:44

당신으로 인해 단하나의 희망을 경험하였기에

믿습니다 ^^\*

知天命 2009.04.09 11:45

대한민국은 지금  
노무현예수 만들기가 진행중-

솔직하신 대통령님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홍노자 2009.04.09 11:45

참 세상 묘하다.,청렴집단의 대표인 목사,스님,신부 등 그분들의 질타나,평가는 찾아볼 수가 없고 씩은 언론,정치인, 등 그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니,,검손은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일-소인배의 입은 가벼워야 소인배임을 다시 또 가르쳐주는구나,,일반 국민이 야이러구 저러구 못 할 말이 없었지만(별로 걸림이 없이 사는 존재이니깐)역시 종교인이 조금 낫기는 하구나,,허지만 두고봐야지,,뵈복 때릴지?도 모르니까

강에산에 2009.04.09 11:47

털어 먼지 않나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panzer 2009.04.09 11:48

건강하셔야 합니다.

속세 2009.04.09 11:50

누가 뭐래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기에

이웃삼촌 2009.04.09 11:50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도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명박에게 당하는 것은 싫습니다. 정말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계속 당해야 하는 사람에게 또 포기하고 살아야 할 사람에게 희망을 보여주세요.

남극펭귄 2009.04.09 11:50

아무쪼록 건강 챙기시고 마음 편히 하십시오..

wingchic 2009.04.09 11:51

갑자기 눈물이 핑도네요...

항상 저 자신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막상 본인은 선거공약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큰소리치는 야비한 사자밖에 안된다고 말했던 저였는데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하신말씀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함부로 대한민국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막말을 하는 사람을 어찌 믿겠습니까만도 제가슴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만들 어주시는 노짱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멀리서나마 응원 보내드립니다.

부미 2009.04.09 11:51

정말 가슴이 아리고 눈물납니다. 힘내세요.

권력이 있는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모든 반대세력을 축출하려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오만에 대한 댓가를 응당 치러야할것입니다. 건강챙기세요.

nettoman 2009.04.09 11:52

당신이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을 때 저는 감격에 저의 마음은 울었습니다.

당신이 탄핵을 당했을 때 개탄스러워 저의 마음은 울었습니다.

이번 일 또한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당신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소리향 2009.04.09 11:52

노무현대통령님 힘내시고...건강하세요^^

likeapoem 2009.04.09 11:52

저의 영원한 대통령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실까 생각하면 갑갑하고 허탈한 심정입니다. 이런 뭇같은 나라, 이제 정말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여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몸도 마음도 추스리시고요, 웃는 얼굴로 봉하에서 다시 건강한 웃음으로 뽀개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두분!!

어랑아랑 2009.04.09 11:52

정말 눈물이 나네요. 정말 노무현 님은 현자가 아니신지..TTT주변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욕할때 너무 힘드네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언론의 힘에 넘어가 벌써 큰 죄를 저리른양.....휴....암튼 대통령님 말씀테로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부디 몸건강하시고 힘내세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동마루부동산 2009.04.09 11:53

훌륭한 인품이 글속에 묻어납니다.

존경합니다. ^^\*

아지 2009.04.09 11:53

영원한 나의 대통령님, 그리고 여사님 힘내세요!!

화사마 2009.04.09 11:54

지난 5년을 싸그리 뒤져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저 숨씨~~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국세청, 검찰, 조종동...

결코 잊지않겠습니다...이제 한국 정치는 피의 보복만 있을뿐...

수리산3 2009.04.09 11:56

믿는도끼에 발등찍히는 기분...힘내기는 개똥이나..

돌핀호텔 2009.04.09 11:58

저의 맘은 절대 조금도 변하지 않을것이고, 더욱 단단해질것입니다. 당신의 철학과 신념과 행동을 믿기에.. 그저 건강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mixedblessings 2009.04.09 11:58

에휴...다들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좀 더 지켜보겠지만 뭔가 해야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일단 준비하는 마음으로 돼지 저금통 하나 샀습니다.

종희아빠 2009.04.09 11:59

마음 든든히 먹고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꼭~~ 식사거르지 마시고~~

fairy726 2009.04.09 12:01

박연차와는 인연을 끊으세요!!  
그런분과 어울리지마세요.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2009.04.09 12:01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메이릴리 2009.04.09 12:03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매우 힘드시겠지만, 대통령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잊지마세요. 대통령임기동안 수고하셨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서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일이 잘 풀리길 기도할게요 ^^

오일대장 2009.04.09 12:06

만드시 정의가 기준이되고,도덕이 인의가 되는 날이  
올것이라 믿습니다.

불의검 2009.04.09 12:08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기운내십시오~!!  
영원한 나의 대통령~!!

대 칸 2009.04.09 12:09

무슨 일든지 들고 가지길 바랍니다. 바른 사람은 어떤 곳에 가시든지 빛이됩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전에는 이 보다 더한 고통  
도 다 감내하시고 바보소리 들어면서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세상사람들 틀면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웃으시면서 이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거제에서..

허락사 2009.04.09 12:09

언제나 내마음속엔 노대통령님 뿐입니다.  
의기소침하시는 거 같은데 절대 그럴필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믿는 우리가 있잖아요

노무현마보 2009.04.09 12:10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특히 권여사님도 매우 힘들어 하실겁니다. 두분 서로 위로하면서 지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집  
권내내 친구들하고 싸워 이겼습니다. 그 놈들이 지금은 날 만나면 물고기 물만난듯 지랄하겠지요. 계의치 않습니다. 그 역대 어  
느 정권보다도 더 깨끗했으니까요.

푸른바다7 2009.04.09 12:15

눈물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있으며 누굴 탓합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그리고 신의 2009.04.09 12:15

많이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길바랍니다..민주주의를 지지했던 무지의 나같은평민도 지금 돌아가는 나라꼴들로 화도많이내고 서러  
워 죽겠지만 그래도 당신때에 조금이라도 힘내고있으니까요..

지움엄마 2009.04.09 12:16

저의 지인이 하시는 말씀"산권력에게 메스를 대는 것은 멋지고 훌륭한 일이지만,죽은 권력에게 메스를 대는것은 국가의망신과 또  
다른 응징을 불러오는  
일이다."

황제 2009.04.09 12:16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말라.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라도 인간이라는  
고귀함을 사랑하자는말인데 어찌 당신을 미워할수있고,어찌 당신에게 실망할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진정성을 믿습니다.흔들리지 마세요. 존경합니다

도투 2009.04.09 12:17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진심은 진심으로 통합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권여사님 잘 챙겨드리세요~  
작년 비오던날 외출하셨을때처럼 비맞으시게 하지 마시구요...ㅠㅠ  
이번일로 마음 많이 상하셨을텐데 건강까지 상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 챙겨주세요~ ㅠㅠㅠ

권여사님 대통령님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素丁 2009.04.09 12:17

오호! 통재라!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 그곳에 사는 국민이 불쌍하도다! 말로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뒤로는 자기들 기문을 위하고 사리에 눈먼자들이 정치하는 이상한 나라, 그 자리를 물러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니,,,,, 세상사 事必歸正인것을, 사실을 오도하는 현란한 말솜씨보다는 진솔하게 털어놓고 어진백성들의 동정을 구함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ㄹㄹㄹ

haebalak2 2009.04.09 12:18

대통령님 아무말 안하셔도 되요  
그냥 믿고싶고 그냥 좋으니까요.

장마박 2009.04.09 12:22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진실이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대통령이 계신게 자랑스럽습니다.

유미아빠 2009.04.09 12:23

눈물이 납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그래도 당신은 언제나 저에게는 희망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은 언제나 저에게 희망이 될겁니다. 어제 오늘 돌아가는 일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무슨 사연이 있을것이다 믿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건강 챙기시길.....사랑합니다.

sotong 2009.04.09 12:24

'잘못은 잘못'이라는 당신의 말씀...

그러나 기득권에 대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에 대한,  
암담한 한국정치에 대한

당신의 위대한 도전은  
제마음의 희망이자 한국사회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 당신의 위대한 도전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질 않길 바랍니다.

다시금 암울해져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에 실망하면서도 당신의 위대한 도전을 생각하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도전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같이 함께 꾸는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 질 것입니다.

치카치카 2009.04.09 12:25

언제나 당신의 진실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언제나. 저들과 다르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민 1 2009.04.09 12:25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행여라도 억울한 누명을 씌까 걱정입니다.  
명백하게 밝혀지길,  
정권의 시너라는 사법기관의 오명이 남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노건호님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진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겁니다.

이오 2009.04.09 12:31

참 바보같은 사람  
그러길래 왜 검찰 독립이니 뭐니 순진하게 구셨어요  
이명박이나 한나라당 보세요 그사람들한테 검찰이 총출동해서 건들이면  
어떻게되는지는 모두들 알죠.  
지금 화가나는건 노무현도 아주 깨끗하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실망이지만  
이렇게 파헤치면 누가 살아남겠나싶기도 합니다.  
검찰이 노대통령 조사한게 1년넘은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정치보복 확실히 해줄 사람으로 대통령 뽑을생각이에요.

조동이 2009.04.09 12:32

진실이 폭발해지기를...철저한수사 진실한수사 가감없는 수사요망~~

당중2 2009.04.09 12:36

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잠 편안히 주무십시오...칼이 어디에 꽂히는지, 꼭 눈을 부릅뜨고 하는 꼬라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낭자 2009.04.09 12:36

노공이산님 권양숙여사님 힘든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둘메기 2009.04.09 12:36

내 어머니를 닮은 권 여사님..마음을 다치면 어찌나??? 인생후배이지만 노공님..이 또한 지나가리니.....인생역정에 작은 고난은 활력소입니다.단지..밤 여린 권 여사님 책망 마시고 온 국민을 풀어주었듯...풀어주세요.

자안 2009.04.09 12:37

빛이 있는 대통령- 무엇을 말하는가...얼마나 깨끗하고 정의로웠으면 대통령이 돈이 없는가...돈이 없어 허둥지둥 옆집에서 돈빌려서 책사라고 주시던 어머니가 생각나네요..빛을 저가며 대통령이 되신분....아 그러한 진실을 몰랐었네요...돈보다도 아름다운 세상을 더 원했던 분이라는 것을..정치판에 끼어 들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백배 천배 더 잘살 수 있으셨을 텐데 좋은 길을 버리고 홀로 고난의 길을 택하신 분....이제 모든 것이 확연해 집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hhw 2009.04.09 12:38

진정한 정치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추억 2009.04.09 12:42

멀리서나마 마음을 함께합니다.  
감감했었는데....  
그나마 제가 사는 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 범민주후보님이 당선되셔서  
작은 위안을 받습니다.  
대통령님.... 불러봅니다....

백공이산 2009.04.09 12:44

원칙과 상식... 사과문을 보면 진정성을 알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무심심 2009.04.09 12:44

노짱님 건강하십시오  
저는 인간 노무현님을 존경합니다  
세상만사 한 순간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늘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산골목대장 2009.04.09 12:47

노대통령님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들이 넘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려고만하고 타인의 잘못만을 꺼집내서 흠짓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은폐하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힘내십시오.

.수정 2009.04.09 12:48

댓글 하나 더 보태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육반장이야 2009.04.09 12:49

당신의 능력은 상위1%입니다.  
당신의 깨끗한 마음도 상위1%입니다.  
힘내세요~~!!당신을 믿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99%를 믿지 못합니다

쥘~ 2009.04.09 12:50

힘내십시오~

아침38 2009.04.09 12:50

그저 힘내시라고 밖에는...  
사랑합니다.

성북동 2009.04.09 12:53

책임중에도 개나라 애들과 조중동에 힘겨우셨던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책임중 희망을 보여주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울고/그림이 명확하셨으며 대한민국의 기분을 세우셨기에 더욱 존경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냉철히 보았을때 거짓과 위선, 사기, 성매매 등 극소수만이 공개되었음에도 씩은내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만이 바뀌었을뿐인데 2년도 안되었는데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노짱님이 그럽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시기입니다.  
전국민을 하나로 묶는 마스터플랜으로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시기입니다.  
공안정국에 의한 사찰과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 장악을 계획하는 현 정부가 보여주는 것거리는 희망이 안보이네요.

유재용 2009.04.09 12:57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님! 당신의 진정한 용기는 지난 집권에서도 익히 보고 느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진정한 용기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세계열강에 맞서 당당히 외교를 하시고자 하셨죠. 역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능락했는지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진정한 용기에 존경심을 갖게 할겁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정도, 혈연도, 양심도, 나라도 팔아먹는 역사의 추악한 인간들을 다시 만들어서는 안되겠기에 당신을 더욱 존경합니다.  
다시는 나라 팔아먹는 제2의이완용이가 배출되지 않기 위하여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먼 미래를 생각하며 이 글을 적습니다.  
소인배는 가까운것을 보고 이야기하며, 위인은 먼곳을 보고 말한다 했는데 다시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참고니 2009.04.09 12:59

당신이 취임초부터 개혁하려던 검찰과 언론 개혁이 그 뿌리 깊은 수구들 때문에 성공 못하여...이제 그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망도 많이 했고..."노무현 답다"에 부적절 한것은 검찰 수사진도에 맞추어 고백 하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검찰에서 밝힐 "있는 그대로"를 홈페이지에 미리 다 밝히고 검찰에 출두하는게 노무현 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고...화이팅입니다.....!!!!

눈물처럼 2009.04.09 13:03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은 자식의마음이 이럴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이 이럴까요.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이래서 생긴것 인가요.  
아! 하늘이시여.  
에비에미가 자식의 위해서 무슨일인들 못하게습니까.  
자식이 세상에서 기준이요, 근본으로 생각하는것은  
부모일진데 그런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없어 다면 지금 나의  
심정과 같을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유형의 일이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사과말씀을 하신것만 보아도 나의 신념이 잘못된 것 아니라는 확신을 합니다.  
대통령님이 사과 말씀을 한신것은  
또 다시 자신을 버리고 국민을 선택 했다는 반증이라 확신 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현세력의 시작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 하더라도  
결코 흐르는 강물을 막지는 못 할것 입니다.

한바탕웃음 2009.04.09 13:06

노공이산님께 힘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모든일들이, 더 나쁘게 될 수 있다니 조심스럽습니다. 노짱님께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구요~ 많이 심란스럽겠지만 지나고보면 '그뎨 그런일이 있었지'하고 회고 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재범아빠 2009.04.09 13:08

옆에서 지켜보기가 참 안스럽습니다.  
다치고 상처나고  
임계는 그런일이 없으셨으면 했는데...  
다음주 뉴스를 어찌 봐야할지  
착잡합니다.  
힘내세요

문마담 2009.04.09 13:09

노짱님,그리고 여사님 사랑합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 힘내세요

달천동 2009.04.09 13:11

친구따라 봉하마을 갔다가 님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인간은 상대적 인가 봅니다.  
현실을 직시하니 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웁니다.  
힘내시고 건강 하십시오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부자국밥 2009.04.09 13:12

힘내세요~!!! 어려울때일수록 더 간절히 노대통령님 생각이 나네요

용재아빠 2009.04.09 13:16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노짱님을 존경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꾸벅!

아프리카새깡둥이 2009.04.09 13:16

제 자식이 조금더 자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꼭 알려 줄겁니다" 좋은 교훈으로 삼고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문지기 2009.04.09 13:16

청백리 대통령을 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진술하고 무엇이든 나라를 위해 할려는 그 것이 좋았습니다.  
받았고 썼고 잘못이 있다면 조사 받고 .....  
그 모든 것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국민 그 자체 바로 이것이 좋았습니다.  
파져도 보고 잘못했으면 반성도 하고 ....  
전 대통령이라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위적 대통령 청령하지도 않으면서 청렴한척 하는 그들  
법앞에 평등을 앞에 내세워 그들만의 게임을 하려고 하는 ....  
다시 한번 나오신 다면 철저히 응징했으면 합니다. 봐주지 말고 너나나나 같은 처지라고 봐주지 맙시다.

면장 2009.04.09 13:16

사람 삶이 참 어렵네요.  
원칙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극복할 수 있겠지요.  
님에 대한 믿음은 계속할 것입니다.

황석산 2009.04.09 13:17

네 잘알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니까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우리친구 2009.04.09 13:21

대통령님의 시대정신을 우리는 오래도록 존경할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저도 항상 마음만은 대통령님과 함께 할것입니다.

너도나처럼 2009.04.09 13:23

어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환하게 웃으시며 방문객들을 맞으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지하겠습니다...^^  
부디 건강 잘챙기시기만을 바랍니다...

아클라이아 2009.04.09 13:27



국민앞에서 진실을 말할수 있었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가락주민 2009.04.09 13:28

회고록이든 정치 칼럼이든 책하나 내시면 그 인세로도 충분히 값어치실것같습니다. 절 지을때 기와시주하듯... 지지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으니. 서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수도산 2009.04.09 13:30

함께 비를 맞읍시다.

민민아빠 2009.04.09 13:32

가슴 아픈 현실이며...솔찍히 답답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믿습니다. 노짱님 힘내세요...4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반전 기대합니다.

어은골 2009.04.09 13:34

잘못이 없이 세상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것은 훌륭한 행동입니다.  
사과를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모든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선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면  
다시 노무현대통령님을 많은 사람들은 계속  
존경하고 사랑할것입니다.  
힘내세요.  
사랑해요.

사랑과인생 2009.04.09 13:34

대통령님 혹시 장기 두실 줄 아세요?  
장기판의 궁은 주위에 사와 포가 없으면 아주 불안한 모습이죠?  
당신이 있기에 행복하였고 당신의 이념을 사랑하였고 당신을 닮아가려 애썼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더 이상 제마음속에 느껴지는 실망감으로 희망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무진 2009.04.09 13:38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쟁아네 2009.04.09 13:38

대통령임기 끝나고 더 인기있는 대통령, 작년 봉하마을의 인기가 뜨겁고 지지자들이 엄청난악벌에서 대통령님 좀 빌려고 하고 혹 정치세력화할까봐 깃털부터 손을 보기 시작해서 대통령 주위에 다칠까 아무도 못가도록 몸통만 남기고 모두 잘라버리려고 하는데 **BBK**는 어찌되었는지? **MB**구린것은 언제 나올까? 기대됩니다.

무효인 2009.04.09 13:44

힘내세요~ 몸건강하시길 늘입니다

러브법사 2009.04.09 13:47

힘내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실거예요!

닥터로 2009.04.09 13:54

힘내시고 식사 꼭 챙겨드세요. 사랑해요.

푸른산호초 2009.04.09 13:57

나무는 바람이 흔들수록 강해지는 법입니다.

天~雲 2009.04.09 13:59

힘내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부디 이 난국을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몸 건강히 계시길 바랄 뿐입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것입니다...진짜 마음이 싸하네요

sylphide 2009.04.09 14:03

뉴스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요 며칠사이 가슴이 아픈 뉴스가 자꾸 첫 기사로 나오네요..그래도 저는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안했다,내가 안 그랬다,,나는 죄가 없다,,판 사람은 나보다 더하다"라고 발뻠하지 않으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용기가...그 용기를 내기가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그 당찬 용기가 꺾일까봐 저는 그것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김중원 2009.04.09 14:06

욕설,폭행,살인.. 모두 '잘못'입니다. 하지만 다 같은 잘못은 아닙니다.  
차이는 그 정도에 있습니다. '잘못'이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욕설정도의 잘못을 살인정도의 잘못으로 부풀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잘못인지는 검찰에서 밝히는것이고 검찰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뉴스보기 풀사납고 더럽습니다. 모든 언론들 대놓고 물갈이 하고 있고..

이나라는 정말이지 정이 떨어지다 못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한국사람인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미치도록 싫습니다.

mh669 2009.04.09 14:07

모든 언론매체 당분간 멀리 하는것이 좋을것같아 다스린중에 그래도 오마이뉴스 접하는데 그래도 칼럼쓰는 오피니언이라할까! 모두 타켓이고 같이 즐기고 있군요 특히 저와 같은 댓글자에게 정신나간 사람 처럼 평하고....! 정말 우로 보면 참여정부시절 보다 더힘한 기사거리는 내팽기치고 국민들을 호도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자화상은 생각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일부 국민들의 한 줄서기 전쟁이지요 진정 그들도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삶과 함께 편파되어 있지만 많은지 걱정이 됩니다.노대통령님의 흔들림없는 소신에 더욱 힘내시길 기원 합니다

라하트하해렙 2009.04.09 14:15

노 대통령님! 힘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몸은 비록 멀리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님을 지지하며 따르겠습니다.

미스터 붕 2009.04.09 14:15

힘내세요^^!!

우물지기 2009.04.09 14: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대통령은 노무현 뿐입니다.  
노짱님 힘 내세요.

andante 2009.04.09 14:18

최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실 겁니다...  
변함 없이 지지 합니다, 강권하십시오.

봉하교 2009.04.09 14:21

여기 댓글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신홍사이비종교신자들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이렇게 한쪽에 갇혀버리는 속성이 있는것 같네요. 이글보고 별때처럼 달려들겠죠. 봉하나라에 갈려면 여권이 필요할것 같네요.

짠 지 2009.04.09 14:30

그냥 믿지요  
언제나 함께 있어서 좋은사람

늘웃자 2009.04.09 14:32

솔직히 무어라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만은 믿습니다. 파렴치한 일은 아니었으리라는 것 입니다. 여러가지로 마음 아프실텐데요.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잘 다스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카리마 2009.04.09 14:38

노짱님, 여사님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존경합니다.

지구별여행자 2009.04.09 14:43

노무현 대통령님. 침처럼 끝까지 함께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아줌니 2009.04.09 14:45

뉴스도 신문도 보기 싫습니다.힘내십시오!건강하십시오! 마음이 시려웁니다.용기내십시오! 사랑합니다!

희망만땅 2009.04.09 14:46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가는 국민들이 많으니...걱정 마시고...소신껏 활동하셨으면 합니다..

샘맘 2009.04.09 14:47

여기모인 우리들이 대통령님을 오늘의 어려움에 처하게한것같습니다.  
퇴임후 조용히 사시고자 하셨는데 자꾸 찾아가고 여기모여서 현정부 욕하고 자꾸 다시 정치하시라고 부탁하고....  
국외언론에서도 언제까지 시골에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러니 겁나는 사람들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의 사태를 만든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님은 여기모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겠지요?  
저는 대통령님의 진정성을 믿고 여태까지 걸어 오신 길을 보면 절대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노사짱 2009.04.09 14:57

가슴이미여집니다 어떻게하면 정치적으로여워서 품위손상피하는 현정권이 너무나 밉습니다 노짱님을 아무리흔들어도 굳건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왕눈이 2009.04.09 14:58

아 왜 하필 이때에 총선 전에 이런 일이 터지나...  
싫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 ... 이 사람들 정말 너무나 싫더군요  
사람들이 정치쇼라고 할땐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결국 몇십년째 우러먹고 있는  
정치공작에 차가 떨립니다.

물론 우리 노통께서 잘못된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타박하고도 싶지만.  
우선은 잊지려진 물이고,

흠잡을데 없어 애통해하던 2MB들이  
옳거니 하고 쾌재를 부르고  
수레기조종동이 온갖 편파보도로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댓글을 찬찬히 읽어보다 보니.  
그래도 계획한 일은 해야겠지요 하시던 분이 계시던데

노통께서 그리 글을 쓰셨는데  
말을 안들으시고  
노통 욕 먹을 행동하지않고  
우리가 묵묵히  
응원하고 염려하길 바랍니다.

뉴라이트의 윗대가리 2MB의 재임이 끝나길 카운트하며  
우리모두 앞을 내다봅시다.

모두들 사랑합니다.

안중근후예 2009.04.09 14:59

나는 정치는 잘모르는데  
눈치는 빨라서  
노짱이 옳으시다는 것은 알겠다.

플랑기2 2009.04.09 15:07

힘내세요..노짱님..아시죠?..퇴임하실때 하신말씀이요.. 대통령선거때 국민의 30%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퇴임할때도 그 30%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으니 손해본 정치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 30%의 사람속에 저희가 있습니다..결코 적은 수의 국민이 아닙니다.. 노짱님 혼자가 아니십니다.. 힘내세요.. 저희는 저들의 뒷에 스스로가 걸릴겁니다..

장한사람 2009.04.09 15:10

당신이 있어서 예전에도 행복했었고, 현재도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런저런 2009.04.09 15:11

그래도 봄은 오고있지 않습니까!

녹색신사 2009.04.09 15:17

Let it be~  
Cheer up ! it's a start.  
당신 혼자가 아니니, 힘내시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51%가 이 과정 두눈 시퍼렇게 트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꼭 기회를 만드십시오.4년도 남지 않았네요....

emfvnf1450 2009.04.09 15:17

대통령님 님을 믿습니다,저놈들이 먼저치려하니 잘하셨습니다,  
이젠 저놈들의비리를 밝히시고  
차제에 저놈들의 정치생명을 완전히 끊으세요  
대통령님께선 유일하게 저놈들을 응징하실수있습니다,,  
이정권도 응징하세요,  
도곡땅실제주인 아마 귀통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즉 재산신고의 누락으로  
직 무효를선언하면 게임끝입니다,

해오라기 2009.04.09 15:19

노전대통령님...힘내십시오~~~~끝까지 지지합니다~~~~~

사악한독재자 2009.04.09 15:21

지 면상과 똑같이생긴 사악한 마음을 가진것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믿기때문에 어떤죄를 저도 하나님이 다 용서 해줄것이라 믿고있어서 맘 놓고 악랄한것을 저지르고있죠 빨리4년이 지나가기만 기다려줍니다 4년동안 겨울잠이라도 잘까요...더 걱정되는건 통제되어진 언론에 물들고 세뇌되어점점 어리석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노짱님 제발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이보다 더한일도 겪으신,산전수전 공중전 다겪어보신 강한 노짱님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좀만 참으면 좋은날이 오겠죠?

푸른잎새 2009.04.09 15:27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맘이 아프지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마음 또한 이해 하기에 힘내시라는 말 씀만 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상 2009.04.09 15:36

힘내세요!!! 나참... 김영삼씨의 발언은 정말 황당 하네요... 노전대통령님... 저도 끝까지 지지합니다. 황팅...

황매M.T 2009.04.09 15:42

대통령님 여사님 꼭~한번 껴안아 주소. 무리는 하지 마시고 ㅋㅋ

대 원수 2009.04.09 15:48

저는 저의 허물을 이미 사과한 처지.X  
수상망이 좁혀지자 압살하게 선수를 친 것.O

입은 삐뚤어 졌어도 말쑥은 똑바로 하셔야죠. ^0^  
(여기, 정말 재미있다능. w)

해오라기 2009.04.09 15:52

노전대통령님...끝까지 지지합니다..힘내세요!!!!

돈나무 2009.04.09 15:53

노짱님 걸어오신 길에 마음편한 날 얼마나 될까요? 퇴임하시고 아~참 좋다 하셨을때 그동안 얼마나 힘들셨을지 생각했었는데...또 다시 힘이 든 날들이네요...정녕 마음만 함께 할수 밖에 없나요?

대장님 화이팅! 2009.04.09 15:57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대장님..

삶&꿈 2009.04.09 16:01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람세스리 2009.04.09 16:04

봉화마을의 불꽃은 잠시 수그러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활활 타오를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세용지마.... 그날을 기다립니다. 늘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통신보안 2009.04.09 16:04

진흙땅에서 축구하는데... 이긴 사람 이나 ...진사람이나... 어찌 흠이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노짱님 을 믿습니 다.

사랑 합니다. 힘 내십시오.

그즈 2009.04.09 16:06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을수있습니다. 우리나라 큰기업하신분들 잘못있어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공헌하셨다고 많이 봐주시는것 같대요.  
전 노 전대통령님이 우리나라 를 위해많은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발전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악착같이 뒤져서 먼지안나올사람 어디있답니까? .....

마산골목대장 2009.04.09 16:08

가장 훌륭한신대통령 노무현입니다.

경원 2009.04.09 16:11

존경합니다..

검은피양세 2009.04.09 16:18

힘내세요...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miky04 2009.04.09 16:19

가난한 대통령. 어쩌다 한번씩 이런 저런 뉴스를 통해 정보를 알게되고 봉하생활을 한번씩 엿보면서 언제나 든 생각은 가난한 대통령이란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의미의 가난이 아니라 일국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 오히려 가슴이 아픕니다.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남산골이장 2009.04.09 16:20

건강 챙기시길 ~

찬호 2009.04.09 16:23

언젠가, 먼 훗 날이 될지 가까운 미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가 진실을 말해줄거라 믿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순종하라 2009.04.09 16:23

무슨일이 터져도 끝까지 함께 합니다.

np36 2009.04.09 16:24

이 일이 새옹지마가 되길 바라며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미음드레 2009.04.09 16:26

대통령님 언제나 그자리에 있습니다

힘내세요! ^^  
파이아!~~~~~

하연시연아빠 2009.04.09 16:28

사람들은 노무현에게 너무 맹목적인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제 시작이니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전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노짱님은 제가 아는 노짱님은 그럴분이 아니란걸요. 제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명민킹왕짱무현 2009.04.09 16:30

영원한대한민국 넘버1대통령님..노무현..  
그동안의 떡찰들이 한것이있으므로 눈과귀가열린 국민들은  
떡찰들보다 대통령님을 더욱 믿습니다^^  
에잇 드런것들~취새끼일당들 ..대한민국에서꺼져~드러워~~~  
노짱님은 부디 만수무강하시구 해피한 생각만하세용^^  
사랑합니다..고맙습니다.....  
노짱같은 진실한분이 계시다는것이 행복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킹왕짱~알라뵘^^

삶이그대를 2009.04.09 16:33

힘내세요^^

cjsals 2009.04.09 16:37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가을님 2009.04.09 16:42

괜찮습니다.이정도쯤이야, 힘내십시오 멀리서 항상 응원하고 지켜드리고 있는 조용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소심한자 2009.04.09 16:43

노대통령님 힘내세요..보복,표적수사하는 것인지는 다압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기립박수 2009.04.09 16:46

호미 정한거..말씀하신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사심 2009.04.09 16:54

조용히 응원합니다. 저와 같은 맘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하리라 생각합니다.

봉하에서 피는꽃 2009.04.09 16:59

인간사 모든것이 돈이 문제군요 ㅠ.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는법. 힘내시고 늘 진실하신 모습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기쁜정아 2009.04.09 16:59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노짱님과 권여사님!

쌍둥이맘 2009.04.09 16:59

여사님과 두분 건강 잘 챙기시구요.

항상 저희부부처럼 대통령님과 여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힘내세요!

니마 2009.04.09 17:02

조금 놀란건 맞아요 하지만 노전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꿈의대화 2009.04.09 17:10

그렇지요 사과했고 전직대통령으로 법에 따라 벌이있으면 받아야겠지만,,,

어제 돈 몇백억을 못 만들어놓고 이런 불상사 만드십니까???

그 정도는 쉬웠을텐데.....

찾아오는사람 선물과 접대도 해야하고

돕고싶은분 도와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가난해서야 우짚렵니까???

힘내시고 건강하세요.....겨우 몇푼으로 대통령 때리는놈들이 미워서 죽겠습니다....이럴때는 왜 법대로 수사하고 지랄들하는지.....

노란풍선4개 2009.04.09 17:10

진실이 진실답게 밝혀지는 세상이어야 할텐데..걱정스럽습니다..힘내세요..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자신들의 실책을 숨기고자하는 계략...정말 한나라당 스텝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이 계셔 한국인인것이 자랑스럽습니다~결말과 관계없이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반란군 2009.04.09 17:17

정의는 언제나 진실편에 있습니다, 노짱님 힘내시구요 늘 건강하십시오, 사랑 합니다 그래도 노짱님을 사랑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들 개 2009.04.09 17:19

진정 사람은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산가족 2009.04.09 17:20

힘내세요.

지산이 2009.04.09 17:21

사필귀정! 언젠가는 진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겠지요.

J-주하 2009.04.09 17:22

누군가는 동영상에서 강의까지 하며 자기회사 자랑까지 해놓고도 아니라고 우기시던데, 노짱님께서 그분만큼의 뻔뻔함과 사기수법을 가져셨다면 하는 바람이던 바람을 가져보는건 왜일까요? 곁에 있는것만으로 항상 힘이 납니다. 건강하세요.

인원 2009.04.09 17:25

노사모초기멤버였는데, 그동안 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다 오늘 가입을 했습니다. 누구처럼 현대 삼성 대우에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수십년지기한테 어려워 도움 좀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커다란 비리를 캐낸양 설레발을 치는 서초동 검사놈들이 참 웃깁니다. 봉하마을에 국민들이 모이니 그간 지켜보다 배가 많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보선 끝날 때까지 계속 저 지랄하겠지만, 두분 아무쪼록 힘을 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지켜드리고자 미력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가입하고 즐겨찾기에 추가했습니다.

스쳐도 2009.04.09 17:25

\*\*\*말을하면 진실이 되고,말을하지 않으면 거짓이되고,말을하면 이해가 되고,말을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요.\*\*\* 제가 좋아하는 글입니다.노무현 대통령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용월태 2009.04.09 17:33

항상 묵묵히 남아 있겠습니다.

국방부장님 2009.04.09 17:39

배고파... 밥줘~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본산공단 내에 구내식당에서 광우병 소고기가 나도는거 같애... 나의 너가 점점 구멍이 뚫리고 있어 끼약-

명박아~ 회한하네 200억 가량의 재산이 1년사이에 대통령하면서 400억으로 늘었어~ 200억 어디서 뺨당친거야? 대통령 연봉 해박야 1억 800일텐데?

야호랑 2009.04.09 17:42

힘내세요. 잘못은 잘못이지만...그 잘못이 누구에게든 똑같은 잣대로 적용되고 그에대한 처벌도 잘못의 무게만큼 공정하게 메겨지길...그리고 수사가 한쪽에 치우쳐있다는 기분 떨칠수 없네요..마치 올가미 준비한채 누구말 떨어지기 무섭게 기다렸듯이 들어오는 저 하이어나들이 영 땀네요

청산심해 2009.04.09 17:42

국민은 노무현님을 믿습니다.그리고 사랑합니다.그리고 존경합니다.건강하십시오.

저푸른초원위에 2009.04.09 17:45

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님 힘내세요.

ichchan 2009.04.09 17:46

힘내시고 당당하시길.

역사는 진실을 말할것입니다.

GMPer 2009.04.09 17:46

너무 심려치 마시길... 언제나 쪽 함께하겠습니다..

돼지고구마 2009.04.09 17:51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  
기운내시고요, 건강 꼭 챙기셔야합니다..  
힘내세요.....

태양의여신 2009.04.09 17:55

사랑하는 분.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하는 법이죠. 언제나 당당한 모습 기대합니다.

까르페디엠^^ 2009.04.09 17:56

노짱님..힘내세요..이 말밖에드릴 말이 없네요..  
항상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김치복음밖 2009.04.09 17:56

역시나...  
노짱님께서서는 다른분은이군요..  
과연..이러한 마음자리를 지닌 사람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러니.. 저는 당신을 떠날수없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저는 당신곁에 있었습니니다..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두분께서 건강하셔야 합니다..^^\*

5계절 2009.04.09 17:58

솔직하게,, 늘 그랬듯이,, 그렇게,,, 이렇게,,,하면 될 것입니다.

봄이오는 들녘 2009.04.09 18:19

여전히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먼지 묻었다고 꽃이 꽃아닌 건 아니지요  
강건하시기를...

사 ~ 2009.04.09 18:22

잘 될겁니다.

가을갯마을 2009.04.09 18:29

일단은 두고보고 행동은 다음에 재빠르게...

윤희 2009.04.09 18:34

힘 내시라는 말밖에 더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속하고 한편으로는 무척 속상합니다. 님의 사진을 신문에서 즐겁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쪼록 건가하십시오. 아직 너무나 젊은 님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제 미약한 힘을 보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여해 2009.04.09 18:45

가슴이 아리고 저립니다. 그렇다 해도 두분의 아픈마음에 비기겠습니까. 부디 떳떳하고 담담하게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바다를 삼킨고래 2009.04.09 18:52

힘 내십시오 ^^:

단구 2009.04.09 19:05

사랑하옵는 대통령님...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 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 내세요...

환한세상 2009.04.09 19:14

여러가지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다 똑같다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똑같은 수가 없죠!!!?  
저는 장황하리만큼 제가 알고 이해하는 바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분도 말끝을 흐리더군요.  
힘내십시오

현재와미래 2009.04.09 19:24

노대통령님,오히려 노대통령님에 관심없었던 사람들이 낙심한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노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는 이번일로도  
변함이 없다고요, 제주위사람들은 모두 노대통령님의 결단을  
칭찬하던데요. 어제 선거결과 보셨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다들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노대통령님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대다수인것을 잊으시면 안되요.

미터짱 2009.04.09 19:26

힘 내십시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건영맘 2009.04.09 19:36

이명박씨 대통령되고 정말 화가 나서 뉴스도 보기 싫었는데 세상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오마마가 연설문에서 말했죠?'미국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존중과 기회균등과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나라뿐 아니라 국민의 의식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정권에서 희망의 싹을 언제고 볼수는 있는걸까요? 정말 이나라를 떠나 현실도피라도 하고 싶네요~

가을여자 2009.04.09 19:42

진심으로 존경하옵고...~사랑합니다.두분..~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와튼 2009.04.09 19:42

새로운 시대가 오겠죠...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염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노짱님!!

푸른산호초 2009.04.09 19:46

님결엔 우리가있습니다.기죽지 마십시오.

보리밭 2009.04.09 19:48

변함없이 노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꼭 건강하세요

나그넵니다 2009.04.09 19:58

저에 댓글이 노대통령님께 티끌 많큼이나마 힘이되기를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영웅\*^^\* 2009.04.09 20:03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도 모범이 되어주세요. 타인이 자신의 잘못을 알아내서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오 하기보다는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 지지분한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이 시대 정치가들의 모범이 되어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봉하마을이 좋아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노무현전대통령님 내외분께서 손수 향긋한 차를 준비해서 대접해도 좋을 것이고 이제 시골은 농삿일로 바쁜 철이 다가오는데 그곳에서 농삿일을 도와주는 모습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공부방을 여셔서 저소득학생들에게 유기농 과자 주면서 꿈과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입니다. 얼마나 훈훈하고 얼마나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미 얼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듯이 지금의 일은 순리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시대의 모범이 되어주세요. 서민들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기존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청렴하고 국민에게 가깝고 허물없고 따뜻한 전직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flagship 2009.04.09 20:06

힘내십시오.제발..  
언제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환희 2009.04.09 20:10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대통령님힘내십시오..건강하시고요..언제나우리들이함께하고 있습니다.당신계선 언제나 너무솔찍하신분이십니다.

하늘하늘 2009.04.09 20:10

어제도 오늘도 또내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속상해 하시지마세요 몸 상하실까 두렵습니다  
아파하지마세요 당신을 지켜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사랑새7 2009.04.09 20:16

작년 가을에 봉하에 다녀 왔는데 뱃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한번 더 다녀와야 될것 같군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것 같아서요~~힘 내십시오~ 이번 사태 알만한 국민은 다 압니다 이 치졸한 것기리를...

호근 2009.04.09 20:18

그 어떤역경이라도 피로세운 민주운동만 하겠습니까?  
이 모든풍파에도 굳건하게 일어 서세요..  
당신이 있어 아직도 삶의 맛을 곱씹습니다.. 살아 갈만 합니다.

안양강냉이 2009.04.09 20:20

역사는 돌아 갑니다...힘내십시오..그리고 당당하십시오...

自他不二 2009.04.09 20:20

알지요 당신의 마음을.... 하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그럭저럭인 일들을 크게 만들어 혼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소문 퍼트려 조용한 사람까지도 의심나게 만들고....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용하는 언론, 검찰, 보이지 않는 손.....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지자입니다. 힘내야죠 웃으면서요..허허허.... 소인배들의 짓을 웃을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건강하십시오.

변가네 2009.04.09 20:22

힘내세요..힘없는 백성은 이말밖에 헤드릴 말이 없네요..죄송할따름  
언제가 진실을 알아줄때가 올 거라 믿습니다..힘내세요

세균맨 2009.04.09 20:25

힘내세요..  
언제가 진실을 알아줄때가 올 거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파란눈 2009.04.09 20:36

힘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pride 2009.04.09 20:44

처음으로 글을 쓰네요. 그냥 조용한 지지자입니다. 이번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답답하네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기 모든분들도 마찬가지로 넌을 지지하는 것은 변함없을 거예요. 그냥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라소니黃 2009.04.09 20:50

깊고깊으신 노짱님의 마음을 잘 따르겠습니다.

선대텔라 2009.04.09 20:52

뒤편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꼭 좋은 날이 오실거라 믿구요~!! 건강하십시오~!!

young태양 2009.04.09 20:53

울컥한 마음에! 이런분을 왜 이렇게 벼랑끝으로 밀고 있는지 세상에 과연 정의라는 것이 있는지~ 이나이에 세삼 의심을 합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보면서 항상 그자리에 있겠습니다.

0708과도 2009.04.09 20:53

힘내세요.....

코알라ksj7 2009.04.09 20:54

엇그제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셔서,  
오랜만에 노공이산님에 대한 제 마음을 표시했었는데  
오늘은 검찰의 이런저런 말이 많았네요.  
방향도 잃었고 지금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닐텐데말이죠.  
추경예산 30조원, PSI 등.. 현재 어처구니 없는 국가 일이 많은데,  
오늘 뉴스를 보니 검찰은 검찰입니다.  
그러나 역시 저의 눈길은 지난주부터 국회로 가네요.  
마음은 노공이산님과 함께입니다.  
오늘도 종일 뉴스에서는 연신 관련 뉴스가 첫장으로 나오고  
관련 인터넷뉴스도 자동으로 쏟아졌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추경예산 30조원과 PSI를 가장 주시하고 있어요.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정말 그것을 한다고 하나? 정말로 나라 예산을 그렇게 빼갈것인가?' 이거거든요.  
쓰고 보니 길었네요;; 저도 마음을 잘 따르겠습니다.

총통 2009.04.09 20:55

책임시절처럼 반드시 이겨내실겁니다.  
인간 노무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cjmjic 2009.04.09 20:58

요즘 정말 우울하네요ㅜㅜ 그동안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화가 많이 납니다. 눈물이 자꾸만 내려해요. 그래도 말씀처럼 그냥 조용히 더 지켜볼게요. 잘못된 잘못이라는말 저도 공감합니다. 그치만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눈뜨면없어라 2009.04.09 21:11

앞으로 4년 남았군요....

그동안 계속 시달리실텐데...

휴.....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ㅠ.ㅠ

느린걸음 2009.04.09 21:14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무어라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 이세상에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함께하겠습니다.

깊은 강 2009.04.09 21:29

어떻게 4년을 살아야할지...  
진실을 밝히지도, 알리지도 않을 것같아 걱정입니다.  
산불.. 민심이 흉흉..  
시대가 몇 년이 아니라 몇 백년은 거꾸로 가고 있네요.  
대통령님, 영부인님, 힘내십시오. 하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초리1 2009.04.09 21:33

글을 읽으면서...갑자기 눈가가 축축해 지는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노사모 회원이란것과...당신과 함께 같은 시대에 숨쉬며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힘내세요.....

돈테크만님 2009.04.09 21:34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더 진흙탕에서 기어다니던 것들이 이 기회다 하고 대통령님 비난하는 모습이 보고만 있기 참 힘들대요..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대통령님은 존재만으로 제겐 좋은 스승이었기 때문에 맘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왕눈이55 2009.04.09 21:35

감히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릴수 있어서 감사 합니다  
봉화마을에 불이 났다고 뉴스 에서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계시는 쪽으로 번지지 않은 것을 보니  
하늘도 함께 도우시나 봅니다  
기력 잃지 마시고 건강 하세요.. ^^

한잔남 2009.04.09 21:39

대통령님 말처럼 기다리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 지니가요.  
그리고 힘내세요 ^^

0708과도 2009.04.09 21:40

기운잃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한번도 빈적 없지만 마음은 항상 짜~안 ~ 합니다

달갈사냥꾼 2009.04.09 21:43

힘내세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전하며...

만주수복 2009.04.09 21:43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은 영원한 저의 대통령이십니다.

돈테크만님 2009.04.09 21:52

한 마디더..

위에 어떤 분이 써놓으신 글인데..

영수증을 남기셨어야죠..~~ 별 것도 아닌 걸 갖고..ㅋㅋ

판 대통령들은 이름 모를 힘이 만들어준 대통령의 느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한국사람 한사람 한사람의 힘으로 뽑혀진 대통령의 느낌..

국민들에게 인기짱인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님 화이팅입니다!!^^

노유이강 2009.04.09 21:54

힘내세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슈퍼소닉 2009.04.09 21:56

요즘은 밥을 먹어도 속이 쓰리고 아픈 것이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 같네요.

힘을 내시죠! 언제 노짱님이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 피한적이 있었나요?

당당히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 하시면 됩니다.

비록 본인보다 측근과 가족이 당하는 아픔이 더 견디기 힘들시겠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이 같이 아파하고 있으니 기꺼이 아픔을 감내할겁니다.

사랑해요 2009.04.09 21:58

힘 내십시오...대통령님...여사님....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글 재주가 없어 다른님의 글 다시 씁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입니다.

물처럼바람처럼 2009.04.09 22:06

똥물은 개가 겨물은 개를 나무라는식이군요.. 항상 민심은 정의의 편에 있습니다. 현명하신 노공이산님의 처신을 기대합니다.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되니까요.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몽셀양 2009.04.09 22:07

잘못이 있다면 있는대로 없다면 없는대로 잘해결될거라 생각하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약해지지 마세요..!

주저않지 마세요..!!!

강해지세요..!!!

응원하고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주세요!

마음으로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호천사 2009.04.09 22:07

정말 화가납니다 요즘 스트레스 엄청많이 받습니다 우리모두 힘 냅시다

대통령님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정사 2009.04.09 22:09

사랑합니다.

힘 내십시오...대통령님 . 여사님...

도톨 2009.04.09 22:11

우리는 노무현대통령님을 믿습니다. 힘내세요. 언젠가지나 노무현대통령님 편입니다. 언젠가지나 노무현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구아니다 2009.04.09 22:15

4년 세월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취세끼가 땅속으로 사라지는 그날까지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만두소년 2009.04.09 22:15

노무현대통령님 힘내세요! 지금은 힘든 시기가 왔지만 역사는 올바른 평가를 내려줄 거예요. 이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Ubiquitous 2009.04.09 22:16

역시 소인배들보다 위대하십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런 용기를 낼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욱 맘이 쩡합니다.

오래도록 이런 분 맘 속에 깊이 담아두려 합니다..

0708과도 2009.04.09 22:32

^^~

세상속에 2009.04.09 22:39

‘잘못은 잘못이다.’는 글을 머리속에서 지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몰지각한 인생의잘못된 개인의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力 만이 현실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당당하신 당신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여기 있답니다 제아무리 그누가 뭐라하드래도 절대 당신의그 위풍당당함을 잃지 마시라는것입니다

지금 정치가 어느새 초창기 자유당 시절때 보다 더한 추잡스런 모습에

가슴 아프네요.. 좌익이라고 생각 하는 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논리일까요? 좌익이면 어떻고 어찌합니까 이제와서 力이

없다는 이 더러운세상에서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당당하신 당신의 모습 우리 여기 일명 지지세력 이 모여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현 정치세력이 얼마나 왕성 한가를 말입니다... 권력의자리에 있는 그들역시 다음에는 피눈물을 쏟아 낼 것입니다

아픔은 잠시입니다~~대통령 노무현 당신은 정말 무엇이 어떻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압니다~

사랑합니다~♡

단 한사람이 당신곁에 있어도 당신은 행복 한 나의대통령 입니다

힘과 힘!! 절대 잊지 마십시오.....

눈물1 2009.04.09 22:40

저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전처음으로 당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했더랬습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요,,,야~~노무현후보 찍어라~~~  
그때는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렸었는데,,,왜 이렇게 슬퍼지는거지요~~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요,,,차라리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벌렸으면 당신이 받았던 액수의 몇배를 우리는 모아주었을텐데요,,, 친구들이 요즘 저에게 그러합니다. 야~~풀~좋다!!!

케르시스 2009.04.09 22:43

아직도 대통령님 곁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비밀정원 2009.04.09 22:46

용산 참사현장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위한 추모미사에 참례하고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연로하신 문정현 신부님께서 노구를 이끌고 현장에서 숙식하시며  
그분들의 억울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삼일 중에서 성 목요일 길거리 미사입니다.  
세족례 예식에서 집전하시는 신부님들께서 유가족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우리들은 최후의 만찬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누었더랬습니다.  
오늘 만찬석상에 여사님과 노짱님도 함께 하셨더랬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무례하게 두 분을 맘속으로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감히...

용서하십시오~~~

두 분 사랑합니다~~~♡

죽음의 카드 2009.04.09 22:47

노통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신병환자로 만들었나요. 당신은 당신을 비롯해 사돈의 팔촌까지 악취나는 검은 돈을 받아먹은 파렴치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두둔하고 응원하나요? 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하면 신도들을 이렇게 많이 모을수 있는지 종교단체에 비법 전수좀 해주세요

0708과도 2009.04.09 22:54

재임시절처럼 반드시 이겨내실겁니다.

세상속에 2009.04.09 22:59

눈물1 님  
가슴은 아프시드래도 여기에는 그만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말입니다

허물고싶은 그들이 여태 이러한것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죠\_-\_  
한사람  
두사람 ...  
노 대통령 세력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역시 눈물1님의 그간 고생하시것 대략 짐작은합니다  
그래도 이런 때에 보다 더 사랑을 주자고요  
보다 더 말입니다 다시 사랑의힘을 보태봅시다....

베이직 2009.04.09 22:59

소문은 더욱 무성하고 시간은 더디 흐르고  
진실은 분명히 아닌데....대다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노짱님 힘내십시오~~~!

플군 2009.04.09 23:02

항상 먼발치서 응원해오던 대학생입니다.

솔직히 이번일로 노 전대통령님께 적잖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글을 올리시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심이  
그나마 속 시원해서 다투나 싶습니다.

잘못에 대한점은 확실히 어디까지가 잘못이고 어디까지가 오해인지  
가려지되, 임기시절처럼 작은말이 부풀어 오르고,  
정작 중요한 것들(잘못이든 오해이든)은 알려지지 않는 사태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세상속에 2009.04.09 23:02

닉~[죽음의 카드] 개소리 하지마라!  
부탁한다 !그리고 너의글 삭제하라~!!쓰레기같은놈아!!

마루이모 2009.04.09 23:04

힘내십시오.

s i e s t a 2009.04.09 23:04

꼭 승리하십시오!  
시간이 진실을 밝히고,  
역사가 평가 할 것 입니다.

ahha0609 2009.04.09 23:08

믿으니.. 격정마세요... 그저 심하게 부는 이바람에.. 든든히 서게시길 바랍니다.

돈쿨레웅 2009.04.09 23:09

항상 지지 합니다 .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최인경 2009.04.09 23:12

요사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저는 누가 뭐라해도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건강 하시길 간절히 바래어 봅니다.존경합니다.

짱인니 2009.04.09 23:23

묵묵히 진실을 지켜보겠습니다. 당신을 믿기 때문이죠...

녹차 한 잔 2009.04.09 23:36

노대통령님 얼굴 뵙고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고... T T

와이즈 우먼 2009.04.09 23:41

검찰 수사가 어땠던 대통령님 편입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달구벌 2009.04.09 23:43

노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메롱남편 2009.04.09 23:45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더욱더 당신이 보고싶고 그립습니다.  
부디 강건하세요.

설봉산 2009.04.09 23:49

깨끗한 대통령  
솔직한 대통령  
민족의 통일을 성취할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찾습니다.  
당신이 아니셨나요?  
고개숙이신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창때기 2009.04.10 00:07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한게 없습니다.  
이제는 수사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더욱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태양선 2009.04.10 00:12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 안 상해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바람이겠지만  
조금은 힘이 있다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푸른소나무@ 2009.04.10 00:18

가슴에 통증이 옵니다....  
대통령님의 고통이 맘으로 전해지는듯해서 마음을 진정시킬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당신을 위해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러셨지요...어둠이 빛을 이기기 못한다고 하셨지요...  
믿겠습니다...대통령님 부디 강건하십시오....

나가리 2009.04.10 00:25

잘못은 잘못이다...이렇게 말할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늘공원♪ 2009.04.10 00:54

지금 100분 토론을 보면서 찡찡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누구는 돈을 받아도 양심을 저버리고 파욕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설사 돈을 받았다 치더라도 양심의 선을 지키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잘못된 것임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의 질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주고 받음을 떠나서  
현재도 미래도 노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지합니다...  
왜냐구요?  
당신은 적어도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있는 분이요,  
또 분명 당신은 대한민국의 [애국가 대통령]이셨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님 힘내세요~~  
파이팅!!!

얼라리 2009.04.10 01:00

끝까지 지지합니다. 언론과 검찰과 재벌에 당당히 맞선던 역사상 유일한 대통령..... 양심이 있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대통령은 당신이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안종이 2009.04.10 01:16

걱정마세요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현명하며 지혜로운 국민들 많습니다.  
걱정마세요  
그저 그저 그저  
여사님과 대통령님 평안하셨으면합니다. \_(!)\_

4자후 2009.04.10 01:25

고통을 함께 하였습니다.

장성사야 2009.04.10 01:38

이 글에 추천이하고 싶어서 오늘 가입했습니다.  
속칭 노빠도 아니고 노사모도 아니고 관련글 어디에도 댓글하나달아 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오랜시간 팬인 한 국민입니다.  
투표도 못했고 재임하시던 기간 중 사년반동안 해외에 있었지만 내 나라의 내 대통령이 자랑스러웠던 한 국민입니다.  
퇴임하시던 날 간절히 서울역에서 함께하고 싶었던 한 국민입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 언론에 오르내려 심란하기 그지없습니다만 제가 만약 외국에서 이 기사들을 접했다면 당시 대통령님을 자랑스러워하던 그 똑같은 톤으로 제 지금 생각과 의견을 외국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을거라 믿습니다.  
외람되게도 대한민국국민으로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만 여전히 노전대통령님을 존경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richking80 2009.04.10 02:00

당신을 대통령으로 가졌던 행복했던 국민입니다. 유일하게 원망스러운건 정치 하시는 동안 국민들의 기대심리를 너무 높여놓으셨다는거 ---;;; 정말 요즘은 울화통이 터져서... 그래도 항상 께어있고 참여하겠습니다. 같은 실수 두번은 안해야죠 ㅎㅎ

으행행행 2009.04.10 02:00

오늘 첨 가입했습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쁩니다. 그리고, 정권의 부패를 빙산으로 빚대자면, 그야말로 노대통령님의 문제는 드러난, 빙산의 일각으로 그제 전부일뿐인데...(물론 제가 단정지을 문제는 아니지만, 과거의 정책이나 현 정책,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과 됴됨이 등을 비교할때)나머지 바닷속에서 가려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산들은 뽕뽕숨겨진 채(현 대통령과 여당들..), 그들은 희희낙낙을 노래하고 있다는게 말이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까지 병들어 있을줄 몰랐는데, 강자에겐 약하고 ..그야말로 약자에겐 강한.. 졸렬한 대한민국으로 점점 가고 있는것 같아서...정말..마음이 쓸쓸합니다.. 어떻게 언론탄압.. 뭐 이런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결국 전대통령까지 다 과내서 현재의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애쓰려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정말.... 은근한 공포를 느끼네요!!  
어쨌든,, 힘내시구여... 노통령님을 아끼는 ...대다수의 국민이 뒤에서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T.T

안사마야 2009.04.10 02:06

경기 교육감 선거에도 제 주변에 8명을 설득하고, 관심없는 동네아줌마도 울 마누라가 설득해서, 승리했습니다!  
노짱님!! 저 산에 있는 청솔이 퐁파리 몇마리들이 앵앵거린다고 혼들릴리야 있겠습니까?  
힘내십시오.  
4월29일 보선 승리로 소리없는 대다수가 이를 증명해 보일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노짱님~~~  
힘내십시오.

그럴일이야 없을것 같지만, 흑역사도 서울에 출두하시는 날에는 버선발로 님을 맞듯이 맞겠습니다^^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줄이 있으리~" 임니다요^^

joebblack 2009.04.10 02:07

힘드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믿는 지지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내세요  
권양숙여사님도 부디 힘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VanHalen 2009.04.10 02:41

같은 프레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프레임으로 대통령님께서 다치실까 걱정될 뿐입니다.

토마토 2009.04.10 02:51

이런 저런말 다 차치하고..  
만약.. 당신이 팔로로 배주를 쏘다고 하시면.. 바로 그것을 진리로 알것 입니다..  
이건.. 강요된 맹목적 믿음이 아닌.. 제 신념이니까요..

고단한 시간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날.. 웃는 모습으로 뵈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녹차 한 잔 2009.04.10 03:06

노대통령님 아시죠 저희들 마음 늘 저희 곁에 계시거죠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너무 감사하죠

노무현짱짱짱 2009.04.10 03:36

노대통령님,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너무 힘들어 마세요. 힘내세요!!!

바람새 2009.04.10 03:54

이왕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거 뭐가 두렵겠습니까...당당하게 출두하셔서 왜나라당을 박살내주시고 거짓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밑이 되어주세요.

봉알마을너구리 2009.04.10 03:58

어익후 노빠들 참 많네...범죄자에게 힘내라고 하는 대한민국 범죄추종집단...

bandiy 2009.04.10 05:04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임기간중 뇌물 100만달러 10억인가요 과연그럴까요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힘들때 친구가 천만원을 아무말도하지않고 빌려줍니다 그것도 이자도 못주는 나에게 차용증 없습니다 영수증도없습니다 또 한친구는 천오백 되는 카드빚을 보증서 줘줍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부자인것도 아니입다 단지 친구인것 뿐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단10원이라도 뇌물받으면 범죄자이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것같아 만일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것도 재임중이라면 과연 강남의 아파트 한채도 못사는 돈을 뇌물로

돈좀있으시분들은 그러겠죠 등신....  
정적들은 국민은 단돈만원이 없어 힘들어 하는데 그 엄청난 돈을 .....  
그러나 분명한것은 난  
노무현 전직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할수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존경할수있는 위인중 한분이라고  
노무현 형님 진심으로 존경 합니다(형님이란호칭이 무리했다면 용서하세요)

속봉길은 2009.04.10 06:01

노무현 대통령님...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시고 보여 주신분입니다.  
힘내세요..."잘못은 잘못이다" 맞는 말씀입니다.하지만 제생각은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합니다.누구에게나 허물은 있습니다.잘잘못을 밝히는것이 더 어렵습니다.과연 누가 지금까지 몇몇하게 밝혔을까요?  
힘내세요...평가는 지금이 아니라 역사가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하세요...꾸벅..

깊은 강 2009.04.10 06:46

다시 대통령님의 글을 읽으니 마음의 분이 좀 진정됩니다.  
그렇게 받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상황이 저를 울리고  
그보다 수백배 더한 일을 해놓고도 버젓이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치밀니다. 하늘이여, 대통령님을 도와주소서.

봉알마을너구리 2009.04.10 06:56

참별 미친놈들 많네.... ㅎㅎㅎ

진우로 2009.04.10 07:27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시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정말로  
사람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일은 절대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조사하면 진실이 나올테니까요.  
북한 미사일, 로켓, 위성, PSI, 미, 일, 을 등에 업은 자들(친미)  
세력들의 하는 꼬락서니 정말 확실히 보이네요.  
요 며칠전만해도 TV,스윗치 누르면 온통 북한 때려잡을듯하더니만  
이번엔 노무현 때려잡기에 온갖 마스크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혐의점이 없을듯 보이면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모든 마스크들이  
소리 소문없이 입 달아 버리겠지요.  
만약에 혐의점이 없음으로 판단 되어질경우  
이나라 모든 마스크들이 그동안 노무현 죽이기 뉴스 했을때보다 배로  
계속되어 1달동안 똑같은 사과문 뉴스로 내보낼까요?  
이건 아닐겁니다.  
참으로 2MB 대한민국 정부 인사들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철들던지요?

0708과도 2009.04.10 07:39

힘내세요.....노짱

인생이란무엇 2009.04.10 07:42

힘 을네세요.역대어느대통령보다 깨끗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저는 그렇게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무서운것이 남에게진 빚이테  
요 빚이얼마나 무서우면 빚진죄인 이라고 합니까.사람사는 세상 을 만들어주세요

그댄물랐어 2009.04.10 08:20

건강조심하세요.

끼리코 2009.04.10 08:26

사람을 가장 상하게 만드는 것이,  
가슴속에 차오르는 분노인데...

멀리서 느끼는 저도 이렇거늘  
또 얼마나 더 아프실까요...

노짱님과 권여사님,  
염치없는 말이지만

저희들을 위해서라도  
꼭 건강 지켜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bk200153 2009.04.10 08:36

늘 변함없이 항상 대통령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내외분 건강 꼭 지켜주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건강해 주십시오 염치는 없지만요

오징어25 2009.04.10 08:57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두분모두 건강하세요.

wlseh 2009.04.10 09:04

건강 잃지 마시고 꼭 함께 가슴 터지라고 웃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존경합니다.

더나은 세상 2009.04.10 09:06

당신이 신이 아닌 인간인 이상 그러한 실수는 있을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없었으면 완전한 인간이겠지만 세상에 완전한 인간이 있었습니까?  
누군들 그런일이 없었습니까?  
당신은 인간으로서 나쁘지 않았고 좋은점이 많습니다.  
99.9면 신에 가까운 점수라 부담 스러울까요.  
현재도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재물을 모으지 않고  
보통사람들과 늘 함께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  
이번일 잘 마무리 되어서 다시 그 모습 뵈수있길 간절히 기도 합니다.

줄줄시넷물 2009.04.10 09:10

네 글을읽고 보니 노간지님의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영원히 당신의 진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푸른산아 2009.04.10 09:10

하루빨리 뵈고싶고 근황도 궁금하지만, 조용히 기다리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맑은자연 2009.04.10 09:13

사랑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늘푸른인생 2009.04.10 09:45

참 기막힌 현실을 보는 심정입니다.  
반목과 갈등, 인류역사가 존속하는한 계속되겠지요  
그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작으나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평가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몇백억 풀려난 사람은 확보하고 구멍가게 방 훔쳐먹은 사람은 대단한 죄인  
인양 대대적인 홍보하는 그런 형국의 현실인것 같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 집행으로 힘 없는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 유죄란 현실을 실감하는 것이 지금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은 위한 검찰인지 아니면 권력의 하수인 인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공권력을 보노라면 씁쓸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말없는 다수는 지금의 현실을 알고 있으며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님!  
힘내십시오. 당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하실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인생사 정답은 없다지만 개인적으로 60평생 가까이 살아오면서  
노사모 회원은 아니지만 당신께서 살아오신 흔적에 대해 항상 지지하고  
마음으로나마 지지하고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인권 변호사로써 아니 5공 청문회 당시 그열정으로  
현실을 극복하시고 항상 건강 하시고 서민들의 희망이 되어 주실것을  
기대 합니다.

태영 2009.04.10 10:03

힘내시고 당당하게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지지합니다.

하동사람 2009.04.10 10:14

이명박과 그 딸마니들 자기 자신이나 잘해. 더러운 똥이 누구를 탓해,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 딸마니들 다 조사해도 도둑놈이고, 안해도 도둑놈이다.

하나동엄마 2009.04.10 10:25

네...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좋은결과를 기대합니다...

사또, 2009.04.10 10:33

힘들다고들 할때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당신은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 였습니다..힘내시길...

world4me 2009.04.10 10:49

대통령님~  
기운 내십시오.

대통령님 뒤에는 늘 변함없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장군계백 2009.04.10 10:50

이 위기가 저희 민주주의의 기회가 되는 일이 될거라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제 마음속의 대통령님...

hh99833 2009.04.10 10:51

너물현 고무신 준비해라 씨팔놈아!!!!!!!!!!!!!!!!!!!!

두리53 2009.04.10 10:54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곁에는 늘 변함없이 지지하고 성원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hh99833 2009.04.10 10:56

맹박이가 그랬다면 이해나 하지 관사까지 해먹은 새끼가 돼질려고 후~환장 했구나!!!!!! 씨팔놈 구치소가 좀 좁긴 하더라고..씨팔놈  
고생 좀 해라

hh99833 2009.04.10 10:57

마누라평계나 대고 니가 사람이냐? 너같은 꼴만이가 어떻게 통령했는지 모르겠다

들창코 2009.04.10 10:58

욕하면 욕먹구요. 위로하면 위로받으시구요. 국민들이 때리면 모두 받으실줄 압니다. 하지만 더 많은 비리를 일삼고 있는 자들이  
칼을 든다면 참지 말아주세요. 3억이든 10억이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이면 받으실줄압니다. 하지만 1000억대 10조대를 해 먹고  
있는 이들이 떠들다면 함께 부딪혀 주십시오. 맞지만 마시고, 아님 힘이없어 안될까요. 언론은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것이니까요.

hh99833 2009.04.10 11:00

김경준 동원 할때부터 알아왔다..넌 질이 안좋아 썩새끼!! 니가 명박이라면 기분이 어떻겠다? 석두자식 하드디스크는 뽀러가는 주  
제에..이런 도둑놈새끼..그게 왜 니 집에 있어야 하는데..이 홈페이지도 곧 사라지겠구나..씨팔놈아!!!!!!

다이덤돌 2009.04.10 11:01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듯  
주위를 정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아 꼭꼭 둘러쌓인 울타리에서  
벗어 나갈 부탁 드립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를 만드시려면.

들창코 2009.04.10 11:01

현직 시절 왜 대통령님의 담화문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들을 함부로(?) 하실수 밖에 없었던 심정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전달을 해도 저들과 다른 뜻으로 의견이 나오게 되면 왜곡되고 지들 맘대로 글을 조작한다는것을 아셨기에 대통령담화에서 그것도  
생방송에서 말씀을 막(?)하셨지요. 그때가 아니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시니까요. 이렇게 알아주는 국민도 있다는 것 아셨으면  
하구요. 힘내세요. 화이팅!!

들창코 2009.04.10 11:06

얼마를 받았건 그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손톱안의 때도 안되는 것인데 이렇게 썩어썩어 썩썩는 모습이 그동안 노짱이라며 따  
라 다니는 저희들이 못마땅했던 탓일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홈페이지 없게 되면 저들은 깊은 굴속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겁  
니다. 안봐도 비디오지요. 그러니 힘내시고 굳건히 지켜내십시오. 10억이든 3억이든 저들에 비하면... 아시죠? 힘내세요.

들창코 2009.04.10 11:09

장자연 자살뒤 이야기가 쟁기긴 하나봅니다.청와대가 실록거리니 맞불을 놓은게지요.

hh99833 2009.04.10 11:09

이놈이 얼마나 웃긴놈이냐면 대선전에 김정일 만난것..솔직히 이명박이 무서워서 그런거 아냐? 씨팔놈아!!!! 이새끼 대갈이 너무 영  
악해서 문제야..생긴건 너구리같이 생겨가지고..넌 어찌 맨날 티비 나오고 지랄병이냐? 내가 밥을 먹을수가 없잖아!!!!!! 씨팔놈  
아!!!!!!!

안드로메다 빠박 2009.04.10 11:09

힘내세요.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우울했었는데 당당히 정면돌파 하시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건강하세요.

주화니엄마 2009.04.10 11:11

언제고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한결같은 마음이 대통령님께 희망과 용기를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행동할  
수 있도록 어느쪽으로도든 함께하겠습니다

hh99833 2009.04.10 11:14

노짱은 얼어죽을 돈짱!!!!!!

hh99833 2009.04.10 11:16

하어간 노씨는 안된단 말야.이놈이 노태우한테 배웠어..넌 명패 달 던지니 야구나 해라!!!!!!

주화니엄마 2009.04.10 11:17

hh99833 이아자씨 왜 자꾸 혼자 짊어대요..? 누가 듣지도 안고 있구만 ..발악을 하시네..저러다 숨 넘어가면 어찌실려구..ㅋㅋ

노짱돌아와요 2009.04.10 11:17

힘내세요~  
당신을 믿습니다.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장자연리스트가 무섭긴 무섭나보네요..  
쫓선일보..가 그리도 보호해야할 대상인지..ㅠ  
힘내세요~~

둘리0812 2009.04.10 11:20

부탁하신 대로 행동합니다.

모쪼드 2009.04.10 11:26

따뜻한 봄이 오면...님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지난 추운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구조조정이니..정리해고니...경기악화니...잡아야할 환율을 내뺏겨쳐서 국가경제를 더욱더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명석하신 분들은 사과하지도 않는데...이런 어려움 속에서도님을 볼 수 있을 거란 바람하나로 잘 견디었는데...옛 사람 말처럼 추운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조만간 맑게 웃으시는님을 다시 볼 수 있겠지요...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건강하세요..

하노이 2009.04.10 11:30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싱그런 2009.04.10 11:51

힘내십시오,끝없이 부는 바람은 없습니다  
풍파 헤쳐나가고 힘 내세요  
당신을 지지합니다(쭈~속)

카멜레온™ 2009.04.10 11:55

信  
당신에 대한 저의 신념은  
썩일지언정 휘어지지 않으며,  
부러질지언정 구부리지 않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권황소 2009.04.10 12:21

님은 항상 가야되는 방향을 알고 갑니다. 때론 뒤로가고 쉬어가고 옆으로도 가셨겠지요. 사람이 가는길은 총알이 가는길이란 다 른거지요. 누구도 예외일수 없다고 봅니다. 헌정부 미래의정부까지도 저는 방향은 알고 가는 그런 정치인이 치세하길 바랄뿐입니 다.

등글레 2009.04.10 12:23

아무 것도 변한건 없습니다. 저녁에 졸음이 와 잠드는 것도 아음이 아픔니다,,,두분은,,잠도 못이루실텐데,,아무것도,,우리의 사랑 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늘,,한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황하의 굽이치는 강줄기를 말씀 하셨죠,,? 끊어질듯 끊어질 듯 흘러도 결국은 바다로 간다고,,꼭 가야할 곳으로 간다고,,그날,,두분의 따뜻한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늘,,사랑합니다. 잘 주무시 고,,밥도 꼭 챙겨주세요,,

수석교위 2009.04.10 12:43

대가성없이 오가는 돈이 꺾이면 저는 유니세프 정기기부를 중단해야할것 같습니다. 돈을 받아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내용은 없고 강금회 회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서민을 도왔고 대통령을 도운것이 왜 죄가 되느냐는 질문이 문득 생각납니다.

강경 2009.04.10 12:44

힘내세요.  
끝까지 노사모로 남겠습니다.  
남께서 주신 가치의 소중함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님의 인간적 실수나 소홀함으로 인한 혼돈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처럼 님을 신으로서 내 마음에 맞지 않았기에 저 또한 님의 어려움에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떨롱 2009.04.10 12:46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잘못은 잘못인거죠.  
옹호하든, 비판하든, 모두 선생님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니  
너무 마음아파 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길바랄게요~!

^..^ 2009.04.10 12:50

전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화이팅!!! 기운내세요.이럴때 일수록 끼니 잘챙겨주세요.

drama 2009.04.10 12:51

설령, 잘못이 아닐지라도 잘못이라 말씀하시고, 사과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에 더 큰 존경심을 포함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맥스문 2009.04.10 12:52

진실이 대한국민 국민들에게 지금은 전해지지 않더라도...  
아니 영원히 알려지지 않더라도 진실과 오해가 섞여서 알려지더라도...  
모함과 왜곡으로 알려지더라도...  
혹은 진짜 비자금이니 하는 모든것이 진실이더라도..  
노통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sumi51 2009.04.10 13:05

노대통령을 알게되면서 그를 사랑하지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허물이 발견되어도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더군요. 사랑이란 맹목적이기도 한것은 사실입니 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9가지의 선물을 기억합니다.  
한가지때문에 그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노무현만한 사람이 흔치않은 세상입니다.  
퇴임후 저는 노정님으로 인해 무진장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토디 2009.04.10 13:07

전 대통령이나 정치인이아닌 노무현 당신을 사랑합니다... 황이팅~

별이★ 2009.04.10 13:09



요즘엔 하루가 멀다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런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신경써주세요. 항상 뒤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햇감자 2009.04.10 13:14

눈이 올때는 눈을 쓸지마라고 했는지요?  
춘삼월 맑은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엄동철한 삭풍이 불어오는 추운겨울도 견디어낸 우리입니다.  
이정도 눈발쯤은 능히 이겨낼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권양숙여사님! 사노라면 당연히 허물이 있고,  
그것을 툭툭털수있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할말이 많지만, 이 시점에서는 차분히 눈을 맞고 담대히 걸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인원 2009.04.10 13:28

정상문 천 청와대총무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네요.  
그런 이를 소환도 아니고 기자들을 이끌고 자택으로 가서 강제로 긴급체포를 하다니요.  
참 해도 너무합니다.  
노대통령님께 압력을 가하겠다는 알팍한 처세입니다.  
올해가 기축년(己丑年)인데, '기축사화, 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연산군 10년 기묘년때, 연산군이 홍청망청하다 재정이 궁핍해지자 대신들을  
살육하고 재산을 적몰한 사건에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후니어멈 2009.04.10 13:33

노짱님!  
잘잘못이 밝혀져 벌을 받아야한다면 겸허히 받아야겠죠...  
그보다 두분 힘든이시간 잘견뎌내시길 바랄뿐입니다...  
건강 해치지않게 조심하시구요....  
진정한벗이란 늘 같은자리에서 변치않고 함께하는것 아시죠!!!  
언제나 진정한벗이 되어드릴게요!!!!  
힘내세요!!!!

인원 2009.04.10 13:34

그리고, 검찰이 박연차가 하는 말을 그대로 언론에 전달하고 조중동은 받아적어 보도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박연차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어찌지요? 또한 박연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부풀려서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것이라면 어찌지요. 검찰은 지금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명백한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선 사장 개입 의혹이 있는 성접대 사건은 그 도록 명예문제에 신경을 쓰면서 말이죠. 답답합니다.

조선...노통 걱정 하지 말고 너희 사장 아랫도리나 걱정해라.  
아래 위로 하는 것이 그러니 한때 '쫄선'이라고 불리우지 않았니.

노짱 2009.04.10 13:43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 아침에 유지하고 추잡해 지는 지 불가사의하군요. 그나마 노짱님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철이 덜 든 아이들 재통이라 여기시고 건강하십시오. ^^

이런치졸한사람들 2009.04.10 13:49

노사모 이 골수분자들아  
답답하다 정말  
이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 그러기도 아깝다  
오늘부로 뉴스에서  
노씨,노무현씨 라고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니 청렴하다니 뭐니  
캐샷디만  
이게 뭐야 이젠 실망을 넘어서  
추접스럽다  
이왕 이렇게된거 모든 사실을 불었으면 좋겠다

보리차 2009.04.10 14:01

노무현 대통령 500만 달러 받아서 어디다 썼어요?  
모두들 삼성이 나라를 쥐흔든다 생각했는데  
삼성은 순수한 피해자였군요. 겨우 500만달러 가지고...

삼단머리 2009.04.10 14:35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민우 2009.04.10 15:44

마음만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넘이짱이에음 2009.04.10 15:59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 하나도 생각이 안나요  
저 뉴스보다가 너무 화나서 가입했어  
잘못은 잘못이지만 지깃 더러운줄게들이 노짱님께 저러니까 너무 화가나요  
힘내세요.....

청곡 2009.04.10 16:04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냉이 2009.04.10 16:10

건강하시고... 진실을 밝혀줍니다.

노짱!! 힘내십시오~~

지은영 2009.04.10 16:17

늘~~ 지지합니다.어떤 마음인지도 잘 압니다.  
어제 김영삼이 나와서 헛소리를 하더군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참으로 웃기는 세상입니다. 늘 지지합니다^^\* 누가 뭐래도...

살무도 2009.04.10 16:24

결국 당신이 옳다면..역사가 명명백백 판가름을 해줄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운내시길..

안티조중동 2009.04.10 16:28

건강하십시오!!전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내일은 희망 2009.04.10 16:46

항상 마음속으로만 응원을 보냅니다.  
여기에 올린 노짱님을 향한 무수한 지지의 메세지가 오히려 그들에게 칼날을 세우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는건 아닌지...  
이젠 표현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짝사랑만 해야 될거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규슬 2009.04.10 16:51

사랑하는 대통령님 힘내세요..건강 꼭 챙기시고 걱정되네요 정말..애휴..늘 믿고 지지합니다.조금만 참으세요 다 해결 될거예요. 힘내세요 대통령님

계란 2009.04.10 17:02

노무현대통령님!  
아까 사진속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지만 아파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네여 T.T  
당신도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에 이전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에겐 당신만이 대통령님이십니다.  
힘내십시오!!!

당등역원 2009.04.10 17:08

힘내세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pio22 2009.04.10 17:25

응원하는 이들을 잊지 마시고 힘 내세요.  
큰 오해와 비난의 요지가 많아서 마음고생할게 보여도 당당히 솔직함을 보이는 당신의 모습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주기 2009.04.10 17:52

제가 아는 유일한 어른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존경하구요.  
부디 건강하게 우리곁에 있어주세요.

바다사랑 2009.04.10 17:55

언제나 함께...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내마음 2009.04.10 18:18

요즘 내마음 ㄴ ㅈ 마음이 아납니다..건강 하셔야 합니다

나무! 2009.04.10 18:21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산골아이 2009.04.10 19:05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노짱님을 믿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건강조심하십시오!!

오유지족 2009.04.10 19:26

노짱님  
수사 지시하신 것, 미리 발표하신 것,  
또 앞으로 하실 일, ...  
모두 모두 잘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사님께 위로가 되어 주세요.  
저도 그럴게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라도 노짱 부부님 지지합니다.  
아들이 7월이면 군에 가려해요.  
나라는 제 아들이 지키고 두 분은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힘 모아 지켜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요.  
이럴수록 매일 매일 주먹 꼭 쥐고 한 번씩 웃기로해요. ^^ ~~~  
-!-

야기분종다 2009.04.10 19:52

영원히 지지합니다.  
무조건 지지합니다.  
팔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습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의연하게, 당당하게, 멋있게!!!

초보산꾼 2009.04.10 19:52

힘내십시오. 이 말씀 해드리려고 2002년 이후 다시 노하우에 가입했습니다.

ruffy 2009.04.10 20:12

이상도 있고 현실도 있지만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하기에 최소한의 타협을 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봅니다. 변하지 않는 주위 환경이 노대통령을 어떠한 상황으로 몰고 갔었지만 노대통령께서 최선의 최적의 선택을 그 때 당시에 하셨으리라 믿고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을 보냅니다. 그러하시다면 눈보라가 칠때 꺾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지나가기를 의연하신 모습으로 힘들지만 기다리심이 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위로, 힘이 되어드리지 못함이 송구합니다. 승리하는 의를 생각합니다.

요일 2009.04.10 20:20

믿기에 떨리서 보고 있습니다.  
힘이 필요하실때 나누겠습니다.

씩주 2009.04.10 20:29

마음에 붉은 언젠가 오겠지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런게 전직대통령에 예의입니까??

"잘못한것은 잘못한거다"

말씀 가슴으로 세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건강하십시오....

0708과도 2009.04.10 20:32

힘내세요.....^^~

청백선생 2009.04.10 20:33

반전의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말없는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바보김씨 2009.04.10 20:38

저의 자식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모나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싶었는데...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이라는 것 또한 오고가는 계절속에서 거짓이 되고 다시 진실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래요 어찌되었건 건강하십시오.

반도 2009.04.10 20:58

잘못은 잘못이다. 참 의미있으신 말씀이신거 같네요. 우리사회 원칙과 정의가 무엇인지 좀보여주세요. 건국이래에 독립군 후손은 펄 박 받고 친일파 후손은 지금도 땅땅거리고 권력부리며 잘살고 이권아니잖아요///

빅헤드 2009.04.10 21:12

힘내세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송이송이 2009.04.10 21:17

넵... 님의 글에선 상식의 냄새가 나네요. 상식이 통하는 글을 보니 참 낯섭니다. 다시 기분을 돌아보게 하시네요. 항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가 일상화된 사회 말구요... 오늘 대학생 식발식에서 불법 집회라며 연행했다지요... 또 한 번 포기하게 되네요...

이석규 2009.04.10 21:26

존경하는 대통령님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몽중몽인 2009.04.10 21:34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한나라의 치술한 술수로 밖에 안보입니다.

당당하게 대처하시고 힘내십시오....뒤에는 묵묵히 지지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Marine Boy 2009.04.10 21:51

우리는 많은 연으로 이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과 정경유착의 연, 관경유착의 연 등 온갖 연으로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연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위해서는 출가하여 수도자의 길을 가야할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일들을 계기로 교훈을 삼을 때 발 전해 갈 것입니다. 역사발전과 국가 관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결국은 교육이 바로서야 할 것입니다. 인재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만드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안된 인재가 더 큰 부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람됨이 될 때 인재가 아니라도 사람은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이어져 있는 연과 연 속에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잘못된 연은 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람사는 세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할 길입니다.

진우로 2009.04.10 22:06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절대 국민에게 죄를 짓거나 배반하거나  
하실분 아닐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하신분들중 유일하게 생각을 알리시고 국민이 언제라도 와준다면 언제라도 가까이에서 만나 주셨습니

다.  
당당하지 못한자라면 숨어서 살아야겠지요?  
이번사건 명쾌하게 허물 벗어 던지고 다음달부터는 더욱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임 대통령되시어 전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진우로 2009.04.10 22:06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절대 국민에게 죄를 짓거나 배반하거나 하실분 아닐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하신분들중 유일하게 생각을 알리시고 국민이 언제라도 와준다면 언제라도 가까이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당당하지 못한자라면 숨어서 살아야겠지요?  
이번사건 명쾌하게 허물 벗어 던지고 다음달부터는 더욱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임 대통령되시어 전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웃는돌 2009.04.10 22:07

힘내세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언제나 진지 2009.04.10 22:53

무슨말이 필요하신건지 모르지만요 ...  
힘을 내어주셨으면 해요 행복과진실이 노무현대통령님을 바라보며 웃고있을거예요 .....

진실이승리하길 2009.04.10 22:58

무엇으로 위로를 해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하나 하나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심정으로는 꽤지 지금통이라도 하나 채워서 봉하마을 집앞에 놓고 오고 싶습니다만 참아야겠지요...참겠습니다. ㅠ.ㅠ

바른생활 2009.04.10 23:03

불혹의 나이가 되어 진정으로 존경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처지 어려워도 나보다는 항상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 가식이 아닌 진정으로 느껴집니다.  
상식이 통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chioccia 2009.04.10 23:07

노무현대통령님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끝까지 견뎌주세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세상의 빛 2009.04.10 23:18

아~ 눈물나네... 노무현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chlgndmltmdflwk 2009.04.10 23:18

계속이 다 타들어갑니다. 당사자아닌 제가 이럴진대 대통령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노라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hoonjang 2009.04.10 23:37

믿습니다. 모쪼록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평가는 길구요. 이제 3년반만 참으시면 되겠네요.

회계사 2009.04.10 23:40

장자연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수작입니다!!!!!!!!!!!!!! 제발요..ㄷㄷ

하루종일 공부도 안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한줄기 2009.04.11 00:05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진정한 대통령이십니다  
작금의 상황은 민주주의를 퇴색하면서 자신의 배만 불릴려는 한갖 잡배들의 소행이라 생각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이겨주셨으면합니다

노-권 LOVE 2009.04.11 00:21

대통령님 내외분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 많은 댓글들을 보시고 힘을 분돋으셨으면 합니다. 잘 이겨내시리라 믿구요, 많은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곁에 있다는것을 잊지마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american 2009.04.11 00:25

진일과 앞잡이 수구 타락한 보수세력 .. 요즘 신났구료. 요즘 장자연이 물타기 작전에 요상하게 노대통령 일가를 끌어 들여서 보면 할러구 하는 워선의 물밑작전이라는 생각이 내 개인적인 생각에 그치길 바랍니다. 노대통령 관련사건은 일사천리 장자연이 관련사건은 수개월체 어영부영 ~ 참 이해가 안되는 대한민국 검찰....

낭만주영 2009.04.11 00:32

건강하세요 저는 언제나그랬듯 노쟁님을 존경합니다

명선 2009.04.11 00:33

봉황의 뜻을 참새가 어찌 알겠습니까...  
봉황을 치운 청기와집의...

루니1 2009.04.11 00:33

그러게 탄핵 했을때 조용히 내려오시지 그러셨어요~~  
한나라도 그렇지만 어찌 온가족이 다 그러시는지..  
세상 부끄럽지 않습니까?

0708과도 2009.04.11 00:35

우와,,길다,,댓글달기 힘드넹...^^~

노무현맨 2009.04.11 00:55

전 당신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내가 살고있는 시대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대표로서 당신은 충분합니다.

유치한 이야기이지만 기죽지 마세요.  
당신의 곁엔 그리고 뒤편 우리가 있습니다.

푸른소나무@ 2009.04.11 01:12

대통령님 ...힘내세요.. 끝까지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제 삶의 지표이자 희망입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하얀민족 2009.04.11 02:28

노짱님 아무일도 아닌걸 가지고... 근심 놓으시고 건강 챙기세요  
여사님두요 ...저도 걱정 안할랍니다 다 미쳐가는 겁네요 처음부터 미치는가 싶더니 끝까지 그렇게 살라는 겁네요 국민은 뒤로하고  
...저들만 미쳤어요

이끼 2009.04.11 02:40

노짱님!! 끝까지 함께 할게요!!!!

은어 2009.04.11 02:52

세상이 약간(???)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십시오..

코리도라스 2009.04.11 03:24

힘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날아라곰탱이 2009.04.11 03:40

노짱님이 올리신 글의 뜻을 알게 같네요...평심 하겠습니다^^...노짱님 내외분 건강 조심하시고요...노짱님 보좌 하시는 분들도 노짱  
님 보좌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며...노짱님 내외분 및 보좌 하시는 분들 파이팅...곰탱이 ㅇㅇ

harmony 2009.04.11 05:27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게 참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나의 변화에 의해 변화해 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뜻을 모을 수 있는 님이 있어 다행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  
우리는 진보하는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있으므로..  
우리는 그 주인공이므로...  
더불어 앞으로 가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맑은가람 2009.04.11 06:05

))°. ☆  
(.)☆°. ☆ 존경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づ♡☆

글로번호구킬 2009.04.11 06:24

당신의 진심과 정직함을 의심해 본적 한번도 없습니다.  
이 시대 단 한분 존경 받을 만한 분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 뒤에 저희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무현님 사랑합니다~~~

hanabi 2009.04.11 08:01

고결하신 분 모진 바람이 불어도 꺾끗한 고결한 난 같은 분  
글을 읽으면서 감복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김진아 2009.04.11 08:33

지금 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마음만이라도 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내 모든 염원을 담아 당신께 보냅니다.  
힘내십시오.  
나의 대통령.

늬은이 2009.04.11 08:57

노공이산.. 내 머지않아 저승 갈꺼같은데 거기 가서도  
당신을 응원 할테니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해 싸우십시오..

꿈지기 2009.04.11 10:14

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님! 사람이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의도겠지요. 힘내십시오. 파이팅!!!

릭이 2009.04.11 10:15

힘내세요 !!!

인원 2009.04.11 10:41

30억 먹은 늬은 왜 안 까발리는거야? 현직 명박이 오른팔이라서 그런가. 시방새들 엄청 좋아하네... 권력에 빌붙어 사는 세이들.. 강자  
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늘 그렇지 너들은... 전직 노통 후원자는 모조리 잡아넣고 현직 명박이 후원자는 조사도 안하고... 이게  
어째서 엄정이나? 무식한 세이들..

아줌마 2009.04.11 11:00

약자의 편에 서신 죄로 이렇게 꺾박을 당하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부디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바늘 2009.04.11 12:13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건강 챙기시고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때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바탕웃음 2009.04.11 12:17

저희는 노짱님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님께서도 저희가 있어 마음이 든든하시길 기원합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어떤한일이 생긴다하더라도 지지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건강 잃지 마시구요 사랑합니다.

사랑의 기쁨 2009.04.11 12:20

첨엔님.. 하지만 생각했어??? 이견 아니다.. 친구 힘들때 같이 있어준 친구가 진짜 친구가 진짜 친구란걸 알고 있습니다!!!마니힘 드시죠?여사님이 넘힘드시 겠죠? 항상 같있을께요~~~힘내세요!!! 사랑해요 그놈 빼고 전부사랑합니다

사랑의 기쁨 2009.04.11 12:39

루니1 가라 씨~~~~정말짱난다 ...아주죽여라!!! ㅎㅎㅎ 씨바 힘든사람아주 죽여라??? 난골수분자도 아니다... 하지만넘하잔아!!!조중 동은 끝까지 살거다..한나라???말은존내...진짜 한나랄까??? 공화국이 나올거야!!!그죠!!!!!!

0708과도 2009.04.11 13:14

^^다들 주말 잘보내세여..

내이상형노무현 2009.04.11 13:18

대통령님 힘내세요....정말 탄나라가 4년뒤 의석수를 하나도 차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정말 탄나라 인간들 꼴보기 싫어요.....

woomoney 2009.04.11 13:57

슬프다...슬프다...

개시사 2009.04.11 14:05

힘내시고 기다려보시지요?!

대광명 2009.04.11 14:05

인간은 영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수순한 동물이지요.  
그러나 그 영적기능을 잘못 사용하면 인류 전체가 파멸이지요.  
특히나 지도자 한사람의 잘못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이지요.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결실해집니다^^

영적기능을 잘못사용하면 동물보다 못한법입니다.  
적어도 동물은 자기 배부르면 더이상 쌓아놓지는 않으니깐요.  
가지고 가지고 또가져도 가지고만 싶은 기득권세력들..  
정말 사자나 하이어나 보다 못한 동물이지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부부님.. 신경쓰지 마시고 마음 비우시고 기다리세요..

아름다운 나라 2009.04.11 14:06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나무를 흔든다고 합니다.  
바람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렵니다.  
힘내세요~~~☺

그냥아이 2009.04.11 14:15

힘내세요..  
신문과 매체에 쫓대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볼때면 참 안타깝습니다.  
노대통령 아드님이나 따님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실까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 생각하는 것처럼 딸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mclee 2009.04.11 14:16

사과문을 처음 봤을때는 놀라움과 실망감이 교차했었는데...  
노짱님의 진실됨이 더 노짱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

지금의 이 힘든 시간 감내하시면서, 건강하시고 기운 잃지 마세요.

\* 남자인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남자한테 하기는 처음인것 같습니다. ^^



정치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만큼 깨끗하게 하신 분이 있을까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노무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것입니다.  
부디 현면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에 탓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당당하게 해체나사시기를 맞습니다..

아우르기 2009.04.12 00:43

늘 감사합니다. 버티고 나갈 힘을 주시는 님....  
항상 건강하세요.

0708과도 2009.04.12 02:21

힘내시고.....건강하세요...

지후맘77 2009.04.12 03:16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전 그냥 아기 키우는 평범한 주부인데..  
육아도 살림도 뒷전이고 잘 보지 않던 뉴스도 인터넷 기사도 열심히 뒤져가며  
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잠도 거르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 아들에게 커서도 노통님처럼 자라라고 말해주고 싶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국민들이 마음이 권력함에 결코 뒤지지 않을꺼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이올렛 2009.04.12 11:42

로그인하지 않고 가끔 찾아오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그냥 지나칠수가 없어서 아주 오랜만에 로그인하고 글을 남깁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노짱님을 믿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언젠가는... 모두 밝혀지겠죠... 그리고 더욱 더 당신을 존경하게 될것입니다.  
당신의 뒤에 서있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꼭 힘내세요..

사람사는세상2 2009.04.12 11:47

힘내시고...늘 건강하세요.

결국, 진실은 하나입니다.

다시일어서리 2009.04.12 12:17

그대가 나를 싫어 할 지라도 당신은 나의 등불 그리고 희망  
비통한 이 마음 당신께 전할 길 없어 이렇게 마음만 애태우고 있지만,  
당신때문에 감격의 눈물 흘릴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때문에 희망을 품고 사는 저에게 당신은 언제나 희망이자 등불입니다.  
오늘 부활절 당신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그대 다시 일어서소서.

우듬지 2009.04.12 13:17

대통령님  
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내시고 언젠가는  
완하게 웃으며 만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건강하세요.

호락별 2009.04.12 13:29

글을 보고 참고 지켜 보고 있지만 해도 검찰이 너무 한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질리게 하는 저들의 행태를 노짱님의 말씀을 듣고  
자 참고 묵묵히 있는 힘 없는 국민의 한 사람인 저 자신에게 회의가 듭니다.  
아무쪼록 노짱님, 권 여사님. 건강하시길 멀리서 바랄 뿐 입니다.  
건강하십시오....꾸벅~

햇감자 2009.04.12 14:02

할말이 목구멍위까지 차오르지만 꾸~옥~ 누르고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함박눈이 내리는데 눈을 쓸어 무엇할까요?  
내일을 위해 긴호흡으로 숨길을 가다듬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봉하마을 화이팅입니다!

적광 2009.04.12 14:04

가슴이 너무 아립니다.  
모두가 님을 사랑한 죄 이겠지요.

차기 2009.04.12 14:46

네....그마음 알겠습니다. 저도 멀리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타렌와이프 2009.04.12 14:56

항상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유시민님과 같은자리에서 토론하는 모습 보는게 제 소원입니다 ^^  
노통님이 무서운모양입니다 저들은 정말 치사하단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ㅎㅎ 집권한지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소모적인 논  
쟁을 계속하는 저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너무나 의심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노통님이 계시단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마 2009.04.12 15:56

여기 와서 답답한 맘 해소하고 갑니다...대한민국의 평범한 아줌마가 그래도 맘 한켠에 설레발치고 있는 취돌이가 안타까워 보였던  
건 대통령 노무현님이 계셨기에 안심했습니다...너무나 대조되는 것거리에 경상도빠인 울부모님도 맘을 돌리셨습니다.



대투 2009.04.12 16:08

오늘은 부활절!  
이 모든 소동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것입니다.  
내가 믿는 부활의 예수님처럼,  
노짱님의 나라사랑 하는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밝혀 질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레 옷자 2009.04.12 16:40

대통령님 저희는 편들려는게 아닙니다...어려운 시간들을 꿋꿋히 이겨 오신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대통령님 허물이 감  
추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경합니다.

바느질쟁이 2009.04.12 19:33

그래서 돈은 필요합니다. 모아야죠.노무현 대통령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 투사들을 위해서...  
조용한 내조와 구실이 필요하다는것을 이번 일로 더욱 느낍니다.

현명한 시민 2009.04.12 22:21

언제나 항상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대통령은 노무현님뿐입니다. 이명박 이놈이 나쁜놈입니다 !!! 이명박은 전과 수없이 많으면  
서도 대통령됐습니다 퇴임하면 두고 보겠습니다

맑은하늘이야기 2009.04.12 22:36

힘내세요~ 노짱님!  
화이팅 화이팅!!!

바람새 2009.04.12 23:20

언제나 진실은 승리합니다....건강하세요

OO천사씨니OO 2009.04.13 01:55

작은 빛은 큰 어둠을 이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사랑무현씨 2009.04.13 09:49

어려움 잘 이겨 내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을 비난하는 말들이 듣기싫지만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악의무리에서 벗어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존경합니다.

민.혁맘 2009.04.13 11:12

이럴때일수록 대통령님 내외분 건강 꼭 챙기세요.  
이 말도 안되는 시련을 꼭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김태우 2009.04.13 11:30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항상 건강 챙  
기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내통령 2009.04.13 11:50

따뜻한 햇살이 대한민국을 비추면 꼭 만나 주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노대통령님민음 2009.04.13 11:53

역시...인물은 인물이지구나 하는 생각...진정한 대통령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꺾송합니다...

한우리1 2009.04.13 12:18

힘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진속에담긴세상 2009.04.13 12:32

진실은 진실이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다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을 좌절케하는 놈들이 잘못된게지요!! 그럴수록 더욱  
더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좀 우스운 모양새지만 순진하여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을 위하여 진실은 밝혀지길 바랍니  
다.....

구정봉 2009.04.13 13:10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기쁨드림 2009.04.13 14:03

노짱님,대통령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전해져와 가슴 저리게 합니다. 힘내시구요. 늘 건강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치않을하늘 2009.04.13 14:08

맞습니다 맞고요~ ㅎㅎ 힘내세요!!!!  
글구요 흠피 운영자님들 상대편글 삭제하나요? 삭제 없기를 진실은 진실이어만 합니다 거짓을 진실로 덮으려면 앞되지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노통팬 2009.04.13 16:19

노무현,,이름석자만 들어도,,눈물부터 납니다,,  
당신을 지켜드리지 못해,,항상 미안하고,,항상 당신과,,함께,,갈것입니다  
소신과 원칙을 고수한,,당신,,눈물겹도록,,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화이팅노무현 2009.04.13 16:32

힘내십시오.  
진실은 진실로 밝혀집니다. 힘내십시오!

행복한나귀 2009.04.13 19:53

난 믿을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해도  
진실하심을 믿을것입니다.  
밤이 보약입니다. 잘드셔야 싸울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을보면 알수 있듯이 말을 들어보면 알수 있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눈과말은 진실 그자체 이기에 믿고 또 믿습니다..

언제나짱가 2009.04.13 20:19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항상 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미스타르미스타 2009.04.13 21:38

받은 돈 1/10만 대가없이 누가 좀 받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던데...그 사람 너무 힘든 사람.. 빛도 있는데 어디서 꾸울테도 없어요.....딱해

Lousalome 2009.04.14 01:35

ஊ피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가입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 사건 덕분에 가입을 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어서요..  
힘내세요...  
유일하게 존경하는 대통령이십니다.  
반드시 강건하게 서있어주셔야 합니다.

지라프4 2009.04.14 03:37

대통령님 늘 옆에 있겠습니다.

믿는다니칸 2009.04.14 07:26

진실은 꼭 밝혀집니다.. 힘내세요.

금호어울림 2009.04.14 11:31

기운내세요.  
훗날 모든 평가가 이루어질겁니다.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꽃등 2009.04.14 12:19

존경받는 대통령의 시기와 질투가 너무 심합니다. 힘내시고 잘 이겨내세요.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이 함께함을 잊지마시고요

에스티리 2009.04.14 14:24

당행스럽군요~~~ 저님들이 어떻게 나온다고 하여도 노짱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중 그대로 이실겁니다. 힘내세요~~~

한문선생 2009.04.14 15:40

노건대통령님  
하살 말씀이 많으실 겠지요....  
하나님은 노건대통령님의 마음을 아실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려는 국민들이 노건대통령님의 진심을 이해 하실 것입니다.....

노무현(존경) 2009.04.14 16:07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항상 건강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전 믿습니다. 그리고 윗분들 말씀대로 대통령님 곁에 늘 있겠습니다.

바람이키운꽃 2009.04.14 16:50

힘내세요. 언제나처럼 다시 일어서 주실걸 믿고 있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늘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기야 2009.04.14 18:43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 이 정부가 아무리 흠집내려해도... 꼭 이겨내십시오

하늘미소 2009.04.14 18:45

노무현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자전거타고 2009.04.14 19:19

대통령 증임제 되는 그날까지 우리 의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시거리 2009.04.14 21:07

힘이 많이 드시리라 믿습니다..전 대통령님을 믿기에 제마음을 달래기가 힘이 듭니다..잘못은 잘못 쪽이란.. 있을수 없는 말씀입니다..노짱님 힘내세요..영원한 믿음입니다..

10가지법칙 2009.04.14 23:15

힘내세요.

지우엄마 2009.04.14 23:47

힘내세요~ 걱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후애 2009.04.15 00:26

힘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junchulliuce 2009.04.15 01:20

힘내십시오 노대통령님!  
현재의 상황이 진실이든 아니든간에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꼭심있으시길요.

Anti-Rat 2009.04.15 07:38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합니다!

대도오2 2009.04.15 10:19

강하게 나가십시오.  
저들은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니깐요.  
약한 모습 보이면 무슨것을 할지 모릅니다.  
옥쇄의 심정으로 나가면 이기고 살려고 하면 박연차처럼 됩니다.

lsw0327 2009.04.15 10:54

대통령님 눈물나도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다르미 2009.04.15 12:53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대통령님을 이런 상황으로 모는 사람들 <너나 잘 하세요> 꼭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삼신산태제 2009.04.15 14:24

노무현 대통령님 화이팅하세요. 추악한 권력에 절대 의기소침 해선 안됩니다. 백성대의 민주주의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급한 탐욕종들이 음모가 어찌 하느냐 그 저급한 영혼들을 숙여낼 수 있겠습니까. 이 추악한 종자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늘을 역전한 세세생생의 지옥불 인과응보는 절대 피해 갈수없다는 우주법도 절대질서를 망각하는 죄악을 짓는 것이죠. 백성의 머슴들인 국가권력은, 정의롭고 정당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추악한 음모라는데 추악하기가 그지 없어요.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천상의 아들입니다. 이 영원한 천상대의를 신뢰하십시오.

하늘향기 2009.04.15 18:32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나눔이 2009.04.16 09:44

저희 잘못입니다..대통령님 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심에 그저 그 그늘을 즐길 줄만 알았지 지키고 가꾸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가꾸고 지켜 내겠습니다..힘내시고 건강하세요~영원한 우리의 대통령~^^\*

버라이어티 2009.04.16 17:52

돈짱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ehdgr 2009.04.16 21:01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놈들이 저리 설쳐대고있는데...이겨야합니다. MB 정권 그들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수천억원씩 차떼기를 해쳐먹은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우리들의 마음엔 노무현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빨떡별 2009.04.16 23:45

제 삶은 힘들지만,  
당신을 보면서 항상 위안과 희망을 얻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의 응원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서 행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칠짱 2009.04.18 08:39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하길 원 하지만, 사람이기에 그럴 순 없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저 같은 사람도, 인터넷이나 찌라시들 보면 정말로 대통령이 정말 뭔가 크게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저는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조중동 계열들에 찌라시들 정말 제대로 매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힘내시고, 저도 대통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설령 다 밝힐 수 없는 이유와 사연이 있더라도, 저는 대통령님을 믿을 거고 영원히 존경 할 겁니다.  
이유는 대통령님에 철학을 다 알지는 못해도, 아주 조금은 이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합니다.

맘먹은테로 2009.04.18 12:27

대통령 연임제 안됩니까?? 다시나오셔서 이 말도안되는 정치보복을 그대로 돌려줬음하네요.. 아~ 답답한 형국에 이눔에나라

도야지 2009.04.18 17:46

어느누가 워라해도 난 대통령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힘 내십시오

양계동김씨 2009.04.18 21:14

저는 항상 그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마음을 전합니다. 그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 걱정마세요 그러나 한편으론 답답합니다. 그건 당신이 죄?가 있다고 보아서가 아니라 검찰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비단 저 하나 이겠습니까 아시리라 봅니다. 올바른 검을 휘두를땐 활생검이 되지만 잘못된 검은 결국 피바람에 자신마저 베어 버리지요

방랑삿갓 2009.04.18 21:32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우선 건강을 생각하셔야 했습니다. 너무 초췌해 보이십니다. 눈물이 납니다.청와대에 게실때처럼 머리염색도하시고, 건강하고, 당당하고 굳건하게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각하를 바라보고있는 국민들이 힘을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무엇보다 우선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성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각하를 사랑합니다.

엘로택시 2009.04.18 21:35

존경합니다. 힘내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꼭 이겨주세요..

은전사 2009.04.19 00:24

인간의 탈을 쓴 후안무치한 짐승들이 범규정을 범자하여 또 다시 사람을 물어뜯고 있군요. 아귀들의 끝없는 재물욕과 뻔뻔스러운 지배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미 지구상에서 수없이 되풀이 된 일입니다. 염치를 모르는 아니 아예 없는 짐승이요 버리지들 이지요. 잠깐은 거짓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들의 만행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늙름하게,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구들의 울부짖음을 일별하고 소소강호하십시오...

노사모모임강추 2009.04.19 07:23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힘내세요..당신이 이나라에 있어 저희가 살아갈수있는겁니다^^

月빛光 2009.04.19 08:01

힘내세요...

demon 2009.04.19 10:10

그러게 말예요....

아무튼 진실이 우선이었습 좋겠습니다....

동아투사 2009.04.19 18:24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라이타73 2009.04.19 19:25

정말 보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 힘내시고,건강하세요.

참여하는 2009.04.19 20:01

노무현 대통령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장용영 2009.04.19 21:28

나는 백 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마틴루터 킹 목사 보다도 링컨대통령 보다도 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 할 것입니다. 한 없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대를사랑합니다 2009.04.20 15:03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세요. 정치를 하는사람 정치를 했던 사람들 중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줄 몰랐습니다. 비록 어려운일을 겪고 계시지만 힘내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날개잃은새 2009.04.20 22:51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우린 다알고있어요 이견 누가봐도 정치탄압입니다.

물론 잘못은 가려야하겠지요.. 나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밝히는것

또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잘못된거 물론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내용이 있다면 바로잡아야겠지요.

신문지상과 방송에 연일 보도되고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너무

심려치 마셨으면 합니다. 산의 나무 한그루를 보고 마치 그나무가

산의 전체인듯 말하는 사람들이 어찌 큰산을 볼수 있겠는지요..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곧 검찰 소환조사가 있을줄로 압니다.

저희 모두는 대통령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중수 2009.04.22 19:34

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님.. 국민을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국민대혁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405>

중수 2009.04.22 19:35

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님.. 국민을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국민대혁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405>

하나된우리 2009.04.23 18:15

실망! 없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기에 실망감과 함께 가슴 저런 아픔도 함께 느꼈습니다. 연일 TV에 쏟아지는 뉴스가 지금도 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견 누군가의 음모이며, 진실은 다르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다시바람이 2009.07.22 23:32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버마제비 2009.07.24 17:45

이글에 이미 힘이 없습니다...또 눈물이 나네요.애통합니다.노쟁님께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죄송합니다.미처 헤아리지못해서...편되어 주는이 하나없이 가증스런 악종들의 질투심이 빚어낸 조작된 언론플레이의 함정에 쓰러지신 대통령님...아~정말 미치겠습니다.우리는 정말 마보들이었습니다.사랑합니다.당신을 믿습니다.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들에핀꽃 2009.08.15 18:26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님의 건강을 염려 했지만

어찌 그리 가질 수 있습니까...ㅠ.ㅠ.ㅠ

pilomina 2009.09.04 16:58

난 이 시간에 뭘하고 있었나...자책감이 듭니다..

여기 글 한 줄이라도 남겼더라면 이리 괴롭진 않을텐데...

보고싶습니다...

환생 2009.09.28 21:10

전 바보입니다. 대통령님께 또다른 바보입니다.

다슴맘 2009.11.03 18:49

너무나 그립습니다 ~~~

sangrape 2010.01.05 13:31

그렸습니다.  
 대통령님.  
 그토록 참담해 하실 때  
 아무힘도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안 계신 지금  
 그들의 목표는 한명속 전 총리님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대통령님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처럼  
 그리 쉽게 당하지만은 않아야할 텐데...  
 걱정되고  
 눈물 납니다.  
 보고싶은 대통령님.....

민주주의신장 2010.03.15 23:07

도테체 이나라는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하는가?  
 그래 니들 알아서 정치하라...  
 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문직이 2011.07.01 22:55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 재임시에는 대한민국 국민들 각자도 마음이 따뜻했는데, 지금은 점점 삭막해져 감을 느낍니다!  
 다시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같아요!

지천서 2011.07.10 21:00

끝이없는 슬픔! 천지간의 빛물뒤에도 태양은 뜨는 법입니다. 님이시여! 저편세상에서도 이나라를 구원하십시오...

차가운봄날 2011.08.09 18:23

그리워요..너무너무..

손평쓰기

등록

목록

| NO  | 제목                                                          | 조회     | 글쓴이 | 등록일        |
|-----|-------------------------------------------------------------|--------|-----|------------|
| 38  | [진보주의 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2009.4.7 노무현) (36)                  | 27315  | 운영자 | 2009.07.22 |
| 37  | [진보주의 글] 줄거리 4차 초안입니다. 이 마당에서 토론을 해봅시다 (2009.3.20 노무현) (8)  | 4519   | 운영자 | 2009.07.22 |
| 36  |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제3차 초안입니다. 토론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2009.2.8 노무현) (6) | 2938   | 운영자 | 2009.07.22 |
| 35  |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에 관하여 2차 초안 (2009.1.27 노무현) (4)           | 2701   | 운영자 | 2009.07.22 |
| 34  | [진보주의 글] 전체 줄거리 구성 1차 초안입니다 (2009.1.23 노무현) (27)            | 13701  | 운영자 | 2009.07.22 |
| 33  |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달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392)                      | 387845 | 노무현 | 2009.04.22 |
| 32  |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1056)                                       | 289421 | 노무현 | 2009.04.21 |
| 31  | 강 금원이라는 사람 (1522)                                           | 354949 | 노무현 | 2009.04.17 |
| 현재글 | 부탁드립니다 (971)                                                | 157174 | 노무현 | 2009.04.08 |
| 29  | 사과드립니다. (1246)                                              | 186142 | 노무현 | 2009.04.07 |
| 28  | 좋은 글 하나 추천 드립니다. (122)                                      | 130865 | 노무현 | 2009.03.19 |
| 27  | G20 재무장관회의 기사를 보고 (97)                                      | 56631  | 노무현 | 2009.03.15 |
| 26  |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 (107)                                          | 26082  | 노무현 | 2009.03.13 |
| 25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무엇인가요? (83)                                | 30603  | 노무현 | 2009.03.12 |
| 24  | 토론마당 하나 소개합니다. (71)                                         | 26671  | 노무현 | 2009.03.07 |
| 23  | 관용의 한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83)                                      | 16585  | 노무현 | 2009.03.06 |
| 22  | 관용은 용서와 다릅니다. (164)                                         | 52297  | 노무현 | 2009.03.05 |
| 21  | 연속극 끝났는데... (271)                                           | 119264 | 노무현 | 2009.03.05 |
| 20  | 정치하지 마라. (275)                                              | 109593 | 노무현 | 2009.03.04 |
| 19  |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192)                                        | 28450  | 노무현 | 2009.03.01 |

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노 · 무 · 현 · 재 · 단

우 (121-89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 | 전화 1688-0523 | 팩스 02-713-1219 | 이사장 이병환 | 사업자번호 105-82-17699  
COPYRIGHT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ALL RIGHTS RESERVED. | 이메일 knowhow@knowhow.or.kr [노무현재단 찾아오시는 길](#)

우 (621-80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3 | 전화 055-344-1004 | 팩스 055-344-1007 | 이사장 권양숙 | 사업자번호 615-82-09681  
COPYRIGHT ©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 ALL RIGHTS RESERVED. [봉하재단 찾아오시는 길](#)

문의전화 최원·홈페이지·저작권 1688-0523 / 해외전용(적봉) 070-7931-0535 / 요역·생가·자원봉사 055-344-1302 / 봉하장터 1599-1946 / 생가점터 055-344-1005